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스펠혼

(SPELLhorn ·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김미형

2012년 2월

	스펠 혼	
	김미형	
	2012	

SPELLhorn

Mi Hyo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yong 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is a translation of the book *SPELLhorn* by Berlie Doherty.

Laura, a blind girl, can sense another world hidden from other people. One day, she feels strange hoof prints in her garden and gets taken away into another land 'Wilderness' by a unicorn, 'Spellhorn', and Wild Ones, who set a fire to human's houses to find him. Spellhorn as a guide of Wild Ones, comes out of their land to find a new Mighty High. He finds Laura and is gentled by her. Wilderness is 'the time-began thing', the young world and the place giving peace of heart. On her way to Wilderness, full of dangers are waiting for Laura and Wild Ones. They must cross BadWood where the unicorn fights Moonbats and Hornless unicorns and a Sea of Snakes where hissing snakes spit poison into the sea. Laura has to make a lot of decisions to get to Wilderness. In the Wild Ones's land, Laura can see 'all time began' colors there, feels heartglad but faces an inner enemy, 'Flight', who wants to be Mighty High as an oldest girl of Wild Ones. However, Flight lost her mysterious power which she uses badly. Old Woman leading Wild Ones as Mighty High, chooses Laura as 'Girlchild' with 'mind's eye', who becomes Mighty High. Laura feels perfect happiness in Wilderness since she climbs Spellhorn, which makes her regain her sight. Still, as the new Mighty High she is faced with tough decisions at every turn while struggling with her feelings of going back home.

감사의 말

장님소녀 로라가 스펀을 만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캄캄한 번역의 세계에서 나는 이 책 『스펠혼』을 만나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로라가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눈 ‘mind’s eye’은 현실과 또 다른 세계를 오고가게 하는 번역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라가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이티 하이가 되었듯이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논문 지도에 애써주신 박경란 교수님, 김재원 교수님, 김원보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먼저 드린다. 휴가도 내놓고 감수를 도와준 친구 김명희, 정은주, 김형우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우어 준 고경희, 오은숙, 유원희, 이민정, 은진은, 강수정, 오은영, 김지은, 고시연, 정혜진, 마지막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어준 혜정이와 시운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스펠 혼

벨리 도허티는 리버풀의 노티 애쉬(Knotty Ash)라는 곳에서 삼남매중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녀는 언제나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렸을 적엔 가수, 발레리나, 항공기승무원, 도서관사서 등, 되고 싶은 게 많았다. 그녀가 본격적인 글쓰기를 시작한 건 대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다닐 때였다. 그녀는 『이름 없는 그대에게』 (*Dear Nobody*)와 『할머니의 연애시대』 (*Granny Was A Buffer Girl*)로 두 번의 카네기 메달을 수상했다. 그녀는 현재 시골의 한적한 농가에서 페나인산맥이 내려다보이는 헛간에서 글을 쓴다. 그녀는 자신의 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책을 완성한 다음이면 저는 정말 슬퍼집니다. 가까운 누군가를 잃은 것 같은 슬픔 때문이지요. 제 자신의 상당 부분이 책안에 담겨있습니다.”

이 책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헬렌 던모어 씀

당신은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신비함과 극적인 내용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 존재를 믿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등장인물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이 책 스펠혼 에는, 두 개의 세계가 나란히 존재한다. 비록 하나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지만 말이다.

로라는 촉감과 맛, 냄새 그리고 듣기로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어린 장님 소녀이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과 그녀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실체를 감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로라는 와일드 원들이 그들 부족의 안내자인 유니콘, 즉 스펠혼을 찾느라 타고오는 횃불을 들고 마을길을 말타고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곧 그 횃불로 인간의 집들은 불타오르게 되고, 로라는 신비한 탐험으로 빠져들게 된다. 와일드 원들의 세계에서 로라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건 스펠혼이 그녀를 그의 친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와일드 원들을 이끄는 올드 우먼이 말하길 로라는 ‘마음의 눈’을 갖고 있다고 한다. 언젠가, 아마도, 로라는 올드 우먼의 자리를 맡게 되고, 부족의 우두머리인 ‘마יתי 하이’가 될 것이다.

스펠혼은 팽팽한 전개를 가진, 독자를 끄는 모험소설이다. 찬란한 월드니스에 있는 와일드 원들의 고향으로 함께 가는 로라의 여행은 위험으로 가득차 있다. 그녀는 썩썩거리는 뱀들의 바다를 건너야 하고, 방심하고 있는 어린 와일드 원들을 잡아 채가는 문베트들로 부터 숨어야만 한다. 하지만 위험은 내부로 부터도 온다, 그리고 벌리 도허티는 질투심을 와일드 원들 안에 극적으로 집어넣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훌륭한 책들처럼 이 책도 당신을 변화시킬 테니까. 일단 이 책을 읽는다면, 당신은 항상 와일드 원들의 이상한 언어와 스펠혼의 발굽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두 세계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로라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헬렌 던모어

헬렌 던모어는 소설가이자 시인, 단편소설 작가이며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글을 쓴다. 그녀의 최신 어린이 소설은 잉고 4부작의 마지막 편인 『잉고를 건너』 (*The Crossing of Ingo*)이다. 그녀의 작품은 많은 상을 수상했고, 그 중엔 오렌지 프라이즈 소설부문, 네슬레 스마티즈 은메달, 그리고 시그날 어워드 시부문 등이 있다. 그녀는 영국왕립문학원 (Royal Society of Literature)의 회원이다.

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셰필드에 위치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랩튼 마운트 학교의 홀리 드아덴, 리차드 그레이너, 데이빗 해터웨이, 로버트 스탈링을 위하여.

그들의 선생님이자, 제게 아주 많은 도움과 용기를 주신 팻 달리와 처음으로 유니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준 BBC 라디오4의 자넷 위태커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1.	언덕위의 감시꾼	2
2.	불이 난 마을	8
3.	말울음 소리	17
4.	뉘아채기	24
5.	와일드 윈들과의 동행	34
6.	걸차일드와 올드 본즈	38
7.	문배트	47
8.	물고뜯는싸움	53
9.	아이스파이 힐	61
10.	뱀의 바다로	72
11.	월더니스	79
12.	귀향환영 배채우기	85
13.	마이티 하이의 죽음	92
14.	올드 우먼을 위한 비가	98
15.	마이티 하이의 싸움	107
16.	인간족의 방문	113
17.	위험에 처한 월더니스	118
18.	사라진 스펀	122
19.	얼음산을 넘어	128
20.	고향	130



언덕위의 감시꾼

1

언덕위의 감시꾼

밤이 내려앉는다. 저 멀리 계곡 사이에서 집들이 따스한 불빛들로 하나씩 빛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수색꾼에게 낯설다. 그는 여태까지 현대식 마을을 본 적이 없다. 헤드라이트로 길을 쓸듯이 밝히며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보니 그는 불안해진다. 자동차들의 ‘웅 웅’ 거리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온다. 하지만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불빛들의 행렬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수색꾼은 바퀴 달린 짐승을 타고, 중심가를 조용히 오르내리며 어슬렁거리는 어떤 소년에게 마음을 사로잡힌다. 이 짐승의 눈빛은 창백하고 흔들거린다. 감시꾼은 그 눈빛에서 어떤 위험도 느낄 수 없다.

감시꾼의 거친 갈퀴를 가진 말은 참을성이 없다. 그 말은 땅을 쉴 새 없이 차고 고개를 마구 흔들며 무리로 돌아가려고 안달이다. 감시꾼은 말을 진정시키려고 목을 두드린다. 그의 뒤편 멀리서 들려오는 ‘탁탁’거리는 나무 타는 소리와 불꽃

이 솟구치는 소리는 와일드 원들이 밤을 밝히려고 불을 피운 것을 알게 한다. 하루 종일 수색하느라 지친 감시꾼을 위해 먹을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 분노, 비탄, 그리고 끔찍한 양갓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안다.

감시꾼은 말머리를 돌리려고 맨발 뒤꿈치로 말의 배를 차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내려다본다. 그는 자신을 뒤덮는 깊은 슬픔을 설명할 길이 없다.

“자, 프로스, 다 눈에 담았으니 돌아가자.”

자전거를 탄 소년은 샘이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고, 그 자전거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자전거는 중고였지만 엄마가 칠을 새로 해주셨다. 샘은 안장이 맘에 들지 않았다. 안장을 낮추고 핸들의 손잡이를 바꿔야 애들에게 뽐내며 탈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팀과 이안은 자전거를 타보겠다고 하겠지만 샘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 녀석들은 자전거를 받자마자 고리로 채우고 구덩이로 던져 버릴게 분명하다. 제일 친한 친구 로라는 자전거를 한번 만져보자고 할 것이다. 그녀는 몸을 구부린 채로 자전거의 차가운 금속 틀을 손으로 쓸어 내려가며 자전거의 모양을 알아 낼 것이다. 그녀는 고무로 된 바퀴를 살짝 눌러보고는 바퀴 테에 새겨진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바퀴의 살들을 쓸어내며 악기인 양 손톱으로 튕겨 소리를 내보려 할 것이다. 로라가 원한다면, 샘은 그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그녀의 집 주변 도로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조금 밀어줄 작정이다. 로라는 정말 좋아 할 것이다. 샘은 그녀의 발을 자전거 발판에 맞춰 주고, 그녀가 페달을 돌릴 때 바퀴에서 ‘싱 싱’나는 소리를 듣게 해 줄 것이었다. 샘은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샘!” 그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세우는 연습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불렀다.

“이제 그만 들어와.”

“조금만 더 타고요, 엄마”

“지금 들어와. 자전거 불빛이 약해서 밤에 타는 건 위험해. 말했잖니. 춥기도 하고 말이다.”

“엄청 더운데!”

“지금 몇 시인 줄이나 알아? 얼른 들어와, 샘.”

샘은 졌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페달을 억지로 밟아 우유병 옆으로 미끄러지듯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로라네 집은 계곡 끝에 있었다. 그녀는 자기 얼굴에 닿는 차가운 밤바람과 팔에 감기는 커튼 소리를 즐기며 침실의 열려진 창가에 서 있었다. 밤은 항상 차갑고도 선명한 냄새를 풍겼다. 정원에 가꾼 꽃들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오자, 그녀는 연하게 풍겨오는 익숙한 향을 느낄 수 있었다. 창가에서 돌아서려던 순간, 그녀는 뭔가 새로운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를 다시 맡아보려고 창가로 몸을 기울였다. 그 냄새는 강렬하면서도 깊고 향긋했다. 그녀는 이 냄새를 다마스크문양이라고 부르리라 마음먹었다.

“짜늘한데, 로라야.” 뒤에서 나타난 엄마가 팔을 만지며 말을 건넸다. “이제 창문을 닫으렴.”

“오늘 밤, 정원 냄새가 더 좋아요.”

“그래? 아빠가 새로 뿌린 비료 때문에 그럴 거야.”

커튼 봉에서 고리를 끌어 커튼을 닫으며 대답하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배어 나오는 것을 로라는 느낄 수 있었다.

말 탄 사람은 일행에 가까워지자 소리치고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나이든 아버지 사이드맨이 낮고 성마르게 부르는 노랫소리와 아들 슬로의 귀여운 목소리를 알아챘다. 여자들은 작은 모닥불 주위에서 조용하게 말을 하고 있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그들은 아침까지 거기 머물 것이다. 말을 탄 남자가 다가오자 다른 남자들이 얼른 와서 앉으라고 그에게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프로스의 등 위에서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올드 우먼은 어디 계시니?” 그는 따뜻하게 데운 술을 뿔에 담고 달려온 아들 슬로에게 물었다. 슬로는 고개로 작은 모닥불 쪽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사이로 자신의 이름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일어서며 하얀 머리를

어깨 뒤로 넘겼다.

“음, 웨이파인더.” 올드 우먼이 소리쳤다. 그녀의 흔들리는 음성은 모든 노랫소리를 날려 보냈다. “찾았나?”

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뭐라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아닙니다, 올드 우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마음구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나를 피해 숨어있는 거지?” 그녀가 걸음을 내딛다가 모닥불가에 이리저리 앉아있는 와일드 원들에 걸려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할 때, 보이는 것이라곤 망토를 덮은 듯이 파리하게 빛나는 머리뿐이었다. 슬로가 뛰어가서 그녀를 부축했다. 올드 우먼은 웨이파인더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프로스의 등을 두드렸다. 그녀는 목을 길게 빼고 몸을 돌리면서 와일드 원들을 노려보았다.

나이가 든 사이드맨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서 섰다. 그는 양손을 들어 올렸다.

“와일드 원들, 조용히들 하게나!” 사이드맨이 소리쳤다. “올드 우먼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듯하네.”

올드 우먼이 말을 꺼낼 때, 와일드 원들은 서로 중얼대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월더니스부터 여기까지 먼 길을 헤매고 있소. 그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 놓고 사라져버렸소. 그가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와일드 원들이여, 혹시 알고 있소? 만약 여기 더 머물게 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 영원잠 속에 빠져 죽게 될 거요. 이 땅은 와일드 원들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없소.”

여기저기서 옳다고 푸념하는 소리가 났다.

“게다가, 점점 더 내 눈이 어두워지고 있소. 누가 누군지 얼굴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요. 다만 불꽃이 깜빡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요. 하늘의 눈인 달을 알아 볼 수 있지만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볼 수가 없소. 밤이 내 주위에 널려 있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소. 왜 그런지 아시오?”

“네, 알겠습니다. 올드 우먼.” 사이드맨이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왜냐하면 내 유니콘이 사라졌기 때문이요. 내 눈밝음은 유니콘이 사라지면 어

뚝으로 변하게 되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소. 하지만 그는 나를 여기에 버려두었소. 내 스펠혼은 어디 있단 말인가? 사이드맨!”

사이드맨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고개를 가로 저었다. “우리는 밤중에 그의 냄새를 맡으며 흔적을 따라왔소.....”

“스펠혼이 우리를 두고 도망갈 아무런 이유도 없었소.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요?”

“누가 훔쳐 간 게 아닐까요?” 슬로가 말했다.

올드 우먼은 씩씩하게 웃었다. “훔쳐갔다고? 스펠혼을? 마음구멍에 고작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말이나? 아버지가 네게 말해주는 물려주지 않았구나.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 뒤라, 슬로. 누구도 유니콘을 훔칠 수는 없다. 절대로. 유니콘들이 살아있는 한은 말이다. 확실하다.”

차가운 침묵이 마치 세찬 눈발처럼 와일드 원들 위 내려앉았다. 와일드 원들은 불을 멀리 등지고 불편하게 앉아서, 지도자인 올드 우먼을 바라보았다. 머리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슬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에 낼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스펠혼은 긴 영원잠에 빠져든 게 틀림없어요.”

올드 우먼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스펠혼이 영원잠에 빠져들었다면, 나도 또한 영원잠속으로 빠져들 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요. 스펠혼 없이 아무도 월터니스로 돌아갈 수 없소. 와일드 원들은 모두 영원히 길을 잃을 거요.”

불가에 앉아 있는 감시꾼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올드 우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사이드맨이 목구멍 깊이 끌끌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뒤틀린 손가락으로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와일드 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저 계곡 너머 말입니다. 올드 우먼, 저는 스펠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펠혼을 누가 훔쳐가거나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올드 우먼은 그를 향해 보이지 않는 눈을 돌렸다. “왜 우리를 길 잃게 하고, 마음슬픔을 남긴 채 떠나 버린 거지?”

웨이파인더는 말 등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서, 프로스가 다른 말들이 있는 곳으로 총총거리며 가게 두었다. 웨이파인더는 올드 우먼의 마음이 더는 아프지 않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아마도 스펬혼은 저 아래에 가보고 싶었나 봅니다.”

올드 우먼은 두 손을 얼굴에 대고 광대뼈를 눌렀다. 춤추는 불꽃 사이로 살갓 아래 두개골에 움푹 들어간 깊고 검은 눈이 보였다. 주위에는 모닥불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와, 풀을 뜯으며 내는 말의 콧김 소리만이 들렸다.

“스펠혼을 당장 찾아오시오!” 그녀는 슬로와 웨이파인더에게서 획 돌아서 여자들이 앉아 있는 모닥불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와일드 원들은 그녀가 지나가도록 비켜 서 주었다. 하지만 누구도 고르지 못한 땅을 걸어가는 그녀를 부축해 주지 않았다. 슬로는 걱정스러운 듯이 아버지에게 돌아섰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으란 말이에요? 진짜 영원잠에 빠져 들었다면요, 아니면 누가 훔쳐갔거나 도망을 쳤다면 말예요, 지금은 스펬혼을 찾을 가망이 없잖아요.”

올드 우먼은 잠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가 모닥불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가자, 불빛이 얼굴과 팔위에서 밝게 나풀나풀 거렸다. 앞으로 내려온 하얀 머리가닥들이 불에 그슬려 곱슬곱슬하게 말려 올라갔다.

“불을 질러 스펬혼을 나오게 하시오.” 올드 우먼이 말했다. “저 계곡 아래에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숨 쉬러 기어 나오게 하시오. 스펬혼은 연기 속에선 살 수 없소. 불을 지르시오. 다 태워 버리란 말이오! 하지만 스펬혼은 내게 안전하게 돌아와야 하오.”



2

불이 난 밤

로라는 언덕을 내려오는 말 발굽소리에 잠이 깼다. 그 소리는 너무도 커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를 치는 듯했다. 남자들의 말을 재촉하는 고함 소리와 말 울음 소리에 섞여, 순식간에 불꽃이 확 붙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왔다.

“엄마!” 로라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빨리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의 엄마는 방에서 얼른 나와, 로라의 방으로 뛰어 들어 갔다.

“로라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툭툭댔다. “왜 깨웠어?” 엄마는 방에 불을 켜자,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채 침대에 뻗뻗하게 앉아있는 로라를 보았다. 엄마는 로라에게 다가가서 두 팔로 로라를 안으며 물었다. “로라? 무슨 일이야?”

“저 말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라가 물었다.

“말이라구?” 그녀의 엄마는 어리둥절했다. “말이라니? 무슨 소리야?”

“야생마와 소리 지르는 남자들, 그리고 횃불이요.”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엄마는 또 별일 아닌 것에 잠에서 깨

자 짜증이 나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꿈을 꾸었구나, 말 같은 건 없어.”

“소리가 들려요.” 로라가 고집을 피웠다. “계곡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고함치고 웃고 있어요.....”

로라를 진정시키려고 엄마는 창가로 다가가서 커튼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창문을 밀어 चे치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밤은 고요하게 깊어갔다. 초저녁의 산들바람은 멈췄고,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로라는 끔찍하게 울리는 말 발굽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만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말이 어디 있다는 거니? 어서 도로 자!”

엄마는 로라에게 이불을 덮어 주고 나서 방을 나왔다. 하지만 딸이 걱정이 되어, 로라의 방에 불은 그대로 켜두고 방문은 열어 두었다. 로라는 계곡이 위협에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크게 뜬 채로 침대에 누워있었다. 로라의 귀에는 멀리 말울음 소리, 거친 외침과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잠시 후, 로라는 불꽃이 확 번지는 소리를 들었다. 코를 찌르듯이 역하게 퍼지는 불꽃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마을 중심가에 있는 집들이 불길에 휩싸였다. 샘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샘이 자기가 보내는 경고를 받을 수 있게 자기를 생각하기를 바라며 침대에 다시 일어나 앉았다.

“샘!” 로라가 소리쳤다. “샘!”

샘은 어떻게 잠에서 깨었는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연기 냄새를 맡았다. 샘은 재빨리 방문을 열었는데 아래층에서 휘감아 올라오는 끔찍한 연기를 보았다. 연기는 그의 눈을 바늘처럼 찔렀다. 샘은 건너편 부모님 방으로 뛰어가 방문을 열었다.

“불이야!” 소리를 질렀다. “집에 불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샘은 아래층에 깔린 연기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밖으로 나아갔다. 검은 연기가 이웃집 현관문과 창문에서 쏟아져 나왔다. 샘은 거리로 뛰어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불이야! 불이야!” 그의 뒤를 따라 나온 부모들도 샘과 같이 소리쳤다. 금세 거리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이 불길에 물을 뿌리고, 매캐한 연기 속에서 객객대며 기침하고, 서로를

끌어당기느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고, 소방관들은 길고 꼬불꼬불한 호스를 가능한 많은 건물에 끌어놓으려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샘은 자전거가 떠올라서, 자전거를 가져오려고 집 옆을 빙 둘러 달려갔다.

“샘! 어디가는거야?” 샘의 엄마가 소리쳤다.

“자전거 가져와야죠!” 샘이 소리쳤다.

샘의 아버지가 샘을 잡으려했지만 샘은 이미 차고의 문을 열어 채치고 밖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

“이 바보야!”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저 안에는 기름이 짝 찬 차가 있잖아! 자동차가 폭발했으면 어쩌려고 했어!”

지붕에서 배수구가 떨어지자, 기다란 불길의 치솟았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돌풍이 일자 시커먼 연기가 소용돌이쳤다. 소방관이 뿌린 물에 불꽃들은 피시식 꺼져갔고, 나무 탄 냄새로 공기는 메케했다.

마침내 불이 모두 진화되었다. 샘과 이웃들은 잿빛의 이른 새벽 거리에 여기저기 흩어져 서있었다. 집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해있었다.

올드 우먼은 와일드 원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계곡에서 피어나는 연기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남자들이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돌아오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웨이파인더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웨이파인더와 슬로는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언덕위에 서있었다. 펜과 프로스는 주인들이 묘한 기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풀을 뜯으면서도 걸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까?” 올드 우먼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슬로의 팔을 꼭 붙잡으면서 두 부자에게 물었다. “스펠혼을 찾았나?”

“아직은 아닙니다.”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햇불에 덴 손가락 피부가 까맣게 그을려있었다. 웨이파인더가 화끈거리는 손을 흐르는 물에 담가 아픈 것을 누그러뜨리려고 개울가로 돌아서려할 때, 올드우먼이 그를 불러 세웠다.

“스펠혼을 보았나?”

“아닙니다, 올드 우먼. 스펬혼이 지금 저 아래 어느 숨는 구멍에 있기를 바랍니다.”

“집들에 불을 질렀어요.” 슬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몇 개나?”

“몇 채만 태웠습니다.”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그리고 제 손가락도 반이 불에 데었습니다. 덧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병고침 힐핸드가 여기 있나요?”

올드우먼은 대답을 교묘히 피하며 웨이파인더 앞으로 다시 돌아섰다.

“왜 멈췄지? 내 하늘같은 명령은 스펬혼이 밖으로 기어나 올 때까지 불을 지르라는 것 이었는데!”

웨이파인더는 그녀 뒤에 서있는 슬로를 바라보았다. 웨이파인더는 경보가 울려 퍼지고,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거리를 달려오자, 와일드 원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올드 우먼에게 그 괴물에 대해 그림말을 들려라, 슬로야.” 라고 하며 웨이파인더는 자리를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연기에 휩싸인 집에서 공포에 가득차서 뛰어나 오던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웨이파인더는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온순해서 한 번도 싸움에 휘말려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아이마음’이라고 부르곤 했다.

“빨간 괴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어요.” 슬로가 올드우먼에게 말했다. “번쩍거리는 눈과 뱀 같은 머리를 가진 굉장히 큰 야수였어요. 물을 뱉으며 불꽃을 삼키던 걸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허약하게 생긴 뺨뺨마른 한 와일드 걸이 슬로 주위에서 춤을 추며 웃었다.

“부들부들?”

“정말이라니까!” 슬로가 항변했다. “모두가 심장이 딱 멎는 줄 알았다니까.”

“겁쟁이, 슬로!” 그녀가 다시 소리 내어 웃었다. “들었어요? 워터! 심장이 멎는 것처럼 무서웠다네! 겁쟁이 벌레들이나 심장이 멎을 정도로 무서움을 타지.”

“입 좀 다물어라, 플라이트!” 워터가 그녀를 나무랐다.

반짝이는 새의 눈을 가진 플라이트는 주위에 서 있는 와일드 우먼들을 흘끔 쳐다보았다. “이제 여자아이들이랑 와일드 우먼들이 수색하는 게 낫겠어요. 겁쟁이 와일드 맨에게 어떻게 스펬혼을 맡기겠어요?”

워터는 플라이트를 보며 혀를 찼다. “슬로는 어른들과 처음으로 나선 거잖니. 슬로가 이야기를 마치게 나뉘 봐!”

플라이트는 슬로에게 고양이처럼 옆 걸음질치며 다가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슬로, 다음엔 나도 같이 가게 해줘. 유니콘이 내게 올 수 있을지.....”

“시간이 없어!” 올드 우먼이 말을 가로챘다. 올드 우먼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플라이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나는 하늘처럼 고귀한 마이티 하이다.” 올드 우먼이 플라이트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스펠혼들은 모두 내거야. 그 사실을 영원히 마음구멍에 담아놔.”

“그럼 늙은 뼈다귀 올드 본즈가 직접 찾으시면 되겠네요!” 플라이트가 중얼거렸다. 사이드맨이 플라이트의 팔을 잡고는 아프도록 짹 쥐었다. “그 뱀 같은 입이랑 가지밭에 확 던져버릴 거다.”

“저는 스펠혼이 우리를 영원히 떠난 게 낫다고 생각해요.” 슬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슬로는 등을 돌렸다. 아직도 계곡에서 노랑게 피어나는 연기와 불꽃을 볼 수 있었다.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올드 우먼이 킁킁대며 말했다. “내 고귀한 힘은 내 유니콘들이 없으면 사라지오. 스펠혼을 찾아오시오. 모두! 스펠혼이 깊이 몸을 감춘 숨는 구멍에서 뛰어 나오도록 다시 연기를 피우란 말이오. 당장!”

웨이파인더와 슬로는, 다리를 질질 끌며 다른 와일드 우먼들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지는 올드 우먼을 지켜보았다. 난생처음, 슬로는 그녀가 무섭지 않았다.

“스펠혼의 냄새를 혹시 맡을 수 있었니?” 웨이파인더가 슬로에게 물었다. 슬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코 속 깊숙이요, 달콤한 연기처럼 계곡 여기저기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코빼기도 안보이던걸요.”

“나도. 그런데 왜 스펠혼은 사람들 집근처에 숨어있는 걸까? 이상하군.”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로라의 아버지는 불이 났을 때, 마을로 운전을 하고 갔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나중에는 샘의 부모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치료받을 수 있게 병원으로 데려다 주고, 샘을 한 두주쯤 돌보기 위해 로라네 집으로 데리고 왔다. 샘은 로라네 빈방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잠에 빠져, 다음날 로라가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자고 있었다.

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로라는 밖으로 나가,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10월의 부드러운 태양이 그녀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로라는 엄마가 주신 봄꽃의 알뿌리를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심고 싶었다. 로라는 작은 매트를 들고 나와서, 잔디 위에 깔고, 도구가 들어 있는 바구니와 알뿌리가 든 자루를 가지러 창고로 갔다. 로라는 뭔가 몽푹하고 움직이는 것에 부딪혔다. 로라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으로 더듬었다. 차갑고 부드러우면서, 속이 빈 금속 틀과 고무로 된 바퀴가 느껴졌다. 그녀는 침착하게 창고 한 쪽으로 그것을 다시 세워 넣고 바구니를 들었다.

어제 로라는 땅을 갈아엎고 알뿌리를 심을 좁은 고랑을 파두었다. 매트위에 무릎을 꿇고, 땅에 알뿌리를 심으려고 몸을 숙였다. 머리카락 같은 뿌리가 아래로 향하고 뾰족한 위쪽 부분이 흙 위를 뚫고 나와 태양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라는 첫 번째 알뿌리를 고랑에 넣고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살살 흙을 채운다음 손바닥으로 뿌리 옆에 축축한 흙을 단단히 눌러 마무리했다. 작은 벌레가 미끄러지듯이 기어갔다. 두 뼘 정도의 거리에 두 번째 뿌리를 심어야 한다.

로라는 거리를 재고는 잠시 멈춰서 땅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 보았다. 흙이 달랐다. 땅이 움푹 패어있었다. 지난밤에 거기 뭔가가 있었다. 그녀는 고랑을 따라 손을 움직여가며 다른 패인 곳이 있나 찾아보았다. 앞으로 몸을 기울여 두 개를 더 발견했다. 네 개의 패인 자국. 그녀는 궁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여 무릎을 다시 꿇고 다시 앉았다. 야릇하고 짙은 향기가 주변에서 풍겨왔다. 로라는 그 향기를 깊이 들여 마셨다. 가을 낙엽을 휘젓는 바람 소리 만큼 희미한 말발굽소리를 들었다.

“안녕, 로라.”

로라는 금방 잠에서 깬 듯이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샘!” 그녀가 말했다. “깜짝 놀랐잖아!”

“내가 오는 소리 못 들었어?” 걱정스럽게 샘이 물었다. “일부러 막 소리를 내며 왔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전날 밤 일을 생각하니 그녀는 어색해졌다. “괜찮은 거지?”

“물론이지. 그것보다는 말이야.” 샘은 로라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젯밤은 정말 끔찍했어.”

“부모님들은 어떠셔?”

“두 분 다 괜찮으셔. 방금 너희 엄마가 병원에 전화해서 알아봐주셨어. 부모님들은 할머니 댁에서 머무실 거래. 당분간은 집에 돌아가지 못할 테니까.”

“정말 안됐다.” 로라가 말했다. “우리 집이 없어진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방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모두 다 타 버린 거야?”

“거의 다. 내 자전거는 가까스로 구했어. 지금은 너희 창고에 넣어 두었어.”

“알아. 자전거에 걸려 넘어 질 뻔 했어.”

둘은 웃었다. 로라는 알뿌리 하나를 더 바구니에서 꺼내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가볍게 굴렀다. 알뿌리의 느슨하고 종이 같은 껍질이 바스락거렸다.

“샘, 말 발굽소리 들었어?”

“말? 언제?”

“어젯밤에.”

“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군가 내 이름을 외치는 것은 들은 것 같아. 그 소리 때문에 깨었거든.”

“내가 그랬어.” 로라가 말했다. “우리 게임 있잖아, 그거, 서로 같은 거 생각해 내기 게임. 너희 집에 불이 난 거 알고 있었거든.”

둘은 지난 밤 불에 대해 생각하며 말이 없었다. 로라네 집은 샘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중간쯤에 언덕이 있었다. 샘이 로라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샘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리고서, 뭔가 타는 냄새를 맡고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달려 나갔지. 다른 집들도 불길에 휩싸여있는걸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못했으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을지도 몰라.”

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로라의 바구니에서 뼈죽하게 나온 지푸라기를 잡아당겼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말을 탄 남자들이 그랬어.” 로라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남자들 소리를 들

있거든.”

샘은 로라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으로 땅을 토닥거리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남자들은 우리 정원을 지나갔어. 봐봐.”

샘은 로라가 가리키는 움푹 들어간 곳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저게 뭘지 모르겠네.” 샘이 말했다. “그냥 작은 웅덩이 같아. 아마 네가 땅을 파다가 만든 거 아닐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 로라가 샘에게 말했다. “난 땅을 평평하게 골랐어. 잘 보려고 해봐. 눈을 감아.”

이것은 로라와 샘이 개발해 낸 이상한 게임이었다. 가끔 샘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들, 색깔이나, 자세한 부분들 그리고 빛나는 것들과 그 그림자를 로라가 볼 수 있다고 할 때까지 설명을 했다. 그리고 가끔은 로라가 머리에서 본 것을 샘에게 보여 주려고 했다. 샘과 로라는 이것을 로라의 마음의 눈이라고 불렀다. 샘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검붉고 푸르거나 황금색으로 점점이 박힌 빛과 짙은 벨벳 같은 암흑에 집중했다. 잠시 후, 로라가 자신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따금씩 로라의 목소리는 산산이 부서진 거울 조각처럼 다양한 색채가 오고가게 만들었다.

이제, 로라는 거친 부엌매트 위에 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샘의 손을 더듬어 잡고 이끌었다. 그녀는 한 손바닥을 천천히 펴고 땅위에 있는 첫 번째 웅덩이로 그의 손가락을 잡아끌었다.

“자, 이제 생각해봐.”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에 무엇이 있었지?”

샘은 땅을 토닥거리며 땅위로 올라온 곳과 움푹한 곳을 눈을 감은 채로 손으로 느끼고 있었다. “뭔가 여기에 서있었던 것 같아.....” 샘이 약간 의심스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뭔가 무게가 있고 기울어진 거.” 로라가 샘에게 말했다. “그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지. 발자국을 일부러 찍은 것 같지 않아?”

“맞아,” 샘이 천천히 말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도.” 로라는 샘의 손을 다른 웅덩이로 잡아끌었다. 이제 샘은 이 무거운 생물이 육중하게 걸을 때, 끊임없는 압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로라가 만든 고랑에 다리를 딛고 높게 서있는 그 생물을 볼 수 있

을 것 같았다. 차가운 땀방울이 샘의 머리카락을 따라 흘렀다.

“볼 수 있지?” 로라가 속삭였다.

샘은 그의 손을 치우고 두려움에 눈을 떴다.

“뭔가,” 샘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말발굽 자국이 아니야. 말 만큼 큰 동물이긴 한데 말은 아니야.”

“알고 있어,” 로라가 말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 있어. 그게 여기 있다는 거 알아.”



3

말울음 소리

그날 밤, 달은 물처럼 부드럽게 안개 낀 하늘 위로 흘러가고 있었다. 올드 우먼은 모닥불 옆에 웅크리고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의 오랜 친구인 사이드맨이 다가가서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사이드맨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잠자다가 놀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닥불에 나무를 넣었다. 축축하게 젖은 나무토막이 불똥을 튀게 했다.

올드 우먼이 몸을 뒤척였다. “사이드맨?”

“나방처럼 자더군요.” 사이드맨이 싱글싱글 웃었다. “나풀거리는 손가락, 썰룩이는 눈.”

“귀를 기우리느라, 그것 때문이야.” 올드 우먼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거친 두 손으로 눈을 비볐다. “밤 서리가 내렸어.”

“네.” 사이드맨이 말했다. “그리고 달무리가 크게 졌습니다.”

“그런데, 웨이파인더는 뭘 하고 있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이드맨이 올드 우먼에게 말했다. “무엇을 하라고 할까요, 올드 우먼?”

“어제 밤이랑 같은 일. 내일도 마찬가지로, 유니콘이 은신처 밖으로 기어나올 때까지 계속 불을 지르라고 하시오. 내가 이미 말했잖소!”

사이드맨이 슬로에게 두 손을 들자, 슬로는 거친 털의 말을 타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과 있는 웨이파인더에게 신호를 보냈다. 남자들은 하나씩 차례로 제일 큰 모닥불가로 가서 나무로 된 햇대를 대고, 불이 붙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불뚱이 살갓에 튀었다. 남자들은 길게 늘어서서, 불꽃이 활활 타는 햇대를 캄캄한 밤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남자들이 탄 말은 기다란 풀을 뜯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남자들이 말고삐를 세게 당겼다.

계곡 끝에 있는 집에서 불빛들이 어렴풋이 빛났다. 몇 집은 이미 불을 끄고 잠에 빠져 있었다. 웨이파인더는 슬로를 바라보았다.

“내려갈 준비 되었니?”

슬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분이 온 몸에 퍼져 머릿속을 뒹뒹거리게 했고, 강물처럼 흘러 두 팔을 얼얼하게 했다. 슬로는 와일드 맨과 함께 말을 타고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웨이파인더가 팔을 들어 올렸다. “출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남자들은 타고 있는 말의 배를 찼다.

로라는 그 남자들이 굉음을 내며 달려가는 소리를 듣고 깨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 할 수 있었다.

“그자들이 돌아왔어!”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샘과 로라의 엄마가 소리를 듣고 함께 방으로 달려왔다.

“또 불이 날거예요,” 로라가 소리쳤다. “그 자들을 멈춰요.”

로라 엄마가 반쯤 잠에 빠진 상태에서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며 서 있는 동안, 샘은 자기 방으로 달려가 잠옷 위에 덧옷을 입고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전거를 창고에서 급히 정원으로 끌어내어 타고, 마치 성난 작은

바람처럼 마을의 중심가로 내달렸다.

“불이야!” 그는 소리를 질렀다. 샘의 목소리는 집들 사이에서 메아리쳐 울렸다. 아무런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았지만, 샘은 “불이야!”하고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샘이 무슨 소리를 하는 지 궁금해서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천천히 거리로 나오면서 그을린 연기의 메케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불꽃이 ‘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곧 고개를 돌리자, 커튼과 양탄자가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게 되었다.

로라와 그녀의 엄마는 로라 침실의 창가에 서 있었다. 저 아래로 계곡에 자리한 집들이 멀리 아래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거리로 달려 나오며 소리를 지르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다.

“로라야, 네 말이 맞았구나.” 엄마가 말했다. “저기 더 많은 집이 화재에 휩싸였다.”

하지만 로라는 고개를 거기서 자신의 정원 쪽으로 돌렸다. 향긋한 냄새를 다시 느꼈는데 그 향기는 마을에서 불어오는 메케한 매연 보다 훨씬 더 강했다. 로라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멋진 일이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고요함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무엇인가 빛을 내고 있었다. 로라는 깊은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달빛처럼 하얗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색깔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양도 그러했다. 그녀의 정원에 살아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창백하고 얼음처럼 파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샘은 다음날 아침 지방 라디오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가 녹화되어 라디오에서 나올 때, 샘은 로라네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면서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이 라디오에서 나오자 샘은 로라네 가족을 향해 크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방방송 아침 뉴스 시간입니다. 밤새 누군지 알 수 없는 방화범이, 다시 한 번 이 작은 마을 엑클레삼을 화재의 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화재경보를 울린 사람은 열한 살짜리 소년, 샘 토틀레이 입니다.....”

이 부분에서 로라가 샘의 팔을 잡아서, 샘은 자기를 향해 그녀가 활짝 웃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샘의 집은 그제 밤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샘이 어떻게 마을을 구할 수 있었는지 저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베벌리 터너 받아주세요.”

다소 긴장되고 흥분되어 숨 가쁘게 들리는 샘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흘러 나왔다. 확실히 샘의 목소리였다.

“저는 햇불이 언덕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햇불은 나무 막대에서 작은 불처럼 탔습니다. 햇불을 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방화범을 보셨다는 말입니까?”

샘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다.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가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장님이긴 하지만, 아시겠어요?”

기자는 잠깐 멈칫했다. 샘은 식탁에 머리를 박았다. 로라는 샘에게 손을 뻗어서, 자기도 샘이 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들은 테이블 너머로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한숨을 지었다. 로라의 또 다른 판타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는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보이며 말했다. “그 친구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죠? 샘!”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제 자전거를 창고에서 꺼내어 타고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밤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가셔야 했거든요.”

“네, 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샘과 그 친구는 이클레이삼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제 친구의 정원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선 정확하게 말 발굽자국은 아니었습니다. 말 만큼 커다랗기는 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샘의 목소리가 흐릿해지고 기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어린 샘 토틀레이가 용감하게 마을을 구했습니다. 이 지역 집들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대략.....”

로라의 아빠가 라디오를 껐다.

“샘, 아주 잘했어.” 로라가 말했다. “고맙구나, 샘. 온 마을 경찰관들 절반이 우리 정원에 있는 말밭굽자국을 조사하러 몰려들겠구나!”

“한 쌍의 환상적인 이야기꾼들이야.” 로라의 아빠가 말했다. 로라는 아빠의 이런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아빠는 화가 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로 판명될 때까지’ 믿지 않겠다는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곤 했다

“샘, 어떻게 된 거니?”

“저는..... 로라가 야생마를 탄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달려 나갔어요. 전 다만 경고를 해주고 싶었어요.”

“야생마!” 로라의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다. “로라야, 뭔가 들은 게 있기는 하구나. 샘이 경고를 하게 만든 것은 잘한 일이야. 하지만 어제 밤에 말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자다가 연기 같은 냄새를 맡았나보구나. 어쨌든지 잘했다.” 로라의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원에 있었다는 말은.....”

“말은 아니었어요.” 샘이 말했다.

“나도 그게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로라의 엄마가 말했다. “세상에 어떻게 말이 우리 집 정원에 들어 올 수 있겠어, 로라야? 벽을 기어오르거나 않는다면 말이야.”

“점프를 했을 수도 있지요.” 로라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어쨌든지, 어제 밤에 틀림없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로라는 그녀의 부모가 서로에게 보내는 표정을 느끼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로라가 주먹을 풀고 손가락 하나하나로 테이블 위를 툭툭거리자, 침묵이 깨졌다. 엄마는 로라의 손을 치우고, 테이블보를 잡아당겨 정원에서 탁탁 털었다. 로라는 이제 무시당하고 있었다. 로라의 부모는 그녀가 마치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로라의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샘.” 로라는 엄마가 샘에게 하는 소리를 들

었다. “로라는 정말이지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부른다.”

“알아요.” 샘이 말했다. 샘은 이제 로라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로라는 이제 샘의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아빠가 말했다. “방화범이 불을 지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사람들이 이 근처 있었다는 증거가 없거든.”

“말발굽 자국도 없었나요?” 샘이 물었다. 로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없다. 샘, 말발굽 자국은 어디도 없어.” 브룩씨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리고 출근하려고 준비했다. 여느 때라면 아빠는 지금쯤 로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것이다. 로라가 아빠를 따라 차고까지 함께 가서 아빠의 차가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자동차 소리를 듣고 서 있으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아빠는 오늘 작별인사도 없이 출근하려고 했다.

로라의 엄마가 문까지 아빠를 배웅했다. “그럼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내부 연소 같은 거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동시에 같은 건축 재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마을에 있는 집들은 거의 같은 때 지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화재가 동시에 발생했는지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해.”

“하나님 말씀사.” 브룩부인은 두려운 목소리로 반쯤 웃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집도 곧 불길에 휩싸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밤 즈음.”

“모든 위험이 다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여보.” 그는 그녀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한 후 문을 닫았다. 아빠는 자동차에 다가가자 소리쳤다. “로라야. 다녀올게, 안녕, 샘.”

“글쎄,” 로라의 엄마가 말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나저나 마을에 가서 뭐 도울 일이 없나 살펴봐야겠다. 불이 나고서 집을 치우려면 정말 기분이 축 처질 것 같아. 저번에 부엌에서 감자 칩 만드는 팬을 태워 먹었는데,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팬처럼 새카맣게 벽이랑 천정에서 그 검댕을 도저히 벗겨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 너희 둘은 모두 집에 있어도 괜찮겠지?”

엄마는 로라에게 다가가서 팔로 어깨를 두르며 옆에 앉았다. “로라, 로라, 너를 어찌면 좋니? 하지만 로라야 아빠가 그렇게 가셨다고 너무 화내선 안 돼. 알았

지? 아가야.” 엄마는 뺨을 맞대고 로라를 안았다. “언젠가 네 마음의 눈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단지 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 엄마는 샘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샘은 난처한 느낌이 들었다. 샘의 엄마는 그를 한 번도 그렇게 앓아 준 적이 없었다.

“샘, 로라를 잘 돌봐줘. 로라는 아주 소중한.”

“자, 우리는 뭘 하지?” 로라의 엄마가 집을 나서자 샘이 물었다.

로라는 두 손을 테이블에 대 누르고는, 엄지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로라는 테이블 어디가 움푹 패고, 니스 칠이 벗겨져 거칠 거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로라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닫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 샘은 로라가 그럴 때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전거나 타러가야겠어,” 샘이 말했다. “그냥 이 주변만 돌게. 요샌 통 자전거를 타보지 못했거든.”

로라는 계속 엄지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문질렀다.

“자전거를 타보고 싶으면, 말해. 내가 밀어 줄게.”

“알았어!” 그는 로라와 마주 앉았다. 샘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 테이블 문지르는 동작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샘은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잡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로라의 눈은 그녀의 기분을 알려줄 어떤 단서도 없었다. 샘은, 단지 그녀가 정말 실망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퀴니랑 산책 가고 싶어.” 로라가 대답했다.

“알았어!” 샘이 말했다. “좋아! 그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지만 나도 같이 가야해.”

“아니! 넌 오지 마!” 로라가 말했다. “난 퀴니랑 산책을 다녀도 된다고 허락받았다고.”

샘은 한 숨을 쉬었다. 로라 목소리에서 그녀가 여전히 화가 나있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샘은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어디로 산책을 갈 건데?”

“당연히 언덕 위로 가야지. 가서 그 남자들과 야생마들을 찾아야 하니까.”



4

낙아채기

로라는 샘이 창고의 문을 열고 자전거를 끌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서야 퀴니와 정원으로 나갔다. 로라는 화도 나고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샘은 로라의 눈이 되어주었고,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다. 샘은 로라에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고, 로라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샘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둘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샘은 이제껏 로라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로라는 이제 혼자가 되었다. 로라는 무릎을 꿇고 앉아 퀴니를 다독거리며 샘을 알기 오래 전, 눈이 완전히 멀기 전에, 자신의 어린 눈으로 흐릿하게 사물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불빛이 혼란스럽게 나풀거리다가 깜빡거리던 그 때에는, 로라는 모든 것이 너무 무서워 밤마다 곧잘 울곤 했

다.

그때 당시 로라는 자신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볼 수 있는 로라로, 다른 하나는 볼 수 없는 로라로 구분했다. 이 두 로라는 서로 불빛, 그늘 아래서 속삭이 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하나를 로라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를 한밤중, 미드나이트이라고 불렀지만, 누가 진짜 자기 자신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아빠는 미드나이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로라의 부모는 두 손을 눈앞에 펼치고서 앉아서 혼자 말을 하는 꼬맹이 딸을 지켜보곤 하면서,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로라는 보고 있는 게 아닌지 궁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로라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가, 걱정과 근심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로라는 눈을 다쳤고, 의사가 로라의 눈에 비춘 빛에 눈이 부셔했다. 엄마는 로라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거울 앞에 세웠다.

“잘 봐둬,” 엄마가 말했다. “이게 너의 얼굴이야. 꼭 기억해 둬야해.”

로라는 그때 보았던 얼굴을 잘 기억해 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눈동자와 머리카락이 흐릿한 색깔들이 소용돌이쳤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로라는 거울로 손을 뻗었고, 거울 안의 아이도 로라에게 손을 뻗었다. “미드나이트!” 로라는 웃었고, 엄마는 로라의 머리를 자기의 머리께로 당겨 포근하게 안으면서 로라를 조심스럽고 애잔하게 달랬다. “로라야, 네가 바로 밤의 아이란다.” 엄마는 로라에게 속삭였다. “이제, 곧, 너는 캄캄하고 캄캄한 밤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거야.” 엄마가 로라를 안고 몸을 양쪽으로 살며시 흔들 때, 로라는 자기의 얼굴에 반사되는 희미한 불빛과 부드러운 색깔의 조각들이 움직이는 것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 미소는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돌아왔다. 그날 밤 로라가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미드나이트를 보며 낄낄댔다. “난 너를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둘은 로라의 얼굴에서 유령처럼 깜빡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속삭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빛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눈먼 그림자의 나라는 위안이 되었다. 그 나라에선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섭게 만들던 눈부신 빛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 부분이 서서히 자취를 감춘 것이다.

퀴니가 쿵쿵거리자, 로라가 멈춰 섰다.

“미드나이트! 네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정원에 있었던 게 뭐야? 내 대신에 봐줄래?” 로라는 캄캄한 터널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풀잎의 작은 흔들림이나 그녀의 뺨은 손위에서 부드러운 숨결과 달콤한 바람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동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네 모습을 보여줘!”

바람이, 그녀 주위에서 나풀나풀 흔들리다가 다시 고요해졌다. 퀴니는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한 채, 참을성 없이 로라를 끌어대자, 로라는 등 뒤로 문이 광탄하며 걸쇠를 걸어 잠그는 기분이 들었지만, 별 수 없이 퀴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샘은 정원 밖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와 로라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려고 서있었다. 샘은 마을로 달려가 팀과 이안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하지만 샘은 로라가 퀴니와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다.

“당연히, 갈수 있지!” 샘은 혼잣말을 했다. “그게 안내견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 샘은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밟았다. “근데, 퀴니는 안내견이 아니잖아.” 샘은 다시 생각난 듯이 말했다. “퀴니는 평범한 래브라도잖아. 로라가 전에 18살이 되어야 안내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 퀴니는 안내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로라 곁에서 떠나지 않겠지만,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

하지만 로라와 퀴니는 종종 집 뒤편에 있는 오솔길을 함께 산책했다. 샘은 둘을 본적이 있었다. 로라와 퀴니는 집 뒤의 길 구석구석을 모두 알고 있을 거다.

샘은 도로 끝까지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멈춰 섰다.

“근데, 로라는 그전에 그렇게 먼 데까지 가 본적이 없는데. 동산 위에는, 돌맹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길은 미끄러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찌지? 정말 야생마들이 있더라도 하면 큰일인데!”

샘은 자전거를 돌려 로라 집으로 돌아와서 핵 방향을 틀었다. 샘은 그 야생마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샘이 마을로 불이 난 것을 알리러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을 때, 말을 못보고 지나치기라도 한 걸까? 그는 한 숨을 쉬었다. 로라는 정말 이상한 아이였다. 샘은 누구보다 로라를 아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샘은 지금 로라가 긴 머리를 날리면서 언덕꼭대기로 비탈기길을 올라가다가 둥근 바위위에 팔을 올려놓고 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샘은 쿨니가 하얀 꼬리를 흔들면서 움직이자고 로라를 바라보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로라는 앞으로 한 걸음 내 딛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니면 그녀는 넘어졌는지 모른다. 그 건 구분하기 힘들었다.

“그녀를 잘 돌봐줘” 로라의 엄마가 말했었다. “그녀는 소중한해”

샘은 로라의 집 쪽으로 자전거를 전속력으로 타고 가서 차고에 철커덩 던져 놓고 그녀를 따라 언덕으로 뛰어갔다.

웨이파인더는 언덕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올드 우먼은 그에게로 다가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아직 어둠이 내리지 않았나?” 그녀가 물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올드 우먼. 태양은 하늘에 반쯤 와있습니다”

올드 우먼이 그의 옆에 웅크렸다. “신비함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웨이파인더, 인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잘 살피시오. 나에게 그것들에 대해 말해주시오”

“인간족 짐승과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라?” 그녀는 이 사이로 빨아들였다. “나에게 그림말을 주시오.”

“그 애는 길고 밝은 머리와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어둠을 보는 것처럼 천천히 걷습니다.”

올드 우먼은 그녀의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계속 하시오.”

웨이파인더는 다시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저 아래서 남자아이가 그녀를 따라옵니다.”

슬로가 숨을 헐떡이면서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인간족이 와요, 올드 우먼” 슬로는 가쁜 숨을 내쉬었다. “몸을 숨겨요”

올드 우먼은 일어서며 그녀의 머리를 가로저었다. “할 수 있으면 남자아이로부터 숨으시오. 그리고 인간족 짐승. 그러나 저 여자아이에게는 신비함이 있소, 확실하오. 그애는 우리를 알고 있소. 우리가 월더니스로 못 가게 막는 애가 바로 그 애요. 그리고 내 스펬혼.”

로라는 언덕위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와 퀴니는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올라가곤 했었다. 그 길은 산책하기에 적당했는데, 대부분의 길이 양옆에 나무들이 늘어선 정돈된 길이었고, 그녀는 나뭇잎들이 흔들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가 얼마만큼 멀리 왔는지 알고 싶으면 손을 뻗어서 나무 동지를 만졌다. 그러나 나무길이 끝나면 항상 거친 바람이 그녀에게 불었다. 로라는 그곳의 바람이 싫었고, 울퉁불퉁한 익숙한 둥근 바위가 있는 그 꼭대기에 닿기 전까지는 손으로 만질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로라는 언덕 꼭대기까지 천천히 올라가 큰 바윗돌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골랐다. 바람은 차갑고 매섭게 불었다. 퀴니는 로라 옆에 암전히 앉아 있다가, 그녀가 한 걸음 옮기자마자, 일어나서 로라를 따라갔다. 몇 걸음 후에 로라는 걸음을 멈추고 꿇어 앉아 말발굽이 여기저기 나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서서 걷다가 다시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며 말발굽을 살폈다. 마침내 말이 부드러운 땅바닥에 낸 자국들을 찾아냈다. 로라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생각에 잠겼다. 퀴니는 그녀의 곁에 누워, 귀를 종긋 세우고,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로라는 나무를 태우는 달콤 씩씩한 냄새를 맡았다. 숨을 조용히 내쉬자, 처음에는 너무 희미해서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말발굽소리와 말이 콧김을 내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명랑하고 쾌활하게 속삭이는 남자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통나무 같은 것을 끄는 소리도 났다. 너무 희미해서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네발 달린 무엇인가 그녀에게 살금 살금 기어오는 것을 들었다. 산 짐승인 것 같았다. 그 동물이 로라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오자 털이 로라의 피부에 닿아 간질거렸다. 로라는 올드 우먼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맡았을 수 있었다.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로 몸을 숙이자, 머리 카락이 냄새를 풍기면서 흘러내렸다. 로라는 올드 우먼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의 눈으로 깊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로라!”

그 희미한 소리와 이상한 냄새가 사라졌다.

“로라! 괜찮아?” 샘은 그녀에게로 뛰어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퀴니는 자

리에서 벌떡 일어나 둘 사이에 끼어 앉아, 로라와 샘을 번갈아가며 훑었다.

“너와 함께 있기로 했어. 계속 찾을 거니?”

“그럴 거 없어, 샘.” 로라는 일어서서 퀴니가 앞서 가도록 끌었다. “그럴 필요 없어. 다 가버렸어.”

올드 우먼과 사이드맨은 로라와 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언덕 위 큰 바위에서 기다렸다.

“저 여자아이는 마음의 눈을 가졌어.” 올드 우먼이 말했다.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어.”

“하지만 사실 우리를 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드맨이 그녀에게 말했다. “데리고 다니던 짐승이 우리 냄새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 사내아이가 어떤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아이는 우리를 알고 있어. 웨이파인더! 달이 뜨면 저 아이의 집을 찾아보게. 거기에 스펠혼이 숨어 있을 거야. 확실해. 만약 누군가 스펠혼을 보살피고 길들이고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저 여자아이 뿐이니까. 오늘 밤에는 반드시 스펠혼을 데리고 와야 해. 그래야 월더니스로 돌아가는 길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올드우먼은 나이의 무게를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기면서 허리를 구부렸다.

“스펠혼이 저 아이 곁을 절대 안 떠나려고 할 거야, 그럼 여자아이도 채어오시오.”

로라는 저녁 내내 안절부절 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붙일 수 없었다. 로라는 속으로 떨고 있었다. 결국 엄마가 로라에게 아무거나 하라고 말했다. 로라는 벽장에서 타자기를 꺼내들고 나와서, 샘이 퀴니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샘은 로라가 타자기에 뾰뾰한 갈색종이를 끼워 넣는 것을 보았다.

“뭐 할 건데?”

“타자 치려구,” 그녀가 말했다. “보면 몰라?”

“타자기처럼 안 생겨서,” 샘이 말했다. “자판이 거의 없잖아.”

“이건 퍼킨스야.”

“그래? 그럼 퍼 뒤시기 쳐봐.”

로라는 미소를 지으며, 키 몇 개를 치더니, 타자기에서 갈색 종이를 빼어 샘에게 주었다. 샘은 펀치자국으로 작게 도드라져 있는 구멍들을 손가락으로 살펴보았다.



“이건 브레일 점자 아냐?” 샘이 물었다. “퍼 뒤시기랑 똑 같네. 어떻게 하는 건데?”

로라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그녀는 별로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무슨 뜻인데?” 샘이 물었다.

“생각해봐.”

샘은 점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었다. 샘은 연필을 가져다 점자들을 종이 위에 그렸다.

“이것은 두 단어야. 둘 다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

“훌륭한데,” 로라가 말했다. “너 숫자도 셀 수 있구나.”

“놀리지 마,” 샘이 말했다. “우리가 쓰는 글자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잖아. 첫 번째 단어에서 두자는 같은 글자야. 둘 다 점 하나야.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계속해봐.” 로라가 말했다. “또 닮은 글자는 없어?”

“있지. 두 번째 단어에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같은 글자야. 점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말이야. 꼭 삼각형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 으음..... 더 있어. 그리고 첫 번째 단어 네 번째 글자랑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글자랑 같네.” 샘은 점자를 손가락으로 다시 한 번 더듬어 보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난 행복.” 샘이 마침내 말했다.

로라는 흥미를 잃었는지 엄마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연속으로 두드리고 앉아 있었다.

“로라 브룩!” 엄마가 소리쳤다. “그만 두라고 했지? 대체 오늘밤 왜 그러는 거

니?”

로라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버렸다. 아래층에서 샘이 타자기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로라는 창문을 열었다. 정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은 긴장감이 퍼져있었다.

“아직 달이 뜨지 않았나?” 올드 우먼이 물었다.

사이드맨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곧 뜰 겁니다,” 사이드맨이 말했다. “새들이 잠자리에 들었고, 부엉이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아래 인간들 집에선 오렌지 색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집은? 찾았나?”

“네, 올드 우먼. 웨이파인더가 냄새로 찾아냈습니다. 꽃들이 무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스펬혼이 있을 거요.” 올드 우먼은 만족한 듯이 크게 웃었다. 두 손을 비비자 손가락들이 딱딱 소리를 냈다. “거기가 그의 숨는 구멍이구만, 확실해.”

그날 밤 로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들이 이층으로 올라와 방으로 가서 불을 끄는 소리를 듣자마자, 침대에서 빠져나와 자켓을 입고 신을 신었다. 로라는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주방에서 퀴니가 그녀를 알아채고 고개를 들자, 로라는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퀴니를 안았다. 퀴니가 로라의 목과 머리에 고개를 파묻도록 내버려두었다. “네가 제일 좋은 친구야, 내 베스트 프렌드, 퀴니”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 퀴니는 킁킁거리며 로라의 귀를 핥았다. 로라는 웃으면서 퀴니를 바구니에 내려놓았다.

“따라오지 마. 착하지!” 로라가 속삭였다. “나 혼자서 갈게.” 로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슬펐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로라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풀이 집과 차고 사이에서 한숨짓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불려, 쓰레기통을 활꺾으며 날아갔다. 로라는 콘크리트 계단에서 잔디 위로 걸음을 옮기자, 발아래에 밟히는 부드러운 잔디를 느낄 수 있었다. 로라는 손을 뻗어 사과나무의

마디가 많은 껍질을 만졌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무로 옮겨가며 자기가 만든 작은 정원으로 나아갔다. 정원에서는 뒤집은 흙의 신선한 냄새와 오래된 낙엽 냄새가 났다. 바람이 로라의 얼굴을 차갑게 때렸다. 로라는 옷깃을 세우고 손을 주머니 속 깊이 찔러 넣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 향기가 먼저 흘러왔다. 그녀가 기억하던 대로 깊고 달콤하고 향긋했다. 로라는 꼼짝없이 서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나뭇가지가 밟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잔디를 스치는 소리와 땅이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 조용해졌다. 정원 안에 그녀 가까이 뭔가 경계하며 고요하게 서있는 동물의 존재를 느꼈다.

“이리와,” 로라가 말했다.

그 동물은 발굽을 불안한 듯 들어 올리더니 다시 조용히 서있었다. 로라는 긴장하면서 앞으로 팔을 뻗었다. 로라는 그 동물이 겁을 먹을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비단처럼 부드러운 털에 닿았다. 로라는 천천히 손을 떼고, 숨을 조금씩 내 쉬면서 조용히 서있었다. 그 동물이 바로 코앞에 서있었다.

들, 셋씩 짝지어, 여우처럼 교묘하게, 와일드 원들은 숨을 죽이며 로라의 집을 향해 기어갔다. 사이드맨은 올드 우먼을 부축하며, 앞장서 움직였다. 언덕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자, 와일드 원들은 마치 기다란 등을 가진 짐승처럼 네발로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와일드 우먼들이 차례로 조용히 말들을 이끌며 무리 뒤를 따랐다. 그림자 같은 침묵 속에서, 와일드 원들은 어두운 정원으로 숨어들어갔다.

“스펠혼이 저기 있군.” 올드 우먼이 조용히 속삭였다. “저 아이가 스펠혼을 잘 길들이게 해.”

로라는 한손을 위로 뻗으며 웅크리고 앉았다. “쉬어!”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아, 이리와.”

그 동물은 발을 들어 조심스럽게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로라는 손끝에 부드러운 털의 감촉을 느꼈다. 로라는 용기를 내어 동물의 따뜻한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부드러운 소리로 동물을 달랬다. 그 동물은 어린 망아지처럼 잔디에 앉아서, 로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스펠혼을 잡아라.” 올드 우먼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로라의 시야가 밝아졌다. 로라는 잘 익은 자두처럼 검푸른 정원과

짙은 초록 나뭇잎들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별 무리들이 환하게 빛나는 짙은 감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돌려 얼음처럼 파랗게 빛나는 두 눈 사이에 뽀족한 뿔을 가진, 은색으로 빛나는 하얀 동물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진 야수들이 어두운 그늘에서 그녀에게 뛰어오는 것을 보았다.

쭈글쭈글한 모습에, 하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가장 작은 몸집의 늙은 여자 야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그 동물의 목을 두 팔로 감아 안았다. 그 동물은 로라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고개를 비틀며 버둥거렸다.

“우리를 월더니스로 안내해라, 스펬혼” 올드 우먼이 웃었다. “고향이 너무 그림다. 이 늙은 친구야” 로라는 그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 앞으로 나섰다. 올드 우먼의 긴 손가락이 그녀의 팔을 꼭 붙잡는 것을 로라는 느꼈다. “어서 타!”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소리쳤다. “스펠혼은 네가 필요해!”

잠에서 덜 깬 샘이 정원으로 달려오면서 바로 이 광경을 보았다. 회색 갈기를 가진 말무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긴 머리 생물들을 태우고 있었다. 샘은 유니콘이 사과나무 옆의 낮은 벽을 뛰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위로 하얀 머리를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기쁨에 차서 웃고 있는 나이든 여자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로라가 그녀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로라! 로라! 돌아와!” 샘은 창고로 뛰어가 자전거를 꺼내 탔다. 그리고 따각 거리는 말 사이를 누비면서 필사적으로 로라를 따라 언덕으로 달려갔다. 자전거의 바퀴가 길게 자라난 풀에 엉켰다. 와일드 원들의 웃음소리와 말 발굽소리가 샘의 귀에 울렸다.

갑자기 모두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무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언덕은 다시 고요한 잠에 빠졌다. 로라, 와일드 원들 그리고 유니콘 모두 사라져버렸다.



5

와일드 원들과의 동행

그러나 로라는 샘을 보지 못했다. 그녀 뒤로는 캄캄한 어둠만 깔려 있었다. 와일드 원들이 언덕으로 돌진 할 때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해도 허공엔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녀 앞에 펼쳐진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달은 하얀 웅덩이처럼 빛났다.

올드 우먼은 로라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무릎은 끌어올리고 등은 굽히고 마디가 굵은 손으로 유니콘의 뿔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마치 알을 품고 있는 어미닭처럼 킁킁거리며 웃었다. 유니콘은 곧 무거운 말들을 앞서서 큰 걸음으로 세차게 나아갔다. 올드 우먼의 거친 머리카락이 로라의 얼굴을 때리고 눈을 찌르며 입을 쳐서, 로라는 그 머리카락들을 연신 뺄어내야했다. 로라의 팔은 올드 우먼에게 착 달라붙어 있느라 아팠다. 만약 손을 놓는다면 말이 달려오는 길 위로 굴러 떨어질 거라는 것을 로라는 알고 있었다. 유니콘은 물살을 가르는 빠른 배처럼 쉽 없이 달렸다.

로라는 차가운 공기에 숨이 막혔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라가 소리쳤다.

“고향으로.” 올드 우먼은 웃음을 크게 터트렸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고향으로 가게 되었어.”

“그게 어딘데요?” 로라가 물었다.

“오래된 집, 와일드 원들의 태고의 땅.” 올드 우먼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스펬혼이 더 빨리 달리도록 재촉했다. “스펠혼, 어서 가자.”

로라는 그것에 만족해야만했다. 바람이 파도처럼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로라는 올드 우먼의 굽은 등에 머리를 파묻고 매달려 있는데 온 정신을 쏟았다.

일행은 넓은 황무지를 깊숙이 가르고, 물거품 내며 흐르다가 다시 땅으로 스며드는 개울가에 다다랐다. 올드 우먼이 혀 차는 소리를 내자, 스펬혼은 속도를 줄이고 춤추듯이 멈춰 섰다. 웨이파인더는 몸을 기울여 로라가 스펬혼 등에서 내려올 수 있게 도왔다. 로라는 달리던 속도 때문에 현기증이 났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도 어려웠다. 그녀는 추위에 시달리고 힘이 빠져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올드 우먼이 내려오자마자 스펬혼은 로라에게로 다가가서, 머리로 그녀를 슬쩍 밀고 보드라운 턱 수염가닥으로 로라 뺨을 간질였다. 로라는 스펬혼의 콧구멍에서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초원을 달려오던 말들은 주인들을 내려놓는 것이 기뻐서 다리를 공중에 차며 개울가에 멈췄다. 말들은 오랜 갈증으로 목이 타 개울에 코를 박고 이빨 사이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마셨다. 와일드 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로라에게로 다가왔다. 와일드 원들은 로라를 둘러싸고 아이들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로라가 겨우 이해 할 수 있는 말을 중얼거렸다. 로라를 더 잘 살펴보기 위해 냄새를 맡아 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그녀의 얼굴 곁으로 살금살금 네 발로 기어온 와일드 원들도 있었다. 나이든 와일드 맨이 로라 앞에 서서 노려보았다.

“올드 우먼, 저 아이를 채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늙은 개처럼 우르렁 거렸다. “저 아이는 절대로 와일드 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올드 우먼은 그의 한 손을 잡고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저 아이는 이미 와일드 원이야. 내가 말했듯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보게나, 유니콘이 저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말아야.”

로라는 외롭고 무서웠다. 그녀는 손을 뺀어 유니콘의 코를 쓰다듬었다.

“유니콘, 내게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로라가 속삭였다. “넌 나를 속였어. 넌 내가 잡혀올 줄 알고 있었잖아.”

유니콘은 코 주변의 작은 털을 떨며 히힝 울었다.

“저 아이 좀 보세요.” 그 노인은 불만에 섞인 소리를 내었다. “저 아이는 스펠 혼을 꾸짖기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와일드 원들은 주먹으로 서로를 가볍게 치면서 노란 이가 드러나게 크게 웃고 난 후, 개울가로 돌아서서 몸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여 물을 마셨다.

어린 와일드 원이 로라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팔꿈치로 그녀를 슬쩍 짚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애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월더니스에는 볼거리가 많아.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 로라가 비웃는 투로 말했다. 팔과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기분은 조금 나아졌다. 로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와일드 보이를 보았다. 그 녀석은 마구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만, 얼굴은 다 정해 보였다. 그 애 붙은 미소를 지을 때 마다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이름 있어?” 로라가 그에게 물었다.

“생명이름은 슬로야.” 그 애가 대답했다. 슬로는 뒤를 돌아보며 추워서 서로의 손을 비비고 있는 와일드 원 둘을 가리켰다. “저 분들을 눈에 담아! 수색꾼 웨이 파인더와 샘물, 워터야, 난 저 두 분의 돌봄아이야. 두 분은 내게 엄마아빠사랑을 주시지. 너도 마찬가지로, 걸차일드! 네가 원하기만 하면 두 분이 사랑을 주실 거야.”

“내 이름은 걸차일드가 아니고 로라야.”

슬로는 꼭 다문 이가 보이게 입술을 뒤로 당겨서 다른 와일드 원들이 하듯이 크게 웃었다. “로라라구! 생명이름치고는 웃긴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저 호통 치는 나이든 남자는 누구니?” 로라가 물었다. 나이든 와일드 맨은 개울가에 쭈그리고 앉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다. 그가 얼굴을 찌푸리며 슬로를 향해 돌아보았을 때, 물방울이 헝클어진 수염을 따라 떨어졌다.

“나는 저 노인을 슈리블스킨이라고 불러, 쭈그리 가족.” 슬로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내 머리구멍에만 숨어있어. 그는 요즘에 많이 툭툭거리며 다니거

든. 그의 진짜 와일드 윈 이름은 사이드맨이야. 올드 우먼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면 옆에 항상 있어. 올드 우먼의 사랑친구이지.”

웨이파인더가 슬로를 불러 말들을 다시 모으는 것을 도우라고 하자, 로라는 슬로가 혀를 차며 재빨리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곧 잠 잘 시간이야. 이런 게으름뱅이들.” 웨이파인더가 말에게 소리쳤다.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숨을 구멍을 찾을 때까지.”

“배채우려고 곧 멈춰야지” 올드 우먼이 말했다. 그녀는 스펀지를 끌어당겨 등 뒤에 올라타고, 로라에게 올라타라고 고갯짓을 했다. “일단 지금은 움직여야 해.”

로라가 등에 제대로 올라앉기도 전에, 유니콘은 열은 실 가락처럼 갈기와 꼬리를 날리면서 앞으로 달려갔다. 그 뒤로 와일드 윈들은 그들의 말이 앞으로 계속 달리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다. 말발굽소리가 땅 속 저 깊이 묻혀있는 속이 텅 빈 금속 막대기를 치는 것처럼 바위 사이에서 메아리치면서, 돌맹이로 뒤덮인 땅을 울리고 있었다. 사이드맨은 말갈기와 색과 굵기가 같은 그의 머리카락이 엉킬 정도로 말 등위에 깊이 몸을 숙여 와일드 윈들을 따르고 있었다. 사이드맨은 말이 더 빨리 달리도록 재촉하며 고함을 쳤다. 올드 우먼은 맨발 뒤꿈치로 유니콘의 옆구리를 차면서 킁킁거렸다.

로라는 사이드맨이 옆으로 따라 붙자, 그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슬로는 로라가 고개를 돌린 쪽으로 말을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때 느끼는 행복감이 번져있었다.

“걱정마, 걸차일드.” 슬로가 말했다. “곧 배채울시간이야. 그 후에는 눈붙일시간이고. 그리고 나면 유니콘들의 물고뜯는싸움이 있을 거야. 조심해야해!”



6

결차일드와 올드 본즈

샘은 자전거를 언덕 아래로 끌며 내려왔다. 로라의 엄마와 아빠는 집 밖으로 뛰어 나와, 샘에게 들어오라고 하면서 걱정스럽게 불렀다.

“샘! 이리 돌아와!” 브룩씨가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대체?”

샘은 울먹였다. “그들이 로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로라는 방에서 자고 있단다.” 브룩씨가 말했다. “너도 얼른 자야지, 들어가자.”

“하지만 로라는 방에 없어요!” 샘이 우겼다. 브룩씨는 샘의 자전거를 받아서 문 쪽으로 거의 들다시피 끌고 갔다. 샘은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 걸었다. “정말이에요, 브룩아저씨. 로라가 납치된 것 같아요.”

“납치라고!” 브룩씨는 샘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고는 샘의 머리를 헹글었다.

“말을 탄 사람들이었어요. 거친 털을 가진 말이었는데. 그 사람들, 머리카락은 길고....., 우리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모두 소리를 고래고래 지

르고..... 그중에는 몸집이 작은 늙은 것도 있었는데..... 로라를 잡아채서는..... 그것은 말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어, 그게 말이죠, 유니콘 같았는데.”

샘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브룩씨를 올려다보며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러나 똥똥 떠다니다 어지럽게 섞여 끓어오르는 거품 같은 샘의 말은, 놀라고 찌푸린 브룩씨의 얼굴에서 되돌아 나와 아리송한 방울처럼 터졌다.

“샘, 진정하렴.” 브룩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샘은 브룩씨를 따라 정원으로 들어서서 그가 자전거를 창고에 집어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샘은 충격으로 감각을 잃었고, 힘껏 페달을 밟느라 다리는 아프고 추위와 두려움에 몸은 떨렸다. 로라의 엄마는 정원으로 나와 샘을 감싸 안았다.

“가여운 샘.”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화재 때문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구나.”

“전..... 그자들을.....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 샘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샘. 이제 괜찮아. 말들은 없어. 로라는 잘 자고 있단다. 어서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자꾸나. 얼른!”

로라의 엄마는 두꺼운 코트를 샘의 어깨에 둘러주고 샘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샘, 잘 들어봐. 로라는 괴상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그 애는 이야기를 꾸며 내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자기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환상의 세계에 산단다. 괜찮아. 보기에 따라서는 공평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로라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믿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그것이 모두 그녀의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 로라에게 확실하게 말해 줘야해, 샘. 네가 밖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네 상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야. 단지 그게 다야. 상상한 속의 것들을 두려워해선 안 되겠지?”

샘은 현기증이 났다. 아직도 그의 귓가에는 육중한 말들이 언덕으로 애써 나아갈 때 나던 말발굽소리가 천둥치듯 울리고 있었다. 샘은 그들이 자기를 앞질러 물러가며 휘저었던 차가운 바람과 어떻게 그 바람이 자전거를 휘청거리게 했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함치고 웃어대는 거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샘은 피곤하고 목이 잠겨 기어들어가는 목소

리로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기보다 어서 침대에 놓고 싶었다. “정원에서, 제가 그것들을 봤다니깐요!”

“샘.” 로라 엄마가 말했다. “우리 정원엔 작은 잔디밭과 사과나무 몇 그루가 있어. 그리고 계단 몇 개와 조그만 통로만 있어. 어떻게 그 많은 말들이 정원에 다 들어왔겠니?”

“하지만 정말로 그랬어요.”

로라 엄마는 전등을 끄고, 샘에게 이층으로 따라 오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제 들어오렴, 샘.”

“하지만 로라를 찾아야 한대구요.” 샘은 좌절감으로 터져 나오는 눈물을 멈추려고 애썼다.

“그래 알았다.” 로라 엄마가 말했다. “그럼 지금 로라가 어떤지 보러가자. 방으로 가서 침대에서 내내 잘 자고 있는 걸 보여줄게. 이리오렴.”

와일드 원들이 말을 멈췄을 때는 안개가 낀 차가운 새벽이었다. 로라는 달리느라 위아래로 흔들리는 유니콘의 등 위에서 거의 잠에 빠져있었다. 로라는 누군가 자기를 말에서 내려 울퉁불퉁한 땅위를 안고 가는 것을 느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잠에서 깨었을 때 기억나는 것은 모닥불이 곁에서 타고 있었고, 워터라는 와일드 원이 걱정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좋은 눈불이기를 했구나.” 워터가 웃으며 말했다.

로라는 당황스럽고 불안해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로라는 자기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샘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깨우는 꿈을 꾸었다. 놀란 샘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자신을 불렀고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사라지는 그들을 잡으려고 손을 있는 대로 뻗는 꿈이란 것만 기억이 났다.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워터는 로라의 뺨을 만지면서 암탉이 꼬꼬 우는 듯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다. “눈에 빗방울이 맺혔구나.” 워터가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걸차일드.” 워터는 목을 가르랑거리며 위로의 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유니콘은 돌투성이 길을 따라 염소가 걸어오듯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들의 발치에서 풀을 뜯었다. 로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유니콘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주위에 퍼진

형형색색의 빛에 눈이 부시고 당황스러웠다. 로라가 정원에서 처음 본 스펬혼은 달빛처럼 은색으로 빛났다. 지금의 스펬혼은 모닥불에서 퍼덕거리며 솟구치는 불꽃 같이 빨간 금빛으로 타오른 듯 했다. 로라가 자기 주변을 둘러보자 불꽃 속에서 반짝거리는 섬광처럼 탁탁거리며 타오르는 개암나무열매 같은 와일드 원들의 눈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노랗게 빛났다. 모닥불이 비칠 때마다 주름에서 광채가 나는 핏빛 빨간색의 망토나 흙빛 갈색 망토를 걸친 와일드 원도 있었다. 머리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불꽃처럼 흔들렸다.

“여기야, 걸차일드!” 슬로가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로라에게 다가왔다. “네 배채울거 여기 있어.” 슬로가 말했다. “뜨거울 때 먹어.”

로라는 고마워하며 엄지와 검지로 조심스럽게 그릇의 윗부분을 잡으며 받았다. 쉰 불에서 요리해서 돌 위에 올려두어서 인지 아주 뜨거웠다.

“이게 뭐야?” 로라가 물었다. 김이 그녀의 얼굴을 따듯하게 했다.

“머쉬.” 슬로가 대답했다. “그럭저럭 괜찮아.”

머쉬가 먹기에 적당할 정도로 조금 식자 로라는 그 것을 몇 모금 훌쩍였다. 머쉬는 귀리와 과일을 넣어 만든 죽 같았고 콧 집어 어떤 맛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체리, 바나나, 빵에 꿀과 우유를 섞은 맛이 났다.

머쉬는 맛이 있었고 따뜻해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로라는 워터랑 슬로처럼 게걸스럽게 머쉬를 먹고 나중에는 혀로 그릇을 핥기까지 했다. 잠시 후, 로라는 배가 불러 만족스런 숨을 내쉬며 그릇을 내려놓고 슬로와 워터가 웃으며 서로 토닥거리는 것을 보았다.

“배를 채우기엔 그럭저럭 괜찮은데.” 로라는 말하며 함께 웃었다.

슬로는 짹짜게 그릇을 치웠다. 워터는 모닥불가로 가서 몸을 웅크리더니 꾸벅 거렸다. 로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빛과 하늘과 나무의 놀라운 색채에 혼란스러웠다. 로라는 팔을 뻗어 넓게 펼친 후 두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펴 보았다. 로라는 손바닥에 그어진 작은 선들, 손가락 위에 난 보드라운 털들과 구부러진 반짝이는 손톱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로라는 세상이 다시 캄캄해지도록 손으로 눈을 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고, 그녀의 피부와 뼈 안에서 반짝이는 태양 빛이 나오기라도 하듯이, 손가락 사이로 뚫고 나오는 붉은 빛을 바라보았다. 로라는 환하게 웃으면서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고 그녀의 머리 위에선 나뭇잎들이 초록빛의 작은 태양처럼 팔랑거렸다.

로라는 산림을 벌채한 숲의 공터에 있는 것 같다는 것 빼고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날카롭게 갈라지는 소리와 뭔가를 치는 소리만 들렸다. 와일드 원들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모닥불에 집어넣었고 막대기로 덩불을 쳐내며 잠자기에 편하도록 움푹 팬 자리를 만들었다.

로라는 자기가 도망가려고 해도 공터 밖이 안전할지 궁금했다. 샘과 엄마가 나온 꿈이 좀처럼 잊어지지 않아 그녀를 불안하고 슬프게 했다. 그 공터에서 빠져나오면 혹시라도 집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차일드.” 마른 목소리가 자기의 생각을 깨자 로라는 올드 우먼이 모닥불 반대편에 앉아 그녀를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리로 와서 이 늙은 올드 본즈랑 이야기 좀 할까?”

“당신이랑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로라가 말했다. “전 당신이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어요.”

동시에, 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올드 우먼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곳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라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펀은 풀을 뜯고 있다가 머리를 들어 올리고는 로라를 따라갔다. 올드 우먼이 스펀에게 손을 뻗자, 스펀은 코로 그녀의 손바닥을 부드럽게 비벼댔다.

“너도 월더니스로 돌아가게 되어 좋은가보구나.”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말했다.

“월더니스가 어딘데요?” 로라가 물었다.

올드 우먼은 빙그레 웃었다. “그거 생각해볼만한 질문이구나.” 올드 우먼이 말했다. “월더니스라는 곳이 ‘어디가 그곳이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뭔데요?”

“월더니스는 아마 ‘언제가 그때냐?’라는게 더 어울려.”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월더니스지.”

“무슨 뜻이에요?”

올드 우먼은 길게 구부러진 손톱으로 머리를 긁었다. “월더니스는 시간이 시작되었던 순간이야. 월더니스는 새로운 세상이지. 오래 전엔 고요했었다. 너도 거기에 가면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거야. 알겠지.”

올드 우먼이 로라를 지켜보면서, 스펠혼이 로라 발 주변에 있는 신선한 풀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고 있는 것을 살피는 동안 로라는 올드 우먼의 말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렇게 좋은 곳이면.” 로라가 입을 열었다. “왜 거기에서 나오셨어요? 왜 우리 마을로 오셨는데요? 저는 왜 납치하신 건데요?”

올드 우먼은 두 손바닥을 마주쳤다. 그녀의 아몬드 같은 갈색 눈동자 속에서 불꽃이 나풀거렸다. “너무 많이 왜? 왜? 라는 구나.” 올드 우먼이 웃었다. “이유들을 다 알아내려면 머리상자 안 깊숙이 살펴야겠어!” 올드 우먼은 머리를 다시 긁적였다. “글쎄, 스펠혼이 너희 집에 찾아간 것이 첫 번째 ‘왜’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은데, 스펠혼은 그다음 ‘왜’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더구나. 스펠혼의 입에는 말상자 따윈 없잖아.”

올드 우먼은 또 킬킬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와일드 원들은 인간족 시간으로 오랫동안 방랑을 해왔단다. 우리는 인간족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마음슬픔을 주기도하지.” 올드 우먼이 말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침울해지는 것을 보았어. 지독한 냄새가 공기를 메우고 있어. 소란스런 소음이 우리 귓구멍을 긁어 대고 말이야. 인간족들은 모든 것들을 녹슬게 하고, 흠집 내고, 흉측한 쓰레기로 만들어버리지. 제대로 돌보는 게 하나도 없어. 참 슬픈 일이야. 그런데 인간족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단다.”

그녀는 머리를 가로저었고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무릎을 두 팔로 턱까지 끌어올려 앉았다.

“유니콘은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했다. 너도 밝은 눈을 갖게 되었지. 걸차일드. 그것의 너의 특별함이야.”

“유니콘이 오기 전까지 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로라가 말했다.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요.”

“유니콘의 신비로운 힘에 많이 감사해야 한다.”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말했다. “스펠혼에게 잘해줘. 그렇지 않으면 넌 다시 캄캄한 밤의 세계에 갇히게 될 테니까.” 올드 우먼은 로라를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땅의 색깔도, 꽃의 빛도, 반짝이는 하늘도 다 볼 수 있지?”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드 우먼은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가 말했다. “월더니스에 가면 여기저기 둘러 보거라. 거기에서는 모든 색들이 항상 새로 태어나는 색이야. 모든 색이 새로 태어나서 희미한 반짝임으로 가득해. 그러면 너의 마음도 점점 커져서 평하고 터질 것만 같을 거야. 곧 알게 될 거다.”

스펠혼이 둘에게 다가가서 둘 사이에 다리를 꿰고 앉자 올드 우먼은 스펬혼의 귀를 다정하게 간질였다. “스펠혼이 너를 찾아낸 거야, 걸차일드. 스펬혼은 네가 필요해. 명심해 두렴.”

“왜요?”

“아직은 말할 시기가 아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난 스펬혼이 나를 찾아냈던 그 날을 잊지 않고 있어.” 올드 우먼이 말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까?”

“네, 꼭 듣고 싶어요.” 로라가 대답했다.

와일드 원들이 일을 바빠 하는 동안 올드 우먼이 살랑거리는 불꽃만큼이나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해서, 오직 로라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에 와일드 워가 있었단다. 이걸 와일드 원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둬.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때 월더니스는 박쥐 떼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박쥐들이라고요?” 로라가 물었다. “어떻게 해를 끼쳤는데요?”

올드 우먼은 양 볼을 불룩하게 부풀렸다. “달박쥐, 문베트.” 그녀는 문베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팔을 넓게 벌렸다.

“거대한 문베트들이 날아와서 와일드 원들의 심장에 불행을 넣었다. 그리고 와일드 원들이 많이 죽었지. 우리 아빠엄마일족이 그때 마지막 잠에 들었어. 그리고 난 정말 슬펐어. 번쩍이는 문베트의 날개 빛 때문에 나에게 낮은 밤으로 변했어. 문베트는 내 눈밝음을 앗아갔지. 그때 스펬혼이 나를 찾아냈던 거야. 처음에 내가 스펬혼의 냄새를 맡고 그 녀석을 어루만지자 스펬혼은 다리를 꿰고 옆에 앉아 나를 등에 태웠어. 순간 내 눈은 다시 밝아졌어. 걸차일드, 바로 너처럼 말이야. 스펬혼은 나를 월더니스로 안전하게 데리고 왔고 난 그 녀석이 항상 내 곁을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어. 스펬혼이 너를 찾아 나서기 전까진 그랬지. 왜 그

했는지 모르지만, 녀석은 월더니스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그리곤 숨어버린 거야. 우리는 마음슬픔에 빠졌어. 내 눈은 다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영영 월더니스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때, 스펬혼이 너를 찾아낸 거란다.” 올드 우먼은 로라의 손등을 토닥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정말 나도 마음기쁨이 있구나. 걸차일드. 넌 신비로워. 그리고 그건 와일드 원들에게 좋은 징조야.”

올드 우먼은 갑자기 하품을 하더니 거친 숨을 길게 내뿔었다. “눈붙일시간이구나.” 그녀가 말했다. “와일드 원들이 풀숲을 잘 쳐서 네게 숨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거다. 이제 보슬비가 내려 모닥불이 곧 꺼지고 나면 황혼녘엔 한바탕 물고뜯는싸움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라가 물었다.

올드 우먼은 어깨를 움츠리며 으쓱해보였다. “나쁜 일, 좋은 일, 누가 알겠어?” 그녀가 대답했다. “내가 아는 거라곤 뿔 없는 것들이 우리를 곧 찾아낼 거라는 거지. 확실하게 말이다.”

“뿔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것들은 뿔이 없는 유니콘들이다. 옛날 옛날에 인간족들이 뿔을 훔쳐가 버렸어. 인간족들은 항상 마법 뿔의 신비로움을 원하지. 뿔을 빼앗긴 유니콘들은 길까지 잃게 돼버려. 뿔 없는 짐승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이곳에서 방황을 한단다. 이 배드우드에서 말이다. 이 사악한 숲, 배드우드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되는 거지. 월더니스가 여기까지는 힘을 쓰지 못해. 털끝만큼도.”

“그 물고뜯는싸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올드 우먼은 다시 두 볼을 불룩하게 했다. “그것들은 사악함을 마음구멍에 품고 있어.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이 짐승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우리도 월더니스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려는 것뿐이야. 스펬혼이 월더니스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물어뜯으며 싸울 거다.” 올드 우먼은 발긋한 부드러운 손바닥을 보이며 양손을 넓게 벌렸다. 그리고 두 손을 스펬혼의 눈 위에 올려놓았다. “힘을 모으기 위해 눈붙일시간이야.” 올드 우먼이 그에게 속삭였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이제 눈붙여라.”

“하지만 전 지금까지 잤는걸요.” 로라가 말을 시작했다. 올드 우먼은 하품을 한

번 더 하더니, 담요 같은 흰 머리를 그녀의 몸에 덮고는 고양이처럼 모서리로 웅크리고 누워, 요란하게 코를 골았다. 사이드맨은 그녀의 곁으로 네 발로 기어가서 옆에 누워 아직 밝은 해를 가리려고 주먹을 쥐어 눈구멍에 밀어 넣더니, 곧 잠에 빠져 드르렁 거리는 소리를 냈다.

로라는 일어섰다. 와일드 원들은 작은 관목 아래와 그녀의 주위에서 짐승들 같이 작은 털 꾸러미 모양으로 이리저리 누워 코를 골거나, 한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모닥불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쉬잇’하는 소리를 내었다. 말들은 기침을 하더니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꾸벅꾸벅 졸았다. 오직 유니콘만이 로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고요하게 서 있는 그의 몸에서 움직이는 곳은 두 눈 뿐 이었다. 로라의 머리 깊고 깊은 곳에서는 저 멀리 자기이름을 부르는 샘의 목소리가 들렸다.



7

문배트

샘은 자기 침실에서 창턱 깊숙이 무릎을 꿇고 앉아,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라의 엄마, 아빠는 옆방에서 언성을 높이며 로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 애 혼자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로라 아빠가 말했다. “나갔을 리가 없다고.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어.”

“제가 다 찾아 봤어요. 알잖아요?” 로라 엄마가 말했다. 브룩 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존, 로라는 집안에 없다니깐요!”

“그럼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샘은 브룩씨가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수잔, 정원 쪽을 살펴봐. 난 언덕 쪽으로 내려가 볼게. 로라는 그리 멀리가지는 않았을 거야. 샘에게 도와달라고 해.”

샘은 그냥 방안에서 나가지 않고 축축한 창문 유리에 머리만 기대고 있었다.

샘은 로라를 찾아 정원, 마을, 설령 마을너머 언덕을 뒤흔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라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그곳은 로라 부모님이 닿지 못하는 곳일 것이다.

“로라.” 샘이 너무 조용히 말해서 그 소리는 머리 안에 있는 생각 같았다. “제발, 돌아와.”

“걸차일드!”

슬로는 로라의 마음을 읽었다. 로라는 자고 있는 와일드 원들로부터 기어 나와 덩굴의 가시가 팔과 다리를 긁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숲을 달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자마자, 슬로는 날렵하게 일어나서 재빠른 사슴처럼 로라를 따라 번개 같이 달려갔다.

나뭇가지들이 로라를 둘러싸고 손가락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로라는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로라는 자기가 깨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방의 폭신한 침대에 누워서 가지수풀에 찢기며 비틀거리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헷갈렸다.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가 샘인지 슬로인지도 몰랐다. 로라는 더 빨리 달아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막막했다.

“걸차일드!” 슬로는 로라의 앞에 있는 오솔길로 뛰어들어, 무릎을 구부리고 두 팔을 벌려서 그녀가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지금은 방랑시간이 아니야.” 슬로가 로라에게 말했다. “한밤중에 물고뜯는싸움을 대비해서 눈붙일 시간이라구.”

“줄리지 않아.” 로라는 말하려고 애썼지만 너무 피곤하여 서 있는 것은 고사하고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었다. 로라는, 슬로가 자기를 깊이 잠에 빠져 코를 고는 와일드 원들에게로 데려가도록 내버려두었다. 슬로는 로라 마음속 생각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리며 서 있는 유니콘에게로 그녀를 곧장 데리고 갔다. 로라는 스펬혼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쏟아지는 잠으로 몸이 무거웠다. 유니콘은 로라에게 고개를 숙였다.

“스펠혼, 난 너랑 있을 수 없어.” 로라가 한숨지었다. 스펬혼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로라는 스펬혼의 부드러운 갈기를 쓰다듬었다. 로라의 눈꺼풀이 스

르르 감겼다. 그녀의 머리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스펀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옆구리에 기대게 되자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온 사방에서 와일드 원들이 하나씩 잠에서 깨며 코를 킁킁거리거나 입을 찹찹거리며, 마른 입술을 핥았다. 올드 우먼이 사이드맨을 발로 차 깨우자, 사이드맨은 모닥불 잿더미에 침을 뱉고는 음식담당 그루브우먼과 불지피기 플레인 파인더 쪽으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갔다.

“가서 촉촉한 열매들과 달콤한 너트 그리고 머쉬풀을 모아와라.” 사이드맨이 고함을 쳤다. “올드 본즈가 배채우기로 열매주스 베이크를 드시고 싶어 하신다.”

땅거미가 내려앉자, 불길의 다시 높이 탁탁 튀며 솟아올랐다. 와일드 원들은 잠을 푹 잤는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게걸스럽게 먹었다. 그들은 로라를 깨우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유니콘은 이 소동 속에서도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로라 옆에 꿰어 앉아있었다. 웨이파인더는 작은 가지를 휘고, 뿔뿔한 메꽃풀을 그 가지들 사이에 묶어 작은 하프 같은 악기를 만들었다. 그가 긴 손톱으로 현을 뜯자 부드러운 소리가 이야기 소리와 웃는 소리 사이로 잔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워터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로라는 눈을 뜨고 음악을 들으며 꿈쩍 않고 누워있었다. 올드 우먼이 조용히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내자, 슬로가 가만히 옆 걸음질로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여자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니?” 올드 우먼이 속삭였다.

슬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랄 일도 아니지.” 그녀가 말했다. 슬로야 잘 감시해, 안전하게 데리고 돌아가야 해.”

“그 애 다리는 녹초가 됐고, 눈꺼풀은 무거워졌던데요.” 그가 말했다.

올드 우먼은 슬로를 결눈질하며 말했다. “그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 애가 우리랑 같이 있으니 마음기쁨이 있지? 어?”

슬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마도 끄덕이는고개 아니면 가로젓는고개예요.” 슬로는 얼굴을 가린 손가락사이로 중얼거렸다.

올드 우먼은 주먹을 쥐고는 웨이파인더의 음악에 손가락 마디를 서로 비비며 장단을 맞췄다. “그 애가 네 눈밝음을 주었구나. 확실해.” 그녀가 킁킁거리며 웃었다. “내게 귀를 대어봐라 슬로야. 지금부터 한참 후에 그 여자아이가 네 평생

지기가 될 거다. 사이드맨과 올드 본처럼 말이야. 알아둬!”

슬로는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발을 앞뒤로 끄덕거렸다. 플라이트는 건너편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그들을 훑듯 보다가 올드 우먼이 그녀에게 아랫니와 입술을 내밀자 고개를 돌렸다.

“여자아이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소원이 있어.” 올드 우먼이 말했다. “하지만 그 애가 가버리면 유니콘은 그 애를 따라갈게다. 그러면 와일드 원들은 또 다시 길을 잃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야, 슬로야. 달이 오르면 그림자 안에서 울부짖는 늑대들이 기어 나오고 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크게 날 거야. 그때에도 그 애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안전하게 지켜!”

곧 주위가 어두워졌다. 로라는 일어나서 유니콘에게서 살짝 떨어져 앉았다. 스펬혼은 로라를 지켜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로라가 보기에는 와이드 원들이 무리를 지어 누워 깊은 숨을 쉬며 잠에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로라는 잠이 확 깬고 날이 밝기 전에 이 숲을 빠져 나갈 힘을 충전했다고 생각했다. 로라는 까치발을 하고 모닥불 불빛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다가 발아래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깜짝 놀랐다.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나무꼭대기까지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높은 나뭇가지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꼭 흰 활대처럼 보여서 로라는 나무들이 모두 그녀의 움직임에 쫓으며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숲 깊은 곳 어디에선가 듣기만 해도 오싹한 울부짖는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여전히 유니콘은 로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로라는 스펬혼과 있어야 할지, 아니면 집을 향해 도망가야 할지 망설였다.

로라는 앞으로 나아갔다. 작은 짐승이 덩불숲에서 구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부엉이는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가지에 매달려 있던 혹 같은 것들이 가죽날개를 조용히 움직였다. 잠시 후 로라는 질질 끄는 가벼운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엇인가 손을 뻗어 로라의 팔을 건드렸다.

“누구야?” 로라가 놀라서 물었다.

“너의 평생내내 좋은 친구지.” 슬로가 그녀의 귀에 조용히 말했다. “걸차일드,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가 아니야.”

로라는 슬로에게서 떨어지려고 애썼다. “나를 가게 내버려둬.” 그녀가 말했다. “슬로, 내가 어떻게 와일드 원들과 지낸다는 말이야?”

“여기서는 막 달리는 곳이 아니야.” 슬로가 다시 속삭였다. “귀 기울여봐. 걸차 일드. 밤 짐승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녀.”

로라는 귀를 기울였다. 또렷하지 않은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끊임없이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어둠의 유니콘들이 그림자 사이로 발소리를 죽이며 발끝으로 다가오고 있어,” 슬로가 더 목소리를 낮췄다. “와일드 원들은 눈을 크게 뜬 채로 누워서 귀를 쫓긋 세우고 이것들이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곧 물고뜯는싸움이 시작될 시간이거든.”

갑자기 검은 박쥐 형체가 나무그림자를 뚫고 휘익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박쥐들이 날개를 펴자, 날개 안쪽에서 나오는 빛으로 하늘이 밝아졌다. 박쥐는 하얀 불꽃처럼 번쩍이며 로라와 슬로의 머리를 획 잡아당겼다.

“눈꺼풀을 닫아!” 슬로가 소리쳤다. “박쥐가 내는 빛이 눈을 태울 거야.” 슬로는 한 팔로 머리를 감싸며 다른 팔로는 로라를 세게 잡아 당겼다. “저것들이 우리를 잡아채기 전에 빨리 숨는 구멍으로 도망가야 해!”

로라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슬로를 따라 달렸다.

“저기 나뭇가지로 된 동굴에 웅크리자!” 슬로가 소리쳤다. 슬로는 로라를 나무 아래로 밀어 넣고 뒤따라 기어들어갔다.

그들은 고요하게 휩쓸고 다니던 형체로부터 벗어난 순간 숨을 헐떡거리며 누웠다.

“저게 뭐야?” 로라가 헐떡이며 말했다.

“문배트.” 슬로가 대답했다.

“문배트라구?” 문배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자, 로라는 다시 몸이 떨려왔다.

“올드 우먼이 문배트에 대해 이야기 해줬어. 문배트가 그녀의 눈밝음을 꺼버렸다고 했어. 그리고 올드 우먼 엄마아빠일족을 죽였댔어. 슬로, 다음엔 누구까? 우리? 아니면 스웰혼?”

“그것들은 누구라도 채어 갈 수 있어. 오래전에 한번은 문배트가 와일드 원 하나를 납치했지.” 슬로가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스펠혼을 보냈지. 스펠혼은 혼자서 외롭게 문배트 은신처인 동굴로 가야했어. 그리고 와일드 원을 다시 낚아 채 왔지. 정말이지 그때 스펠혼은 마지막 영원잠에 빠질 뻔 했다니까.”

“돌아온 와일드 원은 누군데?” 로라가 물었다.

슬로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건 내 입으로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슬로가 말했다. “하지만 그 와일드 원은 이상머리로 돌아왔고, 모두들 슬퍼했어. 그때 올드 우먼은 침울해지더니 오랫동안 숨어 지냈어.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영원히 그럴 거라고 말했어. 특별한 것을 빼앗겨 버리고, 그 대신에 나쁜 것들만 돌아왔으니까. 올드 우먼이 이렇게 말했어. 언젠가 신비로운 힘이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로라는 낮게 타오르는 불꽃을 다시 바라보았다. 와일드 원 모두가 나무 구멍에 기어들어가 있거나 덤불숲에 숨어있었다. 스펠혼은 홀로서서, 고개를 숙이고 앞 발로는 땅을 차고 있었다. 문배트가 스펠혼의 등 뒤에 섬뜩한 하얀 빛을 비추며 소리 없이 날아다녔다. 빨 없는 짐승들이 그림자 안에서 움직이며, 스펠혼을 둘러싼다.

“스펠혼! 힘을 내!” 슬로가 숨죽이며 말했다.

하지만 로라는 두 눈을 감았다. “스펠혼이 이기면,” 그녀가 생각했다. “와일드 원들은 월더니스로 돌아가게 될 거고, 나도 데려가겠지. 스펠혼이 진다면, 와일드 원들은 이 배드우드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겠지만, 난 집으로 갈 수 있게 될 거야. 난 자유로워 질 거야.”



8

물고뜯는싸움

스펠혼은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렸다. 밤에 문베트의 빛을 받은 스펬혼은 환하게 빛이 났다. 스펬혼은 빨 없는 짐승들이 자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펬혼은 은빛의 하얀 빨을 아래로 내렸다.

“스펠혼의 뾰족한 무기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어.” 슬로가 속삭였다.

“근데, 너무 고요해!” 로라가 숨죽여 말했다. “느낌이 좋지 않아!”

그 고요는 마치 귀로 기어들어와 머리에서 쉑쉑 소리를 내는 얽은 안개 같았다. 배드우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베트들은 소리 없이 고요한 불꽃처럼 떠서 숲의 공터 하늘을 맴돌았다. 와일드 원들은 나무 동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모두가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어두운 공기가 떨리는 것처럼 잔물결이 조금씩, 조금씩 일었다. 문베트들은 물속에서 수면을 가르고 나아가는 노처럼 날개를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빛 물결을 만들어

사방에서 번쩍었다. 문배트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불화살처럼 스펀을 향해 돌진했다.

“저것들을 다 뺏아봐!” 슬로가 몸을 숨겼던 나무등지에서 네발로 뛰어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로라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문배트가 이겨야해!” 로라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아니면 난 영영 풀려나지 못 할 거야.”

스펠혼은 뿔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자기를 향해 날개짓하며 돌진하는 문배트를 공격했다. 갈퀴에 달린 날카로운 발톱이 스펀의 등을 핏물었다. 바람처럼 날카로운 박쥐들 외침소리가 날쌔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다 찢어버려!” 슬로가 스펀에게 소리쳤다.

잠시 후, 퍼덕거리는 날개소리와 높이 울리는 끼익 거리는 소리 아래로,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이어졌다. 하나씩 하나씩, 어둠의 유니콘이 맹렬히 돌진해 왔다. 다시, 또 다시, 뿔 없는 유니콘들은 스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또, 다시, 스펀은 재빠르게 그것들의 누런 이빨과 격렬하게 움직이는 발굽을 피했다. 어둠의 유니콘들은 계속해서 스펀에게 달려들었다.

“저것들이 스펀을 물어뜯고 있어! 물어뜯는다고!” 슬로가 울부짖었다. “걸차 일드, 눈에 담아봐!”

“난 못해!” 로라가 말했다. 그녀는 머리를 두 무릎사이에 쳐 박고, 어지러운 불빛들과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 물고뜯는싸움에서 나오는 울부짖음, 그리고 살이 뜯기고 뼈가 부딪히며 나는 몽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것들이 스펀의 등을 물어뜯고 있어. 스펀을 때려 눕혔어. 또, 다시, 또, 또.” 슬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흐느꼈다.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마음슬픔이 있을 거야. 싸움 통에 흐른 피가 땅에 얼룩져 있어.”

“하지만 박쥐들이 이겨야해!” 로라는 자신을 어쩔 수 없었다.

로라는, 몸을 비틀고 있는 박쥐 떼를 손가락 사이로 훑음 보았다. 그녀는 차마 스펀을 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스펀은 날카로운 칼날 같은 뿔을 번쩍이며 뒷다리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스펀은 고개를 뒤로 들어올려, 로라를 찾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더니 파란 눈이 거슴츠레해지며 감졌다. 그리곤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뿔 없는 유니콘들이 스펠혼을 향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슬로는 절망으로 끔찍하게 울부짖었다.

“스펠혼의 힘이 피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사라지고 있어! 죽어가고 있다고!”

로라의 아빠는 추위에 코트 단추를 메어가며 어두운 거리를 뛰어갔다. 열은 안개가 모든 그림자를 지우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곳에 형체를 만들며 계곡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별빛은 그 아래에 가려졌다. 거리에선 가로등 불빛만 깜박였다.

“로라는 저 아래 어딘가 있을 거야.” 브룩씨는 생각했다. “다른 집 정원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헤매고 있는 지도 몰라. 하지만 로라는 이 거리를 잘 알아. 금방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브룩씨가 중심가로 접어들었을 때, 로라가 혼자서는 한 번도 길을 건너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라 달리는 것을 멈췄다.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자동차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아무것도. 갑자기 날카로운 섯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또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짐승이 길게 짖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두 마리 고양이가 싸우면서 벽을 뛰어넘어, 길바닥으로 울부짖으며 달려왔다.

브룩씨는 손을 입에 둥글게 대고 소리쳤다. “로라!” “로라! 어서 돌아와!”

슬로는 로라의 팔을 건드렸다. “저것들이 스펠혼을 둘러쌌어.” 슬로가 신음하듯 말했다. “스펠혼이 어떻게 나자빠졌는지 눈에 담아. 스펠혼은 지쳐 서있지도 못한다고.”

로라는 눈을 감았다.

“우리 스펠혼이 쓰러져있어!” 슬로가 한숨을 내쉬었다. “긴 영원잠이 거무스레한 어둠처럼 스펠혼에게 다가오고 있어.”

“스펠혼은 죽지 않을 거야, 그렇지?” 로라가 물었다.

슬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비틀었다. 덤불 숲 주위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로라는 그게 와일드 원들이 내는, 죽어가는 스펠혼 때문에 비통해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와일드 원들이 숨어있는 가지들이 뒤로 당겨지고,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나와 살금살금 그들에게 기어왔다.

올드 우먼이었다. 그녀는 낮은 숨소리로 쉼쉼 거렸다. “후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후우”

올드 우먼은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가 로라의 귀에 댔다. 뭔가 비밀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로라가 몸을 웅크리자 그녀의 얼굴이 올드 우먼 얼굴 가까이 있었다.

“스펠혼에게 기운 주는 말을 좀 해! 걸차일드.”

“제가요?” 로라가 말했다. “전 스펠혼을 도울 수 없어요.”

올드 우먼은 머리를 급하게 끄덕였다. 올드 우먼은 스펠혼을 보고나서 로라를 보았다. 다시 스펠혼을 보았다. 스펠혼은 어둠의 유니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뿔 없는 유니콘들의 쿵쿵거리는 다리 사이로 움직임 없는 하얀 몸뚱이가 보였다. “저 뿔 없는 것들이 스펠혼에게 우르르 몰려들고 있어!” 올드 우먼이 울먹였다. “이제는 스펠혼을 밟아대고 있어. 봐, 걸차일드. 스펠혼을 일으켜줘! 너무 늦기 전에 스펠혼을 일어서게 하란 말이야. 스펠혼은 살아나거나, 너를 위해 영원잠 속으로 빠지게 될 거야. 알잖아.”

“저를 위해 서라니요?”

“네 안에는 깊이 잠긴 신비한 힘이 있어. 그걸 사용하란 말이야.”

“스펠혼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라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가서 스펠혼에게 그렇게 말해봐.” 올드 우먼이 로라를 다그쳤다.

“스펠혼 눈구멍이 마지막 잠에 빠질 듯이 어두워지고 있어.” 슬로가 속삭였다. “어서 하라고!”

남편이 언덕에서 돌아올 때 브룩부인은 현관 계단에 서 있었다.

“로라를 찾았어요?” 안개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라는 것을 알았다.

“거리에는 없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브룩씨는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정원에도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집안에도 없어요. 샘의 말이 맞아요. 로라는 사라졌어요.”

로라는 올드 우먼과 슬로를 밀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서 나무동굴 밖으로 기어갔다. 빨 없는 유니콘들이 로라를 보고 뒷걸음질 치다 그녀를 다시 둘러싸려고 모여들자, 로라의 목구멍에서는 공포에 떠는 신음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로라는 어둠의 유니콘들이 땀에 젖어 내는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빨 없는 유니콘들은 로라를 향해 눈동자를 굴리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땅이 말발굽소리로 흔들렸다. 그녀는 흔들리는 지축을 따라 피가 튀는 것처럼 온 몸이 떨리고, 그녀의 목덜미는 얼음처럼 차가운 개미떼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얼얼했다.

로라는 스펠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어둠의 유니콘들의 다리사이를 지나 스펠혼에게 기어갔다. 로라는 스펠혼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로라는 손으로 스펠혼을 만졌다. “난 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말했다. “네가 이 싸움에서 이겼으면 해. 나를 위해서 말이야!”

당황하고 공포에 빠져서 빨 없는 유니콘들은 발을 차며, 그녀의 주위에서 앞다리를 들어 올렸다. 웨이파인더가 숨는 구멍에서 뛰어 나와 로라를 끌어당겼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로라를 끌어내어 두 팔로 감싸 안으며 유니콘이 안전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서 있었다. 스펠혼은 코를 헹헹거리고 발을 저으며 몸부림쳤다. 스펠혼은 머리를 꺾 제쳐 로라를 보았다. 스펠혼의 눈이 어슴푸레 빛나기 시작했다.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펠혼은 머리를 낮추더니, 빨을 들어 어둠의 유니콘 중 하나를 향해 돌진했다. 빨 없는 유니콘 중 하나가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스펠혼은 다시 힘을 얻었다.

“우리 스펠혼이 다시 태어났어!” 웨이파인더가 기뻐서 꺾꺾거렸다.

슬로는 나무동굴의 나뭇가지 사이로 머리를 내민 채, 스펠혼이 돌진하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있었다.

“스펠혼은 강한 발차기와 날카로운 빨, 그리고 빛처럼 빠른 공격 힘으로 다시 싸우고 있어!” 슬로가 소리쳤다. “그 놈을 확 물어버려, 스펠혼! 빨로 다 찢어버려!”

고통을 느끼고 공포에 질린 빨 없는 유니콘들이 배드우드 심장 안으로 연기처럼 물러나기 시작하자, 슬로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상처 입은 빨 없는 짐승사이를 뛰어다녔다.

“이제 상처나 핏고 있으라고, 알았어?” 그것들을 쫓아가며 슬로가 소리쳤다.
“뜨거운 피는 배채우기에 좋겠어!”

“스펠혼이 이겼구나!” 웨이파인더가 환호했다.

슬로와 그의 형제친구 패스트풋은 남아있는 빨 없는 유니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돌멩이들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쫓아 뛰어갔다. 웨이파인더는 나무 등지를 두 팔과 두 다리로 끌어안고 재빨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어둠의 유니콘들이 물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올드 우먼은 기뻐서 박수를 쳤다. 와일드 원들이 차례로 하나씩 나무 구멍에서 기어 나오고, 나무 밑 등지에서 뛰어 나와, 서로 얼싸안고 다독이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떤 와일드 원들은 로라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녀를 스펬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걸차일드! 스펬혼이 너를 위해 해냈어!” 워터가 로라에게 말했다.

“너도 와일드 원들의 심장을 가지게 되었어. 맞지?”

로라는 스펬혼의 목을 다독거렸다. 스펬혼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물고뜯는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스펠혼, 네가 이겨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로라가 속삭였다.

플라이트가 제일 마지막으로 은신처에서 기어 나왔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워터가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그녀의 불을 토닥여주고 손을 비벼주었다. “다 물러갔어! 다 돌아갔다고.” 워터가 플라이트에게 말했지만 플라이트는 워터를 밀쳐냈다. 힐 핸드스가 어떤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스펬혼의 상처에 문질렀다. 로라는 빨 없는 유니콘들 이빨에 물린 상처가 보일 때 마다 힐핸드에게 알려주며 그녀를 도왔다.

“내가 더 일찍 너를 도왔어야 했어.” 로라가 속삭였다. 그리고 스펬혼은 이해한다는 듯이 귀를 종긋 세웠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스펬혼.”

스펠혼의 치료가 끝나자 사이드맨이 툭툭거렸다. 사이드맨과 힐핸드는 스펬혼을 살피고 또 살폈다.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재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이드맨이 올드 우먼에게 말했다. “저 무리들은 곧 힘을 회복하고 더 맹렬히 달려들 겁니다.”

올드 우먼은 스펬혼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스펬혼이 고개를 돌려 로라

를 보자, 로라는 스펬혼에게 다가서서 목을 다독였다.

“내 주위로 모이시오, 와일드 원들!” 울드 우먼이 말했다. “내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소.” 말을 끌고 와일드 원들은 울드 우먼 주위로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사이드맨은 자기 말, 품에 올라타서 울드 우먼 쪽으로 말을 몰았다. 울드 우먼이 다시 말을 꺼내자 여기저기 잡담소리가 잠잠해졌다.

“우선, 내가 유니콘을 도로 찾아서 마음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오, 스펬혼은 우리를 위해 물고뜯는싸움에서 승리해 주었소. 지금 스펬혼과 함께 있는 나는 다시 눈빔을 갖게 되었소. 하지만 와일드 원들이여, 알아두시오. 나는 여전히 늑다리 울드 본즈이고 스펬혼도 나를 예전처럼 돌려놓을 순 없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 주었으면 하는 말이 있소. 울드 우먼이 마지막 영원의 잠에 빠지게 되면, 이 마이티 하이 자리를 대신할 고귀한 자를 찾아야하오. 이제 나는 왜 스펬혼이 우리들을 월더니스에서 데리고 나왔는지, 그가 무엇을 찾아다녔는지 알만하오. 내 마음구멍에서 그 이유를 알겠소. 나는 여러분께 새 마이티 하이를 찾았다는 것을 알리오. 스펬혼이 찾아내어 우리에게 데리고 왔소.”

로라는 울드 우먼이 말하려는 자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떤 와일드 원들은 아래 입술을 늘어뜨리고 이빨을 드러낸 채 자기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고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로라는 놀랐다.

“저 애가 와일드 원들이 가야 할 길을 알리가 없잖아요?” 플라이트가 말을 막아섰다. “저 애가 어떻게 우리의 마이티 하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스펠혼이 그 애를 마음기쁨으로 여기니까. 그게 증거야!” 슬로가 말했다.

플라이트는 울드 우먼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라구요! 제가 바로 그 ‘걸차일드’라고요!”

울드 우먼은 그녀의 팔을 뿌리쳤다. 그녀는 몸을 숙여 플라이트 얼굴에 대고 속삭였다. “그러면 너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지? 플라이트? 그건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플라이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흘쩍었다. 울드 우먼은 로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올라 타거라. 걸차일드.” 울드 우먼이 말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끝났다.”

로라는 조용히 올드 우먼 뒤에 올라탔다. 와일드 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이는 올드 우먼 뒤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올드 우먼이 혀를 꼴꼴 차자 스펠혼은 한결 같은 속도로 앞을 향해 나아갔다. 와일드 원들은 스펠혼을 따라 말을 몰았다. 이제 모두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배드우드를 지나갈 수 있었다. 어떤 와일드 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 계속 흘러나오는 그 나지막한 노랫소리는 자장가처럼 둥근 바위에 철썩이는 파도소리를 생각나게 했다. 로라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눈송이들이 가볍게 흩날리는 것 같은 흥분을 느꼈다. 과연 로라는 와일드 원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9

아이 스파이 힐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추워졌다. 로라는 올드 우먼의 긴 머리카락이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등 뒤에 바짝 달라붙었다. 스펠혼의 긴 걸음걸이가 만들어 내는, 익숙해진 흔들거림에 로라는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바람은 끔찍하고도 불안하게 불어 댔다. 일행은 배드우드의 은신처에서 나와 광활하고 험벗은 황야 위를 움직이고 있었다. 거기엔 바람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매섭게 때려댔다. 로라의 이는 추위에 딱딱 맞부딪혔고 두 볼은 저러왔다. 그리고 손가락 끝은 빨갛게 얼었다. 와일드 원들은 개의 치 않은 듯 했다. 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엉클어진 갈기를 이리저리 날리며 걸어갔다.

“곧 우리 고향이다.” 건너편의 슬로가 소리쳤다. 로라의 멍치끝에서 흥분이 끓어올랐다. 동시에 자기 집에 대한 아람이 그녀의 목구멍과 눈을 가득 채웠다.

마침내 일행은 거대하고 평평한 둥근 바위아래 멈춰 섰다. 바위들은 수레바퀴나 빵조각들을 쌓아 둔 것처럼 겹겹이 놓여있었다. 바위와 돌맹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이상한 각도로 가파른 경사를 만들었다. 그 안쪽으로는 놀라서 입을 벌린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동굴이 있었다.

“아이 스파이 힐이다!” 웨이파인더가 소리쳤다. 웨이파인더는 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둥근 바위 꼭대기에 가장 먼저 올라갔다. 다른 와일드 원들도 말에서 내려 서로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웨이파인더를 따라 기어 올라갔다. 슬로는 마치 깡마른 토끼처럼, 단단한 다리로 바위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를 제치고 꼭대기에 올라갔다. 슬로는 바위 꼭대기에 서서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그러더니 가볍게 돌아서서 공중에 다리를 날리며, 로라에게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슬로는 로라의 팔을 끌고 가파른 경사를 올라갔다.

“눈에 담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슬로가 두 볼 가득,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로라에게 소리쳤다. 로라는 손과 무릎이 딱딱한 바위에 스쳐 상처를 입고, 슬로를 따라가느라 숨이 찼지만, 상기된 채, 바위 언덕위로 올라가면서 와일드 원들과 크게 웃었다. 꼭대기에 오르자 로라는 숨이 차서 헉헉 대어야 했다. 순간 바람은 잦아들었다.

와일드 원들은 팔을 서로의 어깨에 두르고 온화한 기쁨으로 서로의 뺨을 부드럽게 부비면서, 고요하게 옹기종기 서있었다. 산맥은 동서로 늘어서 있었다. 얼음산은 푸르스름한 보랏빛으로 반짝이며, 낮은 산비탈 아래로 두꺼운 솔처럼 하얀 눈을 펼치고 있었다. 지는 해가 빨강게 활은 것처럼 산들은 반짝반짝 광택이 났다. 붉은 얼룩들이 가득한 창백한 푸른 바다는 얼음산을 배경으로 흩어지는 유리조각처럼 짹짹 소리를 내며 찰랑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낮게 뻗은 땅이 겹겹이 쌓인 보랏빛 언덕을 펼치며 수평선을 가르고 있었다. 해가 낮게 깔리다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자, 그 땅은 마치 실크 스카프위에 스팅글 장식처럼 보였다.

“저기가 월더니스야?” 로라가 속삭였다.

로라가 말을 꺼내자마자, 태양은 수평선을 넘어갔다. 그녀의 숨결 같은 파리한 안개가 그 땅 주위를 둘러싸더니 내려앉았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와일드 원들은 그 땅이 다시 나타나게 해보려고 한숨을 쉬어 보거나, 혹은 마

치 자신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눈을 비볐다. 안개가 바다의 화려한 색채를 앗아가며 퍼져나갔다. 바다는 칙칙한 회갈색이 되었다. 얼음산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고, 바람은 배고픈 늑대들이 징징거리며 울부짖듯이 다시 불어대었다. 썰 곳을 찾아 바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와일드 원들도 있었다. 슬로는 자기를 따라 내려오라고 팔꿈치로 로라를 쿡 찼다. 하지만 플라이트가 조심스럽게 옆걸음질 치며 로라에게 다가왔다. 로라는 플라이트를 보면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발 빠른 새가 떠올랐다.

“걸차일드! 여기가 월더니스로 가기 전 인간계의 마지막 땅이야,” 플라이트가 로라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걸?”

로라는 플라이트를 뻘뻘 쳐다보았다. 집으로 돌아간다? 지금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눈을 똑바로 뜨고 봐,” 플라이트가 말했다. “이제 달에 하얀 눈이 활짝 열릴 거야.”

로라는 고개를 돌려 바다너머를 보았다. 바다는 거친 바람 속에서 어둠의 야수들이 배회하는 것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라는 길고 까만 형체들이 저 아래 해변에서 꼬리를 흔들면서 물거품들 사이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았다.

“저게 뭐야?” 로라가 물었다.

올드 우먼과 워터가 로라와 플라이트 곁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소용돌이치는 파도를 내려다보며 서있었다. “저것은 뱀들의 바다, 씨 오브 스네이크야.” 올드 우먼이 말했다.

“와일드 원들이 월더니스에 가려면 저기를 건너야해,” 플라이트가 말했다. “오로지 진정한 와일드 원들만이 저기를 건널 수 있지.”

“하지만 어떻게?” 로라가 물었다. “어떻게 저기를 건넌다는 말이야? 난 가지 않을래! 안 갈 거야.”

“다른 길은 없어,” 플라이트가 웃었다.

“저 산맥을 넘으면 안 될까요?”

“너무 멀어,” 올드 우먼이 고개를 저었다. “스펠혼은 상관없지만, 다른 말들은 반짝이는 얼음뿐인 저 곳에서 미끄러져 빙빙 돌게 될 거야.”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뱀과 벌레들이 바다로 들어갈 거야. 그것들은 바다에 다 독을 뿌려.” 플라이트가 로라에게 말했다.

“독이라구?”

플라이트가 다시 웃었다. “그리고 넌 반드시 물고기처럼 저기를 헤엄쳐 건너야 해, 팔을 휘젓고 다리를 차면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난 절대 저기로 가지 않을 거야.” 밤색 바닷새처럼 바위를 뛰어 오를 때 마다 균형을 잡으려고 양팔을 넓게 벌리며 비탈 아래로 스치듯 내려가는 플라이트 등 뒤에서 로라가 말했다.

올드 우먼은 혀를 찼다. “플라이트야, 네 따뜻한 마음씨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니?”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올드 우먼은 로라의 어깨를 토닥였다. “와일드 원들은 뱀의 바다를 건널 수 있어.” 올드 우먼은 로라에게 확인시키듯이 말했다. “인간 족들은 저길 건널 수 없어. 그건 확실해!” 올드 우먼은 네발로 기어 언덕을 내려가려고 등을 구부렸다. 성큼성큼 옆걸음질 치며 기어가, 긴 손톱을 이용해서 바위 틈새에 착 달라붙었다.

“마음슬픔을 담아두지 마,” 워터가 로라에게 말했다. “스펠혼이 진정으로 너를 월드니스로 데려가고 싶어 하면, 가게 될 거야.” 워터는 추위를 피하려고 떨리는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이제 내려가야지, 걸차일드. 이 바람은 매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컷구멍을 찌고 있는 것이 추위에 얼어 나가떨어지기 전에, 동굴 우리로 짹짹 내려가렴.”

로라는 뱀의 바다를 한 번 더 내려다 보았다. 바다는 달빛아래서 뻑뻑 움직이며 잠깐씩 보이는 몸뚱이들로 일렁였다. 로라는 워터와 올드 우먼의 뒤를 따라 달렸다. 로라가 지나가면서 찬 작은 돌맹이들은, 계곡에서 가느다란 풀을 뜯고 있는 말 등 위로 떨어졌다. 로라는 동굴 입구로 기어들어가면서 매서운 바람이 사라진 것에 기뻐했다. 로라는 잠에 빠진 슬로와 플라이트가 내는 꿀꿀거리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둘 사이에 몸을 누었다. 그녀의 머리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울렸다.

샘은 아버지가 곧 집으로 돌아 올 거라는 전화를 받았다.

“언제요?” 샘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샘은 이제 로라네 집에 있는 것이 싫었다.

로라 부모님은 로라를 찾으러 나가거나, 슬픔에 젖어 조용히 로라가 돌아와야 한다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샘은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딸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샘, 곧 갈 거야.” 샘의 아버지가 약속했다. “지금부터 집을 고치러 가야지. 와서 어떤지 살펴볼래? 현관문을 어떤 색으로 할지 결정해야하거든.....”

샘은 말뚝을 본 날 밤 이후론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브룩씨 차고에서 꺼내서 페달을 밟았다. 샘은 잠시 동안 지평선위로 회색 둥근 바위가 흩어져 있는 비탈진 언덕을 바라보면서, 로라가 퀴니를 데리고 언덕을 올라가던 장면을 떠올렸다.

“로라, 너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샘이 혼잣말을 했다. 샘은 곁에 있는 나무에 앉아 있던 까마귀 떼가 까악 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오싹해졌다. 샘은 재빨리 몸을 날려 자전거에 올라타고는 페달을 밟으며 언덕에서 마을로 달려갔다.

중심가에 있는 집들에서는 검게 그을린 벽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벽지를 새로 바르느라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사실, 집들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긴 했지만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보가 빨리 울려서 진화를 재빨리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불이 난 경위에 대해서는 의아해했다. 소방대장은 전선들을 다 조사했고,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려고 건물자재 샘플을 가져갔다. 샘의 집은 여전히 비어있었지만, 옆집 사는 그레이 부인은 마당에서 현관문에 초록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다.

“샘, 와서 페인트칠을 해볼래? 재미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엄마랑 아빠를 도와야 해요.” 샘이 통명스럽게 말했다. “있잖아요, 그런 것 들, 체계 청소도 시키고 차도 끓여오라고 하고.”

“그래,” 그녀가 말했다. “네가 집에 돌아와서 좋구나, 그리고 다시들 모두 제 자리를 찾아서 다행이야.” 그레이 부인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레이 할머니.” 샘이 말했다. “뭐하나 물어봐도 되요?”

그녀가 돌아서며 술을 들어 올리자 페인트가 손잡이로 흘러내렸다.

“유니콘에 대해서 말인데요.”

“유니콘?” 그레이 부인이 웃었다. “샘, 유니콘에 대해서 왜 묻고 싶은데?”

“유니콘이 로라를 납치한 것 같아요.”

“로라? 아직도 못 찾았다니?” 그레이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로라가 실종되

었다는 소리는 들었다. 아직도 우리 마을에 골칫거리들이 남아있는 모양이구나.”

“로라가 유니콘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레이 부인은 샘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레이 할머니, 정말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샘은 홀을 지나 주방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레이 부인은 페인트 솔을 하얀 알코올 단지에 내려놓고 물비누를 손등에 부었다. 그리고서 비눗기가 다 없어 질 때까지 수돗물에 손을 행구고 또 행궜다. 그녀는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새미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 샘을 뒷방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녀가 말했다. 불길에 휩싸이지 않은 방안엔 이른 아침햇살과 달콤한 카네이션 향이 가득했다.

“유니콘은 로라네 정원에 불이 날 때 마다 있었어요.” 샘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로라를 데리고 갈 때서야 볼 수 있었어요.”

그레이 부인은 책장 옆에 바닥에 앉았다. 샘은 그 곁에 앉았다.

“유니콘은 신비로운 피조물이야,” 그녀가 샘에게 말했다. “수 천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동물을 믿어왔어. 성경에도 유니콘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

“그럼 정말로 유니콘이 있다는 거네요,” 샘이 말했다.

그레이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유니콘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환상적이지. 유니콘은 더 좋은 시절, 더 순수한 시절에 속해 있어. 우리 모두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시절 말이다. 내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거 같아요.”

“하지만 유니콘이 있다는 증거는 없어, 이것을 읽어 보아라.” 그레이 부인은 책 한권을 찾아 꺼내 양탄자위에 펼쳤다. 책에는 작은 수염과 긴 크림색의 갈기와 양 귀 사이에 가느다란 진주색의 뿔을 갖고 있는 하얀 말처럼 생긴 동물이 그려져 있었다.

“맞아요,” 샘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거였어요.”

그레이 부인은 샘을 결눈질로 보았다. “유니콘이 애들을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샘.”

“로라는 유니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상상 같은 거 말구요. 로라는 진짜로 유니콘을 보았어요.”

그레이 부인은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로라가? 그러면 로라는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유니콘을 가지고 싶어했나보다.”

“그레이 할머니,” 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니콘을 잡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레이 부인은 책을 다시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얀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 얼굴을 간질이자 머리를 쓸어 올렸다. “유니콘은 그 뿔 때문에 사냥감이 되었지,”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니콘을 잡았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어. 속임수로 말이다. 샘 여기를 읽어봐.”

“유니콘 뿔은 알리콘이라고도 하는데,” 샘이 책을 읽었다. “많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의 2500년 전 그리스 의사들은 독을 치료하는데 알리콘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마법의 뿔을 얻으려고 유니콘을 사냥했다. 하지만 유니콘들은 절대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다.” 샘은 그레이 부인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읽어보렴.”

“어느 날, 헤세의 존이라 불리는 자가 유니콘이 강가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다. 유니콘이 강가에 서있는데, 뱀과 독사들이 강가로 내려와서 강에 독을 풀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은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유니콘은 앞으로 한 발 다가서서 뿔을 강물 깊이 넣었다. 곧 물은 다시 깨끗해졌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모여들었다.....”

“그리고?”

“..... 유니콘은 강제로는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작은 여자 아이에게 스스로 가.....”

로라는 얼른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와 바다가 으르렁 대는 소리 그리고 와일드 원들이 내는 콧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에 섞여,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애야! 애야! 밖으로 나와 봐!”

로라는 바위동굴 입구를 기어서 나왔다.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짙은 구름이 달을 감싸고 있었다. 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다만 계곡에서 잠에 빠져있는 말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스펬혼은 흐르는 어둠속에 하얀 유령처럼 말 떼에서 조금 떨어져 서있었다. 로라가 들은 것이 확실히 스펬혼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애야!”

“누구세요?”

“셋! 우리는 너를 구하러 왔어.”

“너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이제 목소리가 말벌이 웅웅거리는 것처럼 앞으로 혹은 뒤로 울리며 두 개로 들렸다.

“하지만, 누구세요? 와일드 원은 아니잖아요!”

목소리들은 웃음을 참느라 웅웅거렸다.

“와일드 원이라구? 유감이지만 아니라고 해야겠구나.”

“우리는 네 친구야, 바로 우리라니까.”

“집으로 데려다 줄게.”

“그것뿐이다. 네 엄마와 아빠에게로. 그리고 네 강아지에게로,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로라는 손을 뻗어 그 소리의 주인들을 잡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손에 닿지 않은 채 목소리들만 로라의 주변으로 퍼졌다. “물론 가고 싶어요.”

“그럼, 한 가지만 해주면 된다.” 한 목소리가 말했다.

“단 한 가지만.”

“우린 트로피를 원해. 저기 유니콘 보이지?”

스펠혼은 가볍게 헹헹거리며 머리를 뒤로 쳐들었다.

“우리는 저 뿔이 필요해.”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말을 했다.

“저 마법의 뿔을 가져오면,” 두 번째 목소리가 웅웅거렸다. “우리가 너를 집에 데려가줄게.”

“하지만 스펬혼은 당신들이 뿔을 가져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걸요,” 로라가 말

했다. “그 빨로 당신들을 다 찢어버릴걸요.”

“오, 우리는 저 유니콘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목소리들이 로라의 머리위에서 춤을 추었다. 첫 번째 소리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리가, 서로 끼어들며 이야기하다가 같이 말을 하기도 했다. “유니콘을 붙잡을 수는 없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 사람들은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유니콘을 잡으려고 애써왔지.”

“그러면 어떻게 저 빨을 얻을 건데요?” 로라가 물었다.

“네가 있잖아!” 두 목소리가 종이 울리는 것처럼 웃었다. “네가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요?”

“유니콘은 이미 네 거야.”

“우린 네가 저 녀석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

“저 녀석은 네가 곁에 있으면 양처럼 순해지지.”

“유니콘 옆에 가서 앉아,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

“저 녀석이 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유니콘의 머리를 무릎사이에 붙잡아.....”

“빨을 붙잡아! 그리고 날째게 움켜쥐고 뽑아!”

목소리들이 로라에게 말을 걸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점점 아래로 스펬혼이 서있는 곳까지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지막 말에 로라가 멈춰섰다.

“싫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목소리들은 어르고 달래듯이 다시 부드럽고 온화하게 퍼졌다. “유니콘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두 목소리가 말했다.

“조금도 다치지 않을 거야. 아주 쉬워.”

“빨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면, 우리가 너를 집에 데려다줄게.”

“전 할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서, 애야. 어서 해. 다들 잠에 빠졌을 때 말이야.”

로라는 망설였다. 만약 말처럼 그렇게 쉽다면..... 스펬혼이 다치지 않는다면..... “하지만 스펬혼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가 노래를 불러주면 저 녀석은 네게로 다가 올 거야, 알잖아?”

“어서 해!”

이상하게도 스펬혼이 고개를 들어 로라를 보았을 때, 로라가 자기에게로 와 주길 바라는 것 같았다. 로라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워터가 와일드 원들에게 불렀던 노래를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착하기도 하지.” 첫 번째 목소리가 속삭였다. “천천히, 천천히 해!”

“스펠혼, 이리와.” 로라가 속삭였다. “이리 와서, 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봐.”

로라는 풀 위에 앉았다. 유니콘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쓰다듬어 줄게” 그녀가 말했다. 스펬혼은 로라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로라는 떨렸다.

“지금이야!” 목소리들이 낮게 속삭였다.

“머리를 내 무릎에 뉘여, 내가 어루만져 줄게.”

로라. 은색 플루트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스펬혼에게서 나왔다.

나를 배신할거야?

로라는 머릴 가로 저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이야!” 낮게 목소리들이 말했다

로라. 나를 배신할거야?

“아니, 스펬혼, 아니야!” 로라가 흘쩍이며 울었다. “난 그냥 너를 쓰다듬어 주려고.”

“지금! 지금이라니까! 지금! 당장!”

피리소리처럼 맑고 고운 소리가 스펬혼에게서 다시 흘러나왔다. 부드럽게, 그리고 구슬프게. 로라. 나를 배신할거야?

로라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스펬혼을 밀쳤다.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들에게 소리쳤다. “난 하지 않을 거야. 하지 않겠다고.”

순간 스펬혼은 뒷다리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꼬리를 흔들었다. 말들이 소리를 지르고 헹헹거리면서 앞으로 내달렸다. 와일드 원들이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다. 소름끼치게 울리던 목소리들이 어둠속으로 영영 사라졌다는 것을 로라는 알았다. 로라는 소란 속에서 서 있다가 스펬혼을 진정 시켜려고 목을 감싸 안으며, 자기가 잘못 했다고 애써 말했다.

울드 우먼이 로라에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목소리들을 들었나요?” 로라는 머리를 스펬혼에게 기대고 물었다.

“우리 모두가 들었다. 그리고 모두들 너를 눈감시하며 살펴보고 있었지.”

“미안해요.” 로라가 울먹였다.

“하지만 스펬혼의 빨은 뽑지 않았잖아. 걸차일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야. 너는 제일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든. 올드 우먼은 플라이트를 내려다보았다. 플라이트는 스펬혼 곁에 웅크리고 앉아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올드 우먼은 발을 플라이트의 무릎에 올려놓고, 그녀를 뒤로 밀어 비참하게 구르게 만들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와일드 원이야. 확실해.”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말했다. “이제 꾸물댈 시간이 없어.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이 되면 월더니스에 있게 될 거야. 우리들의 집에!”



10

뱀의 바다로

다음날 아침, 웨이파인더와 워터가 로라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와일드 원들은 말들을 어르면서 아이 스퀘이 힐 넘어 뒤를 따랐다. 사이드맨과 호스맨은 말 한 마리씩 질질 끌며 마치 어떤 위험에 빠졌다고 불안해하는 양치기 개처럼 으르렁 거렸다. 말들은 바위산을 떠나는 것에 긴장했다. 눈을 굴리며 겁에 질려 두 귀를 바짝 세웠다. 스펀혼은 평소처럼 나아갔다. 올드 우먼이 그 뒤에서 숨이 차 헐떡거리며 따라왔다.

언덕 등근 바위에서부터, 자갈이 로라 발밑에서 으드득 으드득 소리를 내었다. 잠시 후, 발꿈치가 빠져드는 잔자갈이 섞인 모래로 되어있는 거친 길이 나왔다. 로라는 여기저기서 뱀들이 바다로 가려고 몸부림치며 만들어 낸 구부러진 샅길을 보았다. 파도는 한숨처럼 다가왔다가 다시 물러갔다. 썩아~ 철썩~썩아~철썩~. 그리고 그 부드러운 소리 사이로 쉬익 거리는 뱀의 소리가 들렸다. 이제 로라는

반짝이는 파도 너머로 뱀들을 볼 수 있었다. 몸뚱이에는 다갈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반점들이 찍혀있었다. 눈은 호박색이고, 혀를 날름거렸다. 로라는 몸을 떨었다. 워터는 로라의 뺨에 입김을 불어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애썼다.

“전 춥지 않아요.” 로라가 워터에게 말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올드 우먼이 낄낄거리며 둘에게 다가왔다. 스펬혼은 바다를 바라보며 코를 찌근거렸다. 로라에게는 스펬혼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하나씩 다른 와일드 원들이 다가왔다. 말들은 살금살금 다가서는 바다에서 텅굴고 있는 뱀들을 보고 물거품으로부터 뒷걸음질 쳤다. 모두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육지와 안개 낀 수평선사이에 길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턱을 굽적거리며 한숨만 쉬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올드 우먼이 약속했다.

잠시 후, 아무런 소리 없이 모두들 물가를 넘어 바다로 들어갔다. 로라는 자기만 스펬혼과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둥근 바위를 넘어 오며, 삼삼오오 모여서 와일드 원들이 중얼거리던 말들이 생각이 났다.

“저 여자아이가 그 일을 하는 것에 가슴두려움이 있나봐.” 워터가 말했다. “모두가 다 함께 끝내야만 해.” 올드 우먼이 말했다. 여기저기서 마지못해 동의 소리가 났다.

“내 뇌 상자가 말하기를 저 애는 바다에 내팽개쳐져 쪼그라들게 될 거래.” 플라이트는 킁킁 웃었다.

“그 주둥아리 닥쳐.” 슬로가 경고하듯 말했다. “아니면 내가 주먹을 날려 줄 거야.”

“그 애의 살가죽은 뼈에서 발라져 나와 똥똥 떠다니게 될 걸, 인간족은 다들 그렇게 되잖아” 사이드맨이 말했다.

“스펠혼이 그 애에게 심술을 잔뜩 부릴 걸.” 플라이트가 뿔루통해서 말했다. “스펠혼은 물고뜯는싸움에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 뿔도 뺏길 뻔 했어.”

여전히 스펬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로라는 움직일 수 없어, 그냥 서 있었다.

“어쩌면 스펬혼의 힘이 다 소진되어 가는지도 몰라.”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아니면, 힘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로라는 떨리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른 일행들이 있는 바다로 달려 들어갈 수가 없었다. 뱀이 번쩍이는 머리를 쳐들고 있는 바다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로라는 뱀의 가느다란 몸뚱이가 자신의 다리를 휘감거나 자기 팔로 미끄러져 기어 올라오는 것을 상상했다. 뱀 한 마리를 밟고 서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스펠혼은 기다렸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 걸차일드.” 와일드 원들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서 하라구!”

“유니콘을 믿어!” 슬로가 소리쳤다. “스펠혼에게 심장말을 하라구!”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당장.” 워터가 경고했다. “다음기회는 없어!”

로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손으로 스펬혼의 목을 쓰다듬었다. 스펬혼은 로라가 말을 꺼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스펠혼, 물고뜯는싸움때는 정말 미안해. 그리고 뺨을 흠치려 한 것도 미안해. 다시는 절대,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을게.”

스펠혼은 고개를 뒤로 젓히며 콧김을 뿜었다.

“스펠혼이 저 애에게 고개를 가로 저었어. 모두가 죽게 될 거야.” 사이드맨이 신음하며 몹시 괴로워했다.

“입 다물어, 그 수다스런 입, 블래드마우스,” 올드 우먼이 쉼 소리를 내었다.

“귀 기울여서 들어봐!”

로라는 스펬혼의 코를 쓰다듬었다. “와일드 원들을 생각해봐,” 로라가 속삭였다. “월터니스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너 뿐이야.”

올드 우먼은 플라이트와 사이드맨에게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 말이야!” 올드 우먼이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난 네가 독이 가득한 바다를 건너게 도와 줄 거라고 믿어, 스펬혼,” 로라가 말했다. “나는 너랑 함께 바다로 들어갈 거야.” 로라는 스펬혼 등에 올라탔다. 스펬혼은 똑바로 섰다.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난 널 믿어, 스펬혼.”

“스펠혼은 그래 줄 시간이 없어.” 플라이트가 숨죽이며 말했다.

유니콘은 한발을 앞으로 디뎠다. 그는 발굽을 마른 모래 끝자락에 멈췄다. 그리고서 천천히 머리를 낮추었다. 로라는 몸을 앞으로 기우려 스펬혼의 갈기에 착

달라붙었다. 플라이트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스펬혼이 자기를 바다로 던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뱀은 ‘쉬익, 쉬익’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움직이다가 머리를 다시 치켜들었다.

“난 너를 믿어, 스펬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목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스펠혼은 뱀의 꼭대기가 바닷물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머리를 낮추었다. 바닷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하얀 김이 ‘수우’하는 소리와 함께 뿜어져 나왔다. 독사들이 혀를 날름날름 거리며, 독을 뱀고 날뛰면서 고개를 쳐들었다. 스펬혼은 다시 뱀을 물에 넣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수 백 개의 쇠로 된 종들이 한꺼번에 울리는 듯이, 쩡그렁 하는 소리가 바다에서 났다. 그 소리는 저 깊은 바다 아래서 메아리치는 것처럼 울렸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뱀은 몸을 감으면서 스펬혼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독사들은 머리를 낮추고 스펬혼이 서 있는 곳에서 멀찌감치 반원을 그리며 바다에서 기어 나왔다. 태양이 독사들의 번쩍이는 몸을 비추자 광채가 퍼졌다. 뱀들은 해변으로 미끄러지듯이 기어 나와 바닷가 멀리 떨어진 바위까지 기어갔다. 빠리를 튼 몸은 자수정이나 에메랄드 혹은 토파즈 같은 보석처럼 빛났다.

바다는 투명한 파란 빛을 띠고, 그 아래 모래 바닥은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광채가 났다.

“바다가 환하게 밝아졌어!” 슬로가 소리쳤다.

“한 여름 소나기처럼 달콤해!” 워터가 웃었다.

와일드 원들은 파도를 타고 물을 뿌리며 환호했다.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기도 하고 팔과 다리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기도 했다. 물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강아지들처럼 머리를 흔들기도 했다.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것처럼 들이켰다.

“어서 마셔들 보라구!” 올드 우먼이 와일드 원들에게 말했다. 올드 우먼도 기분이 좋아 사이드맨에게 물을 튀기며 웃었다. “이제 곧 독사들이 다시 기어들어 올 거야.”

로라는 스펬혼 위에 고쳐 앉았다. 그리고 스펬혼은 부드러운 물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결이 스펬혼을 받쳐주자, 그는 바다 위에 둥둥 뜨기 시작했다. 가끔씩 슬로와 형제친구인 패스트풋과 우드패치는 말 등위에서 다이빙을 하거나 로

라 주위에서 개헤엄을 쳤다. 웃고, 거품을 불고, 오리처럼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거나, 허리를 비틀면서 태양아래서 꾸물대기도 하고 몸을 쩍싸게 뒤집기도 했다. 와일드 원들은 모두 스펬혼에게서 힘을 얻은 것처럼 보였다. 스펬혼은 와일드 원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올드 우먼이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를 치는 동안에도, 힘들이지 않고 백조처럼 고요하게 와일드 원들 주위를 빙빙 돌며 바다에 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해안가에서는 뱀들이 다시 몸을 풀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바다로 다시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와일드 원들의 노래 소리 사이로 큰 고함소리가 퍼졌다. 스펬혼의 등 뒤에 있던 로라와 올드 우먼은 몸을 틀어, 바다 속을 살피는 동안 스펬혼은 멈춰서 물속에서 다리를 젓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손 좀 주세요!”

울부짖는 소리가 바다 밑에서부터 울려왔다. 와일드 원 중 하나가 일행에서 떨어져 물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손 좀!”

바닷물 위에서, 그 와일드 원의 머리카락이 해초처럼 퍼져가며 핏빛 망토처럼 소용돌이쳤다.

“플라이트야!” 로라가 말했다. “플라이트가 가라앉고 있어!”

“빨리 물고기처럼 헤엄을 쳐야해, 더!” 올드 우먼이 혀를 차며 말했다. “힘이 다 빠졌나보군. 글썄” 올드 우먼은 고개를 돌렸다. “그냥 내버려둬.”

“안돼요!” 로라가 말했다. “그래선 안돼요. 우리 모두가 그녀를 구해야 해요.” 로라는 스펬혼의 머리를 돌려 플라이트가 머둥거리고 있는 곳으로 가게 하려고 했다.

“너무 늦었어.” 올드 우먼이 말했다. “돌아갈 시간이 없어. 저기로 눈을 들어봐.”

로라는 은색으로 빛나는 뱀 떼가 물결을 타고, 자기들에게 날듯이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독사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어,” 올드 우먼이 말했다. “시간이 없어.”

“하지만 스펬혼이 물을 다시 맑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잖아요.” 로라가 절망적으로 스펬혼이 방향을 틀게 하려고 차면서 말했다. 플라이트는 두 팔을 뻗더니,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올드 우먼은 월더니스를 향해 헤엄쳐가는 말무리 쪽으로 스펀의 머리를 틀었다.

“말했잖아, 늦었다고! 스펀의 힘이 모두 타 없어지고 있어. 워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지! 힘을 다시 충전하려면 오랫동안 눈을 붙여야한다고.”

“하지만 플라이트는!” 로라가 울먹였다.

그녀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플라이트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다.

“내게 도움손길!”

올드 우먼은 이를 물었다. “플라이트도 오래전에는 자신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잊어버렸지. 내팽개쳐버렸거든. 플라이트를 내버려둬, 걸차일드. 플라이트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

올드 우먼이 스펀을 발로 차자마자, 로라는 스펀의 등에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로라는 플라이트에게 헤엄쳐 갈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어떻게 그녀의 목을 한 손으로 감아올려 안고 물을 발로 차면서 헤엄을 쳐 나왔는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와일드 걸은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었고, 로라는 플라이트와 함께 가라앉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버둥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라는 힘이 다 빠지고 숨이 헐떡였지만, 플라이트를 끌고 스펀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스펀이 낮게 히힝 울었다. 올드 우먼은 놀라서 로라를 내려다보았다.

“저런,” 올드 우먼이 혀를 찼다. “저런, 저런, 저런.” 올드 우먼은 몸을 기우려 플라이트를 들어올렸다. 와일드 걸은 두 팔과 두 다리를 물속에 늘어뜨린 채 스펀의 등 위에 가로로 엮드려 실렸다.

“둘 다를 태워줄 공간이 없다,”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말했다. “걸차일드, 더 빨리 헤엄쳐.”

하지만 로라는 플라이트의 긴 머리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듯이 힘이 다 빠져 나가는 것을 느껴졌다. 그녀는 팔이 너무 무거워 헤엄치기가 힘들었다. 발을 저어가려고 해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가 건너온 바다에 온통 뱀들이 가득해.” 올드 우먼이 소리쳤다. “더 빨리, 더 빨리 헤엄쳐.”

스펀이 물 안에서 다리를 저어가자, 그 뒤로 하얀 거품이 일었다. 로라는

스펠혼의 갈기를 잡으려 두 손을 뻗었지만, 갈기는 손을 빠져나갔다. 로라는 다시 손을 뻗어 갈기를 붙잡으려다가 플라이트의 팔을 보고 붙들었다. 천천히 로라의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로라는 더 가까이 붙어 플라이트의 손을 잡아 보려고 애썼지만 와일드 걸은 손가락을 뺐다. 잠깐 동안 로라와 플라이트의 손가락 끝이 닿아 있다가 로라는 뒤로 쳐지게 되었다. 로라는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곳으로 자신이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11

월더니스

로라는 모래위에 부서지는 부드러운 파도소리에 깰다. 젖은 무엇인가 그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로라는 눈을 뜨고 자기가 해변가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펀은 로라에게 축축한 코를 비비고 있었다. 와일드 원들은 걱정스러운 듯이 그녀 주위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로라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와일드 원들은 서로 툭툭 가볍게 치거나 손바닥을 두드리며 킁킁거렸다. 올드 우먼은 머리위로 두 주먹을 쥔 채 마주 치고 있었다.

“걱정시간이 끝났다,” 올드 우먼이 와일드 원들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숨을 좀 돌리게 하게.”

로라가 일어나 앉자, 와일드 원들이 그녀를 둘러싼 원을 더 넓히며 뒤로 천천

히 물러섰다. 그녀는 형형색색의 조개껍데기 모래가루 위에 누워있었다. 연어 핑크 색, 복숭아 색, 이른 아침의 하늘 색, 레몬 색과 크림색으로 가득했다. 물에서 멀어질수록 조개들은 완전한 모양이었다. 작은 와일드 차일드들이 조가비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로라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와일드 우먼들이 머리가 긴 조그만 아기들을 안고서, 서로 착 달라붙어 앉아 잡담을 하며 로라를 빤히 보고 있었다.

“생명주스 마셔봐.” 밀물과 스펬혼이 너를 집으로 데리고 왔구나,” 로라에게 조가비에 담긴 마실 것을 주며, 워터가 말했다.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나는 시원하고 달콤한 황금색의 주스는 잔에 넘칠 정도로 가득했다. 로라는 주스를 마시고 일어서며, 다시 기운이 나는 것을 느꼈다.

“지금부터 슬로가 월더니스를 구경시켜 줄 거야,” 워터가 미소 지었다.

로라는 모래들 사이로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슬로를 따라 달려갔다.

로라와 슬로는 곧 해변을 벗어나, 가는 줄기를 길게 늘어뜨린 나무와 야생화들이 온 주위에 향기를 가득 뿌리며, 형형색색의 별처럼 꽃송이를 펼치고 있는 관목 숲 사이로 들어갔다. 보드라운 이파리들과 꽃잎이 로라가 뛰어 갈 때, 그녀의 맨발과 드러난 팔에 감기거나 스치면서 로라를 간질였다. 벨벳 같은 땅위로 불빛들이 점점이 광채를 내었다.

로라와 슬로가 가는 곳마다, 와일드 원들이 뽀갸를 줍거나 집을 고치느라 바빴다. 엄마아빠일족이 무거운 큰 나뭇가지를 들고 비틀거리며 나아가거나, 통나무를 굴리고 있는 동안, 작은 와일드 원들이 아몬드 가지로 만든 아기 요람을 흔들면서 앞뒤로 뛰어다녔다. 와일드 원들은 로라를 보려고 하던 일을 멈추거나, 로라에게 인사하려고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입술을 잇몸위로 올리며 이를 드러내어 크게 미소를 지었다. 와일드 원들은 로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서로 수다를 떨거나 나무위로 기어 올라가 로라를 더 오랫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로라와 슬로는 분주한 마을을 뒤로하고 월더니스의 고요한 심장부로 들어갔다. 나무로 된 집들과 키가 큰 식물들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그곳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둘 앞에는 둥근 언덕이 놓여 있었다. 언덕은 잠에 빠진 야수처럼 고요하고 거대했다.

“저 위까지 달리기 할래?” 슬로가 말했다. 슬로는 로라를 앞서 푸른 비탈길을

날쌔게 달려갔다.

“기다려줘!” 로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슬로는 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내달리고 싶었다. 슬로는 로라가 따라올 때까지 멈춰서서 기다렸다. 하지만 로라가 따라잡자마자, 슬로는 숨고름 틈도 주지 않고, 또 앞으로 썩하니 달려 나가기를 계속했다. 로라가 꼭대기에 오르자,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슬로 옆에 나동그라졌다.

“눈에 담아봐, 지금!” 슬로가 로라를 재촉했다. “월더니스 빛들을 봐.”

로라는 마침내 일어서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월더니스가形形色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눈부신 빛들, 어디를 보든,” 슬로가 즐겁게 말했다. “그리고 이 빛들이 다 아래로 뻗어가. 저길 봐.”

슬로는 경사를 따라 물보라를 일으키는 폭포를 가리켰다. 폭포는 저 멀리 조그마한 와일드 원들이 사는 집까지 뻗어 있는 남빛 강줄기를 따라 꼬불꼬불 구부러지며 둥글게 이어져 있었다.

“저 급류를 쫓아가다 보면 나의 특별한 장소가 있어.” 슬로가 로라에게 말했다. “월더니스의 비밀의 눈이라는 곳인데, 걸차일드, 한번 찾아볼래?”

슬로는 로라를 앞서서 경충경충 뛰어나갔다. 로라는 다시 한 번 언덕 아래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주위에서 월더니스의 온갖 종류의 찬란한 빛들이 무지개 바다를 이루며 넘실대고 있었다. 저 너머 어디엔가 인간족의 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로라는 그 곳을 볼 수 없었다. 로라는 반짝이는 빛들 저 멀리 너머, 안개 낀 지평선을 보려고 애쓰면서 주위를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다.

잠시 후, 로라는 슬로를 따라 언덕을 달려 내려왔다.

폭포는 로라가 달려 들어가자 뺨과 팔에 차가운 물보라를 뿌렸다. 로라는 눈을 감은 채 입을 크게 벌려 물보라를 마시면서 폭포 옆에 서있었다.

슬로는 로라를 향해 야생 고양이처럼 풍덩 뛰어 들었다.

“그렇게 뛰어 들면 어떻게 해? 와일드 원, 슬로,” 놀라서 로라가 말했다. “숨을 구멍을 아는 너는 괜찮지만. 난 아니잖아.”

“곧 알게 될 거야,” 슬로가 로라에게 말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깐, 바로 여기.”

슬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커튼처럼 늘어진 이끼와 고사리들을 걷어 올렸다.
“여기가 비밀의 눈이야.”

로라는 슬로를 따라 메아리가 울리는 어둡고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벽은 여러 색채를 띠고 있었다. 조금 더 깊이 기어 들어가며 눈이 어둠에 익숙해 지자, 로라는 새와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형형색색으로 서투르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았다. “슬로, 누가 그린 그림이야?” 그녀가 물었다. “네가 그렸어?”

슬로가 싱글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땅에서 무엇인가를 찾았다. 슬로는 고사리 줄기를 들어 올리고는 작은 색깔자갈들을 로라에게 굴렸고, 크고 납작한 돌을 들고 기어왔다. 슬로는 주워든 자갈하나를 빨간색 가루가 될 때까지 뺨고, 두 손바닥을 둥글게 모아 가루를 퍼 올렸다. 그리고서, 침을 뱉어 손가락으로 조물거리며 반죽을 만들고, 만들어진 반죽을 잡고는 동굴 벽에 더덕더덕 칠했다. 슬로는 두 발을 바닥에 평평히 모은 채 쭈그러서 턱을 무릎 위에 괴고 앉아,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하느라 콧소리를 작게 내기도하고, 몸을 앞뒤로 혹은 양 옆으로 흔들었다. 로라도 두발을 모으고 앉아 슬로를 지켜보았다. 슬로는 먼저 너털거리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큰 새의 윤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을 붉은 색이 도는 황갈색으로 채워 넣었다. 그는 다시 푸른빛을 띤 보라색 돌멩이를 가루로 만들고 다른 손바닥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날개 끝의 어두운 부분과 길게 늘어진 꼬리를 칠하는데 사용했다. 새의 눈은 모래 빛갈 노란색으로 채웠다.

“이게 무슨 새야?”로라가 물었다.

“워리오워리어,” 슬로가 말했다. “와일드 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안전을 지켜주는 역전의 용사 같은 새야. 땅에서 제일 먼저 창조 된 새지. 높은 나무 위나 언덕 꼭대기에 사는 데,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어. 하지만 워리오워리어가 날아서 내려오면 슬픔시간이 온다고 해. 정말이야.”

“슬픔시간?” 로라가 물었다. “어떤 슬픔인데?”

슬로는 어깨를 활 모양으로 구부리고 툭툭거렸다. 그는 자갈들을 로라에게 밀었다. “그림이나 그리자.” 로라는 하얀색 자갈을 골랐다. 둥글고 부드러운 자갈이었다. 로라는 그 자갈촉감이 좋았다. 로라는 평평한 돌 위에 자갈을 뺨고 가루로 만들었다. 슬로가 한 것처럼 침도 뱉어 넣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울퉁불퉁한

동굴 벽에 반죽을 펼쳐 놓는 게 쉽지 않았다. 로라는 밖으로 나가서 깃털모양의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와서 붓처럼 사용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동물 몸뚱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스펠혼이구나!” 슬로가 애쓰는 로라를 놀리듯이 말했다. “그게 미소를 만드는 거구나, 그게!”

하지만 그것은 스펬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작은 머리와 더 짧은 다리를 가진 웅크리고 있는 동물이었다. 로라는 이 동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잊어버렸다. 사실 그런 동물을 진짜 본적이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어디엔가 맡아본 적이 있는 따뜻하고 촉촉한 냄새가 떠올랐다.

로라가 겨자 빛 노란 반죽으로 그린 몸뚱이를 만지자, 그녀는 그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자기 손을 핥던 젖은 혀가 생각이 났다.

“스펠혼이 아니야,” 그녀가 슬로에게 말했다. “다른 동물이야, 아주 멀리 있는. 사이드맨처럼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내.” 둘은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슬로는 주먹을 쥐고 로라를 향해 들어 올렸고, 로라도 슬로에게 주먹을 보여주고는 와일드원들이 농담을 나눌 때 하는 방법으로 서로 가볍게 마주쳤다.

슬로는 더 많은 돌멩이들을 빵아 반죽을 만들고, 보라색 열매가 달린 작은 나뭇가지 그림을 그렸다. “내 그림이름이야.”

“슬로!” 로라가 말했다. “이게 네 이름 ‘슬로’구나, 자주빛 베리, 난 네 이름이 ‘빠르다’ 패스트의 반대말인 ‘느리다’ 슬로우 인줄 알았지!”

슬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입을 삐죽거렸다.

“넌! 엄청 빠르잖아!” 로라가 슬로에게 말했다. “빠른 발인 패스트풋과 달리는 걸 본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그 애랑 막상막하이던걸.”

슬로는 곧 자랑스럽게 볼을 볼록하게 부풀렸다. “그럼 이제, 네 그림이름을 그려봐.” 슬로가 말했다.

로라는 돌멩이들을 보았다. 어떤 색으로 이름을 그릴까 고민했다. 로라는 자갈들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가장 밝은 색을 골라냈다. 그 색깔은 처음으로 로라가 꽃을 보았을 때 경이로워하던 색이었다. 노란색. “나는 ‘로라’라는 것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 그녀가 말했다. “로라 브룩.” 로라는 자기의 이름을 천천히 말했다.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로라는 잘 떠오르지 않는 아이디어를 끄집

어내느라 머리를 짜냈다. 그녀는 자기 이름 글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펠혼은 동굴 밖에 있었다. 로라는 스펠혼이 히힝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나가 슬로를 위해 어떻게 이름을 그려줄까를 생각하면서 유니콘을 쓰다듬었다.

“아! 생각났어.” 그녀가 소리쳤다. 로라는 달려가 넓고 평평한 잎을 가져왔다. 그 잎은 바짝 말라서 종이 같았다. 로라는 나뭇가지에 있는 뾰족한 가시를 떼어왔다. 슬로는 로라 곁에 쭈그리고 앉아, 로라가 나뭇잎에 구멍을 뚫는 것을 보았다. 로라는 눈을 감고 도드라진 구멍 위로 손가락을 쓸었다. 슬로도 로라를 따라했다. “이게, 내 이름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슬로는 어리둥절했다. 로라는 다시 동굴로 기어들어가서, 이파리를 벽에 대었다. 손가락을 노란 색 반죽에 찍어서 구멍에 문지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파리를 떼어내었다. 동굴 벽에는 로라의 그림이름이 찍혀있었다. 로라 브룩.



그 이름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태양의 흑점처럼, 월더니스의 검은 눈 안에서 빛날 것이다.



12

귀향 환영 배채우기

로라와 슬로가 다시 밝은 태양 아래로 나오자, 심장 박동처럼 북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펠혼은 귀를 뒤로 세우며 북소리에 귀 기울였다. 로라가 스펠혼을 쓰다듬었다.

“무슨 일이야, 스펠혼?” 그녀가 물었다.

북소리는 강렬한 피리소리로 바뀌었고, 다급한 소리는 공중에 울려 퍼져 조각조각으로 나뉘는 듯 했다. 슬로는 귀에 손을 대고 어느 방향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알아내려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로라가 슬로에게 물었다.

“땅짐승이 나타났나봐,” 슬로가 말했다. “얼른 내려가서 덮치는걸 보자.”

로라는 스펠혼에 올라타서 옆구리를 찼다. 슬로는 맑은 갈대 피리소리를 따라, 스펠혼이 뒤를 성큼성큼 달렸다. 잠시 후, 스펠혼이 속도를 줄이자, 슬로는 스펠혼과 로라 앞으로 난 오솔길을 요리조리 달려갔다. 슬로는 손바닥을 땅에 대고 살금살금 나아가기 시작했다. 슬로의 분홍빛 발바닥이 작은 입이 열렸다 닫히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슬로는 자리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손을 입 위에 대보이며 로라에게 조용히 하라고 표시했다. 로라는 스펠혼 등 뒤에서 내려와 슬로를 따라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췄다. 그 앞에는 와일드 원들이 무리를 지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팔과 다리로 기어가고 있었다. 로라와 슬로도 그들을 따라서 기어갔다. 로라는 와일드 원들이 조용하게 넓은 원을 그리며 퍼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어떤 짐승이 있었다. 그 짐승은 두발을 약간 벌린 채, 머리는 낮추고, 두툼한 옆구리를 흔들며 서있었다.

“저게 땅짐승이야!” 슬로가 속삭였다.

“뭘 하고 있는 거지?” 로라가 물었다.

로라 곁에 있던 와일드 원들은 손을 입가에 대며 조용하라고 속삭였다.

갈대피리의 구슬픈 소리가 점점 높아갔다. 곤충들이 내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머리 주위에서 울렸다. 그 작고 파르르 떨리는 날개에서 파란 빛을 번쩍였다. 사이드맨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었다.

“안돼요,”로라가 말했다. “죽이면 안돼요.”

로라 곁에 있던 와일드 원들은 모두 일어섰다. 하지만 앞으로 걸어가지 않고, 무릎은 구부리고, 팔은 넓게 편 채로, 몸을 양 옆으로 흔들거리며, 꿈속에서 춤을 추듯이 천천히 원안으로 움직였다. 땅짐승은 다리를 단단히 디디고 서서 눈을 깜빡였다. 하나씩 차례로 와일드 원들을 근엄하게 바라보면서, 와일드 원들의 춤을 흉내 내다가 혼자서 좌우로 흔들거리는 춤을 추는 것처럼 위엄 있게 다리를 들어 올렸다. 와일드 원들이 만든 둥근 원에서 부러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서 오세요, 땅짐승이시여. 우리의 많은 감사에 귀기울여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강함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야생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와일드 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면, 와일드 원들은 어린 동물에게 집을 지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살이 우리의 살을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 몸은 정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뺏은 것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땅짐승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바로 땅짐승입니다. 모두 같습니다.”

와일드 원들은 기다렸다. 동물이 원하면 달려 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 길을 열었다. 그 짐승은 도망가지 않았다. 사이드맨은 창으로 짐승을 단숨에 찔렀다. 짐승이 땅 위로 쓰러질 때, 와일드 원들은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다.

“죽은 거야?” 로라가 물었다.

슬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것만 잡는 거야. 와일드 원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땅에서 얻어, 그것으로 충분해. 땅짐승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로 와. 그뿐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죽일 수 있어?”

슬로는 어리둥절해 보였다. 슬로는, 이 질문이 대답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큰 분홍색 손바닥에서 길게 뻗어난 손톱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는 땅짐승과 살아. 우리가 땅짐승이야. 모두 같잖아.” 슬로는 상관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슬로는 로라를 자리에 둔 채로, 짐승을 옮기는 와일드 원들과 고기를 장만하는 그르부위먼들을 도우려고 후다닥 뛰어갔다. 로라는 스펬혼에게 천천히 돌아갔다.

와일드 걸 한명이 스펬혼 곁에서 로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주먹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다. 로라도 주먹을 와일드 걸에게 뻗었다.

“내가 받은 이름은 고사리, 편이야.” 와일드 걸이 말했다. “나는 네 자매친구야.”

“내 이름은 로라야”

“걸차일드이지.” 편이 미소 지었다. 그게 받은 이름이잖아.”

“그래, 걸차일드. 하지만 나도 적당한 와일드 원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거?” 편이 물었다.

“한 낮의 빛인 데이라이트,” 로라가 대답했다.

편은 배를 잡고 웃었다. “데이라이트라고? 너랑은 완전 판관인 이름이잖아. 너는 한밤의 아이, 미드나이트 걸이잖아, 확실해. 모든 신비로움!” 편은 여전히 깔깔대며 뛰어갔다. “열매를 따기, 베리게더가 도움이 필요하데! 같이 가자.”

로라는 편을 바라보며 자리에 서있었다. *미드나이트*. 그 이름이 종소리처럼 기억 저 편에서 울렸다. 그 소리는 아주 오래전 그림자로 가득하던 빛그림자때부터 온 듯 했다.

슬로는 로라와 편을 한참 후에 찾았다. 둘의 손과 입에는 빨간 열룩자국이 나있고, 나뭇잎으로 엮은 바구니는 열매가 가득했다.

“이제, 귀향 환영 배채우기가 시작 될 거야.” 입맛을 다시며, 슬로가 둘을 불렀다. 편과 로라는 바구니를 들고, 슬로와 함께 식사하는 장소로 뛰어갔다. 이미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모닥불을 사이로 땅이 들썩거리는 드럼소리를 울렸다.

와일드 원은 준비된 진수성찬 주위에 여기저기 둥글게 모여앉아 있었다. 아이들을 안은 채, 와일드 우먼들은 한쪽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와일드 걸들이 앉아있었다. 로라와 편은 플라이트와 로라가 알고 있는 다른 와일드 걸인 재투성이 애쉬 옆에 앉았다. 슬로는 뛰어가 페스트팟 옆에 앉았다. 와일드 맨들은 평평하게 편 손바닥으로 땅을 두들겼다. 모두 땅을 두들기자, 와일드 보이들이 동시에, 손가락으로 훨씬 빠르게 땅을 쳤다.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 땅을 두들기는 와일드 원들은 몸을 숙이거나 흔들고, 고개를 흔들거나, 긴 머리를 쳐들어 등 뒤로 넘겼다. 풀잎 그래스라는 와일드 우먼이 일어나, 뱀 같은 팔을 구부리고 꼬면서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다른 와일드 우먼도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추는 와일드 우먼들은 바람이 빠르게 뚫고 지나는, 큰 수풀로 가득한 들판처럼 보였다.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차로 거세져, 비가 오는 날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춤은 점점 빨라졌다. 와일드 우먼과 와일드 걸이 함께 춤을 추었다. 그때, 올드 우먼이 소리를 질렀다. 울리던 소리는 부드러운 비처럼 잦아들었다. 춤을 추던 무희들도 자기 자리로 천천히 돌아가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소리 없이 땅위에 앉았다.

“월더니스에게 감사의 말을 합시다.” 올드 우먼이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워터

가 한가락씩 노래를 할 때마다 와일드우먼들, 와일드 걸들, 와일드 보이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와일드 맨들이 메아리처럼 따라 불렀다. 여러 개의 목소리가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면서 노래 가사 속에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월더니스는 반짝이,
그림자가 순식간에 변하듯이 빛나니,
물고기들 비늘 같은 번쩍이는 빛
타오르는 연기 같은 희끗희끗 빛
무지개를 고이담은 이슬방울 빛
얼음의 남빛, 태양의 금빛, 한낮의 흰빛.....”

다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사 하나하나가 깜빡였다.

“반짝이... 물고기... 연기... 가랑비... 얼음이... 불빛이...”

마지막 구절을 부르는 목소리가 잦아들자, 올드 우먼이 일어섰다. 올드 우먼은 피곤하고 지쳐있었다. 하지만 호박색 음료가 든 조가비에 손을 뻗어 태양을 향해 높이 들어올렸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안으로 붓자, 주스가 그녀 얼굴에 흘러서 뺨과 목을 간질였다. 모든 와일드 원들이 태양을 향해 조가비를 들어올려, 태양 빛과 온기를 받아들이며, 입안으로 부었다. 와일드 원들은 웃고 떠들며, 입술을 훔치고 혀로 턱을 닦았다. 그 주스를 처음 맛본 것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활아먹었다.

와일드 원들은 빈 잔을 던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씹느라 잠시 동안 잠담이 멎었다. 로라는 올드 우먼을 보았다. 올드 우먼은 한 쪽으로 기어가서 무릎을 끌어 올린 채, 웅크리고 누워, 포갠 두 팔위에 턱을 괴고, 혼자 흥얼거리며 와일드 원들이 음식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스펬혼이 곁으로 와서 배를 깔고 앉자, 올드 우먼은 손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 앉았다. 로라는 다른 와일드 원처럼 두 손 가득 음식을 담은 후에 올드 우먼 곁으로 갔다. 올드 우먼은 꾸벅거리며 코를 골았다. 그녀는 매우 즐린 듯 보였다.

“그러니까,” 올드 우먼이 말했다. “걸차일드, 여기 있게 되어 마음기쁨이 있니?”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라는 월더니스에서 기분이 어떤지 표현할 길이 막

막했다. “여기는 영원장소예요.” 로라가 와일드 원들이 말하는 투로 입을 뿔었다. “항상 평화가 있네요. 여기서 마음편함을 느껴요.”

올드 우먼은 기뻐서 대답했다. “이제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구나. 좋아.”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가 와일드 원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왔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다했다.” 올드 우먼은 하품을 크게 하며, 고양이처럼 혀로 입술을 핥았다. “하지만 난 그냥 지친 늙은이야. 이제 가족으로 된 오두막으로 기어 들어가야겠어.” 스펬혼이 올드 우먼 쪽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킁킁거리며 웃었다. “아니야, 이 야수친구야.” 그녀가 말했다. “이 늙다리, 올드 본에겐 네 등에 올라탈 힘이 남아 있지 않구나.” 올드 우먼은 팔과 다리로 스스로를 지탱하며 일어났다. “걸차일드, 별이 반짝일 때 오면, 지혜의 말을 네게 줄게. 그리고 나면, 난 땅 위에서의 마지막 잠을 위해 눈을 붙일 수가 있을 거야.”

올드 우먼은 기어갔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드 우먼.”

올드 우먼은 뒤를 돌아보았다. 로라는 그녀의 바람에 날리는 하얗고 긴 머리카락 사이로, 파리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다. “글쎄, 내가 보기에에는 네 마음구멍으로 그 ‘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올드 우먼이 말했다.

로라는 올드 우먼이 나무 밑에 낮게 걸린 가죽 텐트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 가득 음식을 잡아들고, 손바닥을 빠는 와일드 원들은 올드 우먼이 사라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로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로라는 저녁노을이 어두컴컴한 보랏빛으로 변하고, 붉은 불빛처럼 빛나던 해가 숲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배가 부르고 트림을 하는 와일드 원들은 식사하는 곳을 떠나서 그들의 가죽오두막으로 졸린 몸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다. 어떤 와일드 원들은 꺼져가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나른하게 콧노래를 부르거나, 드러난 이빨 사이로 휘파람을 불거나, 가느다란 풀잎으로 바람소리를 내었다.

질은 남색의 하늘에 피어나는 꽃처럼 별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그 별들은 크고 뚜렷하게, 하얗거나, 피처럼 빨갛거나, 청록으로 빛났다. 그 별들은 불꽃들의 유희처럼 휘휘 돌면서 땅으로 쏟아 질것만 같았다. 로라는 찬란하게 빛나는 곤충 떼처럼 깜박거리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누워있었다. 그 때 그별들 사이로 크

고 검은 형체가 큰 날개를 천천히 끊임없이 흔들면서 나타났다. 그것은 조용한 캠프 주위를 맴돌면서, 로라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별빛과 모닥불사이에서 로라는 그것의 붉고 너털너털한 날개와 파랗고 긴 꼬리깃털과 호박색의 눈을 볼 수 있었다.

“워리오워리어다!” 그녀는 생각했다. 와일드 원의 수호신.

그 새는 날개를 부채꼴로 펼치고 캠프를 향해서 활공하기 시작했다. 그 새는 들판 주위를 떠돌면서 먹이를 찾듯이, 고요하게 웅기중기 모여 앉은 가죽 오두막 주위를 떠다니다, 잠시 후, 올드 우먼의 은신처 위에 있는 나무에 내려앉았다. 그 새는 너털너털한 날개를 접고, 꼬리깃털을 부드럽게 펼럭였다. 그래서 꼭 장대 중간쯤에 걸린 깃발이나 전단지처럼 보였다.

로라는 슬로가 동굴에서 했던 이야기 생각이 났다.

“그 새가 내려앉으면 슬픔시간이 오는 거야, 확실해.”



13

마이티 하이의 죽음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올드 우먼의 텐트는 나무기둥에 펼쳐져 있었다. 바닥은 온통 강렬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고사리와 나뭇잎으로 덮여있었다. 로라는 바닥을 기어가서 자고 있는 올드 우먼의 곁에 몸을 쭈그리고 앉았다. 올드 우먼은 모피를 덮고, 두 주먹을 목 아래 묻고 웅크린 채 자고 있었다. 올드 우먼을 보니 로라는 슬로가 땅짐승을 사냥할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우리는 땅짐승들과 살아. 그리고 우리는 땅짐승이야. 모두가 하나야.”

올드 우먼은 눈을 깜빡이며 떴다. 그녀는 로라를 곁으로 더 가까이 당기려고 손을 뻗었다.

“난 이 텐트가 맘에 들어요.”로라가 올드 우먼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숲과 말냄새가 나요.”

“오는 아침에는 네가 사는 곳이 되어 있을 거야,” 올드 우먼이 로라에게 말했다. “와일드 원들이 내 마지막 영원잠을 위해 나를 꽃으로 치장하게 되면 말이다.”

로라는 오싹해졌다. 하지만 올드 우먼의 손은 따듯하고 부드러웠다.

“결차일드, 너는 곧 와일드 원들의 고귀한 마이티 하이가 될 거야. 마음무거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 알겠지.”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마르고 다가왔다. 올드 우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바람소리처럼 낮고 구슬프게 들렸다. 로라는 말을 잘 들으려고 올드 우먼에게 몸을 기울였다.

“모든 와일드 원 가족은, 워터라는 와일드 우먼을 가장 사랑한다. 그녀는 따듯한 심장을 가진 와일드 우먼이야. 그녀가 너를 잘 보살펴 줄 거야.”

“네, 알아요. 올드 우먼.”

“웨이파인더에게 네 안전을 돌려달라고 해.”

“그렇게요.”

“그리고 큰 마음우정을 나눠줄 녀석이 있다. 슬로. 믿음직한 슬로.”

올드 우먼의 눈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로라 손을 붙잡을 힘이 없었다. “하지만 플라이트라는 아이는 두려워해야한다. 그 애가 스펠혼을 훔칠 수도 있단다. 돌봐.....”

올드 우먼의 눈꺼풀이 다시 감겼다. 그녀는 모피 아래에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녀는 그만 쉬고 싶었지만 로라는 알고 싶은 것들이 남아있었다.

“올드 우먼, 왜 플라이트를 싫어하세요? 그 애는 왜 절 싫어해요?”

올드 우먼은 잠시 생각을 하며 입술 사이로 숨을 ‘푸우’하고 불었다. 그녀는 뼈가 앙상한 어깨를 으쓱했다. “마이티 하이들이 물고뜯는싸움같은 거야. 그게 이유지. 플라이트는 자기 권리를 네가 뺏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로라가 말했다. “플라이트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결차일드고, 그녀가 리더가 되어야하는 거잖아요.”

올드 우먼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비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지. 오래전에 플

라이트는 우리의 마이티 하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신비로웠지. 그 특별함이 마이티 하이가 될 힘을 그녀에게 주었다. 플라이트는 그 힘을 잘못 사용했어,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어. 하지만 플라이트는 눈 가리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 그 힘이 다 사라졌는데도 말이야. 내 것처럼..... 내 힘처럼.”

올드 우먼은 로라의 팔을 움켜잡았다.

“너도 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 걸차일드. 네 마음눈에 말이야. 너는 어둠속에서도 볼 수 있지. 밤의 눈, 나처럼 미드나이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게 마이티 하이를 물려주는 거야. 와일드 원들을 안전하게 지켜다오. 내게 영원맹세를 해다오.”

“네 그럴게요.”로라가 대답했다. 로라의 목이 종이처럼 빠짝 타들어갔다.

올드 우먼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뭇잎 침대에서 잠에 빠져 들었다.

“더 이상 마음슬픔을 갖지 마. 난 이제, 그냥 심장이 녹초가 되어있는 늙다리 올드 본이다. 알겠지. 그만 영원잠에 빠지고 싶구나. 그것뿐이야. 사이드맨을 불러주렴.”

그녀는 모피를 바싹 끌어 당겼다. 하얀 머리카락이 얼굴에 휘 감기고, 선잠에 빠져 든 것처럼 코를 낮게 씨근거렸다. 로라는 올드 우먼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안녕, 올드 우먼,” 로라가 속삭였다.

로라는 기어서 텐트를 나와 사이드맨을 찾아 나섰다.

살을 에는 듯이 추운 밤이었다. 브룩 부인은 샘이 로라가 돌아오는지 살피러 매일 밤 서있는 정원으로 나갔다.

“샘, 아무런 기미도 없구나.” 그녀가 샘에게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몸을 녹이게, 여기서 기다린다고 로라가 오지 않아.”

“아마도, 브룩 아줌마. 로라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만 들어가자.”

“아줌마, 제가 퀴니를 데리고 로라를 찾으러 가보면 안 될까요?”

“이젠 희망이 없어. 로라를 찾지 못 할 거야.”

그녀는 너무 혼란스러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샘에게서 돌아섰다.

주방에는 퀴니가 로라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구슬프게 울었다.

“사이드맨!” 로라가 소리쳤다. “사이드맨. 올드 우먼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요.”

늙은 와일드 맨은 불가에 눈을 크게 뜬 채로 누워있었다. 로라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이드맨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도 않은 채, 머리를 숙이고, 긴 팔을 옆으로 흔들며 텐트로 갔다. 스펀이 로라에게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낮고 처량한 소리를 내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려야지, 그렇지?”로라가 말했다.

로라는 부드러운 잔디위에 자리를 잡았다. 스펀은 그녀 곁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로라의 머리위에 나무에는 위리오위리어 날개를 접고 앉아있었다. 그 사이로 바람이 썹썹 불었다. 와일드 윈 몇이 몸을 일으켜 올드 우먼의 텐트로 살금살금 기어갔다. 꺼진 모닥불에서 나온 재를 얼굴과 팔 그리고 다리에 문질러, 어중간한 불빛에서는 먼지투성이 유령처럼 보였다. 와일드 윈들은 애도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주 낮고 부드럽게 달래듯이 갈대피리를 불기도 했다. 로라는 그 음악이 근심 없이 잠들라고, 올드 우먼을 위해 울리는 자장가라는 것을 알았다. 로라는 따듯하고 부드러운 스펀을 베게 삼아 눈을 감고 누워 잠들었다.

로라의 마음눈 안에 어둠이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네 개의 형체가 깊은 계곡의 경사로를 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인간들의 집이 오렌지 색 눈으로 빛났다. 두 개의 키가 큰 형체는 손을 입가에 둥글게 말고 무언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름, 웃기고도 이상한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다른 형체하나가 나타났다. 작은 몸체에 맑은 목소리를 지녔다. 그리고 그들 주변을 땅짐승이 네발로 뛰어다녔다. 무슨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 머리를 거의 바닥에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짐승은 나무그늘로 재빨리 달렸다. 나머지 형체들은 그쪽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로라는 별안간 깼다. 스펀은 목을 높이 든 채, 곁에 서있었다. 스펀은 큰소리로 울었다. 대낮이었다. 하늘은 초록으로 덮여 있었다. 위리오위리어가 그녀 머리 위에서 누더기 같은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와일드 윈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날카롭게 퍼졌다. 사이드맨이 모두를 조용하게 했다.

“올드 우먼이 홀로 방랑을 떠나오.” 사이드맨이 말했다.

와일드 원들의 목소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어둡고 부드럽게 오고 갔다.

올드 우먼이 홀로 방랑을 나서네
한 해의 끝자락에 혼란스런 이파리가 흩어지고
싸늘한 얼음이 심장을 동여매어 싸락눈이 사납다
올빼미 날개 끝에 맺힌 서리 갈가마귀 얼은 날개에 서리고
인생의 근심 झा아내는 칼날처럼 바람이 부는데
하얀 백조 길로 집에 가는 햇살노래 향기롭다
거기서 올드 우먼이 홀로 방랑을 나서네.

로라는 눈물을 훔치며 앉아있었다. 워터가 그녀의 곁에 앉았다.

“걸차일드, 꽃 따는 것을 도와주었으면 해서 왔어.”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로라가 물었다. “올드 우먼이 돌아가셨나요?”

워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영원잠을 위해, 마지막 잠에 들었어. 바닷가에서 곧 작별말을 해야 할 거야. 웨이파인더와 슬로가 다른 와일드 맨들과 배를 만들러 갔어. 올드 우먼은 그 배로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와일드 우먼들과 함께 가자.”

로라가 워터와 도착하자, 와일드 우먼과 와일드 걸은 로라를 따라갔다. 로라를 부끄러운 듯이 바라보며, 손을 뻗어 로라를 만지거나, 그녀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가락으로 볼을 가볍게 건드렸다. 워터는 물러서라고 혀로 ‘쫂쫂’ 소리를 냈다. 일행은 꽃과 향으로 가득한 넓은 들판에 멈춰서, 자리를 잡았다.

“대지의 꽃, 어스 플라워는 땅짐승들과 같아,” 워터가 로라에게 말했다. “모두 와일드 원들에게 가슴기쁨을 줘. 그리고 꽃을 딸 때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따야 해. 더는 안 돼. 와일드 걸들이 꽃을 따오면 와일드 우먼들이 두벌의 망토를 만들 거야. 하나는 올드 우먼에게 작별말을 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하나는 네게 입힐 거야. 오늘밤, 달이 오면, 걸차일드, 고귀한 마이티 하이 환영에서 꽃 망토를 입게 될 거야.”

와일드 결과 와일드 우먼들은 빠르게 꽃을 따고, 색을 골라내고, 두 벌의 망토를 만들었다. 로라는 두 시선이 자기를 향한다는 것을 알아서,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하나는 슬로였다. 슬로는 긴 머리를 뒤로 넘겨 널따란 나뭇잎으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눈가에서는 이전에 보았던 장난기가 사라졌다. 슬로는 잘 다듬어진 날이 있는 돌도끼를 들고, 오래 된 나무 등지를 움푹하게 만들려고 거칠게 다듬고 있는 와일드 맨들과 함께 있었다. 로라와 눈이 마주치자 슬로는 주먹을 들어 올려 인사하고, 일을 계속했다.

다른 하나는 플라이트의 시선이었다. 플라이트는 긴 풀숲에서 네다리고 기며,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땅을 보는 새처럼 밝게 빛났다.

“말해두지만,” 플라이트가 로라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얼마 남지 않았어.”

태양은 바늘 끝처럼 날카롭게 키 큰 나무 사이를 뚫고, 타오르고 있었다. 월더니스 언덕 멀리에서 워리오워리어 떼가 갈가리 찢어진 거대한 날개를 흔들면서 날아왔다. 와일드 원들에게 슬픔과 위험을 알리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렸다.



14

올드 우먼을 위한 비가

와일드 우먼들이 있는 곳에서 플라이트는 길게 늘어진 나뭇잎들이 덮여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조금 뒤에, 로라는 네발로 가는 게 더 쉬워서 성큼성큼 기어 그녀를 따라갔다. 로라는 플라이트가 왜 자기를 원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올드 우먼이 플라이트 너랑은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 로라가 말했다.

플라이트는 머리를 한쪽으로 치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올드 우먼은 죽었잖아. 맞지? 이제, 내말을 귀담아 들어, 걸차일드. 넌 아직도 인간족 땅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거 아냐?”

로라는 자신을 살폈다. 여기 월더니스에서, 그녀는 행복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곳에 존재했다.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작은 아픔이

있었다. “잘 모르겠어.” 로라가 말했다. “내 기억들은 나를 슬프게 해, 그것뿐이야.”

“내 생각구멍에 너를 위한 환상적인 계획이 있어.” 머리를 툭툭 치면서 플라이트가 이야기 했다. “어둠이 내리면 작별의식이 있어. 네가 용감하다면 너는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될 거야. 나를 믿어. 그리고 잘 생각해봐.”

플라이트는 재빠르게 도망갔다. 스펬혼은 나뭇잎들 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내밀면서 부드럽게 헹헹 거렸다. 로라는 스펬혼이 있는 곳으로 기어 나왔다. 로라는 스펬혼의 목에 팔을 둘렀다.

“스펠혼, 나는 갈 수 없어, 그렇지?” 그녀가 속삭였다. “ 나는 올드 우먼에게 약속했어. 게다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나랑 같이 인간족 땅으로 가줄래?”

스펠혼은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코를 붙여 거칠게 숨을 쉬었다.

“너는 우리 집 정원으로 절대 오지 말아야 했어. 너의 향기를 내가 맡도록 하지 말아야했어.”

스펠혼은 땅을 앞발로 찼다.

“내 마음의 눈 비밀을 숨겨 두는 장소로 와 줄래?”

로라가 그에게로 다시 다가가려고 하자, 스펬혼은 뒤로 물러서며 뒤를 돌아 땅을 박차며 달려 가버렸다. 로라는 달리면서 스펬혼의 넓고 유연한 근육들과 도약하는 긴 다리와 자랑스럽게 높이 치켜든 머리를 바라보았다. 스펬혼은 해변가를 전력으로 달려 나가면서 연기 같은 모래를 흩뿌렸다. 그리고 땅짐승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내가 어떻게 스펬혼을 떠날 수가 있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이미 내 전부야.”

멀리에서, 꿈속에서 나는 듯한 소리가 웅웅거리며 또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다 건너서 왔다. 그 소리는 기억저편에서부터 왔다. 와일드 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었다. 머리를 젖히며 귀를 기울였다. 워리오워리어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전쟁의 깃발 같은 누더기 날개를 펼치면서 보급자리에서 날아올랐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없이 하늘을 빙빙 돌았다. 그 울부짖는

바람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낮은 흐느낌으로 떨어졌다. 웨이파인더와 사이드맨은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파룩힐로 올라갔다.

“저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웨이파인더가 물었다.

늙은 와일드맨은 투덜거렸다. “저것은 인간족의 땅짐승 소리야. 만약에 그것이 인간족을 월더니스로 데리고 온다면 우리는 확실히 패배하게 될 거야. 우리 와일드윈의 인생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지. 확실해.”

그들은 주위를 맴돌고 있는 워리오워리워들을 바라보았다.

“만약 땅짐승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해도 워리오워리워들은 땅짐승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거예요.” 웨이파인더가 웃었다.

사이드맨은 웨이파인더를 주먹으로 가볍게 치고 바위를 기어 내려왔다. 하지만 웨이파인더는 태양 빛줄기가 내리는 바다 너머를 바라보면서 마음고통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는 오래전 저 멀리에 와일드 윈들이 스펬혼을 찾아 다닐 때 인간족 집들로 자신들을 이끌었던 깊은 계곡 위에 서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 때 느꼈던 슬픔을 기억하면서 그 슬픔이 그의 심장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했었는지 기억했다. 언젠가 아마도 와일드윈들과 인간족들이 서로 같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는 짝 쥘 주먹을 맞대어 비볐다. “아직은 아니야.”

로라도 그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 깊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집에서 들던 소리였다.

어스름이 내려앉을 때 쭈, 두 벌의 망토가 준비되었다. 로라는 올드 우먼 망토에 꽃을 엮는 것을 도왔다. 그것을 짙은 자두색으로 염색해서 나뭇가지에 넓게 펼쳐 말렸다. 날개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밤처럼 어둡고 잘 익은 과일 향이 났다.

위터는 망토를 로라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녀에게 갔다.

“여기 있어, 걸차일드.” 위터가 미소 지었다. “너의 아침놀망토야. 비단처럼 부드럽고 꽃잎처럼 달콤해. 모두가 새벽을 나타내는 색들이야.” 그 망토는 물위에 비친 꽃들처럼 섬세해 보였다. 마치 조금만 건드려도 그 색깔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로라가 팔을 펼치자 위터가 로라의 어깨에 망토를 걸쳐주었다. 망토는 시원하고 향기로웠다. 로라가 웃으면서 빙빙 돌자 망토가

나풀거리며 흔들렸다. 와일드우먼들은 로라의 주변에 물려들면서 잘 되었다고 서로 이야기하며 크게 미소 지었다. 와일드우먼들은 그들의 광대뼈에 여러 색의 선을 그리면서 얼굴을 장식했다.

빛이 희미해지자, 모든 일이 아주 빨리 진행되었다. 남자들과 소년들은 숲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움푹하게 판 나무둥지를 들고 나왔다. 뱃머리에는 하얗게 칠해진 유니콘의 머리가 조각되어 있었다. 그들은 스펬혼을 로라에게 데리고 와서 로라가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왔다.

“와일드윈의 아이여,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워터가 속삭였다. 워터는 망토를 잘 정리해서 스펬혼 양옆으로 펼쳐 늘어뜨렸다. 로라는 워터가 짙은 자두빛의 망토를 보트위에 펼쳐 놓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긴 마지막 잠에 고요히 빠진 올드 우먼이 있는 것을 알았다.

젊은 와일드맨들은 북을 천천히 치기 시작했다. 사이드 맨은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와일드윈들을 이끌려고 앞으로 나섰다. 깊어진 배의 무게로 등이 굽어진 와일드윈들이 그를 따랐다. 그리고 로라와 스펬혼이 그 뒤를 따랐다. 로라의 뒤에는 나머지 와일드윈들이 머리에서 떠오르는 노래들을 부르거나 스펬혼을 찬양하는 멜로디를 울리면서 따라갔다. 그 뒤로 어두운 꽃들을 갈기에 맨 말들이 느린 속도로 따라다거리며 따라갔다.

이 행렬은 바닷가에서 멈췄다. 배가 모래위에 내려지자 파도가 배의 몸체를 때렸다.

사이드맨은 모두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하나씩하나씩 와일드 윈들이 그의 말을 따라서 읊었다.

“나, 사이드맨은,” 그리고 “나, 웨이파인더는,” “나, 워터는,”

“그리고 나, 슬로는,”

“홀스맨, 플레임파인더, 그루브우먼, 송걸, 플라이트는”

“그래스, 에쉬, 패스트풋, 편.”

“그리고 모든 와일드 윈들은 마음 깊이 울고 있습니다.....”

“.....작별의 인사를 위해서 이 부드러운 바닷가로 왔습니다.”

보트를 들고 온 와일드 윈들이 다시 허리를 굽히고 나무 둥지를 밀자, 그 배는 삐걱거리는 한숨소리를 내며 파도위로 조용히 나아갔다. 와일드 윈들은 목이

메여 신음소리를 내었다.

로라는 무엇인가 그녀의 망토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플라이트였다.

“걸차일드, 지금이 기회야.” 플라이트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플라이트, 너는 슬프지도 않은 거야?”

“너의 눈은 눈물로 가득 채워도 돼, 하지만 너의 귀는 나의 현명한 말로 채워져야 해. 내 마음속에 있는 느낌은 와일드 원들이 다시는 인간족의 땅으로 가선 안된다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서 마음기쁨이나 편안함을 찾을 수 없어. 또한 나의 다른 마음은 네가 월더니스에서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시간의 너의 시간과 달라. 우리 와일드 원의 방식은 너의 것들이 아니야.”

로라는 슬픔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이상한 짐승이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를 태운 스펠혼이 머리를 젖히면서 모래위에 발을 굴렀다. 로라는 누더기 날개로 하늘을 지나가는 커다란 감시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꽃망토를 내게 줘.” 플라이트가 재촉했다.

“왜?”로라가 갑작스럽게 분 찬바람이 그녀를 오싹하게 만든 것처럼 망토를 여미었다.

“왜냐하면 꽃망토는 월더니스에 속해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꽃망토가 없어야 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

스펠혼이 히힝 울었다.

“그럴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플라이트.”

노래가 더 크게 울렸다. 플라이트는 로라의 손을 잡고는 그녀를 끌어내리려고 했다. “배가 불에 타기 시작하면 와일드 원들의 모든 시선은 배를 향할 거야. 아무도 너를 보지 않을 거야. 그 때 집으로 달려가.” 로라는 와일드 원들이 플레임파인더가 만든 모닥불에 날카로운 화살을 집어넣으려고 모여 들었을 때 불빛에 비친 와일드 원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와일드원들은 어떻게 해?”로라가 물었다.

“마이티 하이 가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

“내가 마이티 하이 가 될 거야.” 플라이트는 손뼉을 치며 로라 주위에서 춤을

추었다. “내가 바로 그야. 나는 잘 알고 있어. 나에게 꽃망토를 줘. 그러면 와일드 원들은 내가 너인 줄 알거야. 그리고 나에게 환영인사를 하게 될 거야.”

로라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와일드 원들은 그럴 거야.” 플라이트가 고집을 피웠다. “그리고 네가 사라지면 내가 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플라이트는 로라의 어깨에서 망토를 벗기려고 애썼다.

로라는 망토를 꼭 움켜쥐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둬, 플라이트. 저리 가버려.”

스펠혼이 발을 구르자 플라이트의 얼굴에 모래가 튀었다. 하지만 와일드 걸은 로라를 잡고 늘어져있었다.

불꽃이 바닷가에서 타올랐다. 사이드맨은 화살을 모닥불 속으로 집어넣고 와일드맨들을 다시 둘러보았다. 노란 불꽃 사이로 사이드맨은 유령처럼 보였다. 사이드맨은 눈 주위를 하얀색으로 동그랗게 칠했다. 그래서 그의 눈은 거대하고 비탄에 빠져 보였다. 그는 가슴을 활짝 펴서 활시위를 당겼다.

“불화살을 물거품 너머 불새처럼 쏘아 올려라!” 그가 소리쳤다.

“화살로 배를 맞추어 재로 다 타오르게 하자.” 플레임파인더가 말했다.

“올드 우먼이 바다에 고래 같은 파도 위를 영원히 떠다니게 하소서.”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지금이야!” 사이드맨이 말했다. “활을 쏘.”

불화살의 섬광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낮은 소리를 냈다. 물위에 뜬 올드 우먼이 있는 나무배 껍질을 맞췄다. 하얀 유니콘이 조각된 뱃머리가 번쩍이며 빛이 났다.

모든 와일드 원들은 바닷가에 모여들어 배가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로라와 플라이트는 그늘진 평지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만약에 네가 이번 기회를 잃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플라이트가 속삭였다.

하지만 로라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직 알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플라이트, 내게 이것만 말해줘. 왜 올드 우먼이 너를 싫어했던 거야?”

플라이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 가족 중 유일한 여자아이야. 나는 마이티 하이의 재능을 받았어.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그것을 잃게 되었지.”

“어떻게?” 로라는 물고뜯는싸움이 있던 밤에 슬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
“플라이트, 내가 문베트에게 납치를 당했던 바로 그 와일드 원이야.”

플라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어 다니는 아기였을 때 문베트들이 나를 납치해서 동굴에 숨겼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스펬혼은 나를 찾느라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지. 하지만 스펬혼이 나를 찾았을 때는 나의 마이티 하이의 힘은 사라졌어.”

로라는 플라이트의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자신이 플라이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가엾은 플라이트. 너는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없구나.”

“아마도 그 기억은 내 마음구멍 안 어딘가에 깊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찾을 수 없어. 올드 우먼은 나의 신비로운 힘이 나빠졌다고 말했어. 그리고 내가 와일드 원들의 마이티 하이가 될 수 없다고 얘기 했지. 하지만 나는 마이티 하이와 되고 싶어. 되고 싶다고.”

불타오르는 배가 짙은 녹색의 바닷물 위에서 너울거렸다. 로라는 자기를 찾으려는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 슬로를 보았다. 그녀는 웨이파인더와 워터가 서로를 위로하느라 등 뒤로 팔을 두르고 서있는 것을 보았다. 로라는 웨이파인더와 워터의 가족이었다. 마이티 하이 없이 어떻게 와일드 원들이 살아간단 말인가?

“나는 할 수 없어.” 로라가 말했다. “나는 올드 본에게 약속을 했어. 플라이트, 너에게 내 자리를 주지 않을 거야. 네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말이야. 너는 아마 와일드 원들에게 쓸모가 없을 지도 몰라. 인간족이 여기로 와서 월터니스를 쓸어버릴 거야. 확실해.”

플라이트가 흐느끼며 울었다. 그녀는 주먹으로 눈을 비비면서 앞뒤로 흔들거렸다.

“만약에 네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로라가 말했다. 그녀는 스펬혼의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로라는 눈을 감고 짙은 녹색 바다위에서 빨갭게 타오르는 불꽃의 기억을 지워버리려 했다. 로라는 마음의 눈에 떠오르는 형상에 집중하며 어둠속을 바라보면서 바닷가로 걸어갔다. 물거품이 그녀의 발을 훔쳤다. 그림자와 형체들이 그녀의 마음 안에서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깊은 진흙탕을 건너는 것 같았다. 점점 플라이트의 형상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로라를 공포로 오싹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플라이트의 미스터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것이었다.

“나는 너를 볼 수 있어!” 로라가 숨이 차서 말했다.

“하지만 너는 눈을 감고 있잖아.” 플라이트가 공포로 속삭였다. “눈을 떠, 걸차일드!”

하지만 로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플라이트의 형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선명했다. 만약 로라가 눈을 뜨거나 그 형체가 어떤지 말을 하게 된다면 그 형체는 아마도 영원히 희미하게 사라지리라는 것을 로라는 알고 있었다. 로라는 두려웠지만 그 형체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알 때 까지 살펴봐야만 했다.

마음의 눈 안의 소용돌이 속에서 로라는 어두운 동굴을 보았다. 문배트가 가죽 날개를 펼치고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동굴의 축축한 바닥에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있었다. 그 아이는 플라이트였다.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문배트 하나가 천장에서 날아 내려와 어린 플라이트를 등에 태웠다. 그 문배트가 천천히 위로 날아가자 어린 플라이트는 문배트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몰아대며 동굴 밖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다른 문배트들이 그들을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갔다. 문배트들은 빙빙 돌면서 하늘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밤새 배드우드의 검은 나무들로 향했다. 문배트들이 날개 짓을 하자 날개에서 나온 빛이 땅을 밝혔다. 파리한 생명체가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문배트들이 그 생물에 가까이 돌진하자 우두머리 박쥐위에 올라탄 어린 플라이트는 흥분에 차서 소리를 질렀다. “죽여라!” 플라이트가 소리쳤다. “유니콘을 죽여버려!”

로라는 눈을 뜨고 플라이트를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문배트에게 납치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네가 문배트에게와 있기를 원했잖아.”

플라이트는 로라에게서 약간 물러섰다. 플라이트의 눈은 비웃음으로 반짝였다. “문배트들은 날짐승친구들이지.” 플라이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나쁜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월더니스의 새, 워리오워리어랑 날아갈 수 도 있었어. 그게 너의

신비로움이니까.” 로라가 천천히 말했다. 비밀스러운 일을 속삭이는 올드 우먼의 목소리가 머리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대신 너는 문배트랑 있는 것을 선택했어. 이제 알겠어, 플라이트. 네가 내 자리를 빼앗으면 너는 와일드 원들을 죽음으로 이끌 거야.”



15

마이티하이의 싸움

그 불꽃은 바닷물위에서 촛불 같은 빛을 냈다. 그리고 와일드 원들은 떠나가는 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사이드맨이 몹시 거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나이든 마이티 하이는 영혼의 잠속으로 빠져 들었소. 이제 새로운 마이티 하이를 맞아야 할 시간이에요.”

“여자아이가 어디 있지?” 웨이파인더가 물었다. “스펠혼이 혼자 서있네”

슬로는 로라가 플라이트와 있던 것을 보았다. 그는 로라의 꽃망토가 해변가 저 멀리에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웠다.

“저 해변 가로 그 애를 찾으러 가야겠어요.” 슬로가 말했다. 슬로가 달려갈 때 모래를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슬로는 스펬혼이 따라오는 것을 알았다. 곧 유니콘은 슬로를 앞질렀다.

플라이트는 로라를 이끌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에서 있었다. 워리오워리 워들은 와일드 원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느끼고 소리 없이 그들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녔다. 워리오워리워는 부리를 벌린 채 날카로운 눈을 반짝였다. 스펬혼은 바닷물로 침병 뛰어들었다. 로라는 스펬혼에 부드러운 털이 그녀의 뺨에 닿았을 때 목이 매여왔다.

“걸차일드..... 슬로가 불렀다.”

“슬로, 나는 준비되었어.”

로라는 슬로에게로 뛰어갔다. 슬로는 그의 손바닥으로 이마를 때리면서 그가 로라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라는 웃으면서 스펬혼의 등 위에 올라탔다. 유니콘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뒷다리를 힘껏 찼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전력으로 달렸다. 슬로는 로라에게 기다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따라 뛰어갔다. 플라이트는 고개를 숙인 채 모래 위에서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갔다.

“저기 마이티 하이가 오신다!” 웨이파인더가 로라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어서 오소서!” 와일드 원들이 소리쳤다. “어서 오소서!”

와일드 원들은 로라를 둘러싸고 무리지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올드 우먼에 대한 깊은 슬픔을 뒤로 한 채, 의논장 근처에 플래임파인더가 지핀 커다란 모닥불가로 그녀를 이끌었다. 노래와 축하는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로라는 환영인사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잠이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리고 와일드 원들은 앉은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와일드 원들은 갈대 피리를 두 손으로 짝 쥘 채 연주를 하거나 하프 현을 손가락으로 뜯었다. 무용수들이 춤추는 중간 주저앉았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코고는 소리로 변했다. 하늘은 누가 깨기도 전에 검게 변했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리고 다음 달이 떠오를 때 까지 코를 고는 와일드 원도 있었다.

로라는 맨 마지막에 일어났다. 그녀는 씻으러 강가로 내려갔다. 춤을 추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내느라 다리는 아팠고 노래를 부르느라 목도 따가웠다. 로라는 강물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강물에 몸을 담갔다. 사이드맨은 로라에게 물을 튀기며 걸어갔다. 이것이 힘이 들었는지 투덜거리면서 로라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어젯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로라가 말했다.

“와일드 원들은 저녁 무렵에 마이티 하이 말이 필요하오.” 사이드맨이 로라에게 말했다. “걱정스러운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요?”로라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플라이트.” 사이드맨이 중얼거렸다. 웅크리고 앉은 곳에서 들은 플라이트가 와일드 원들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로라와 사이드맨은 무슨 소리인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와일드 원들이 서로 동그랗게 모여서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다. 와일드걸은 로라와 사이드맨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몸을 웅크리고 네 발로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다.

“플라이트는 내게 싫은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라가 말했다. “그리고 내내 그럴 거예요. 플라이트는 자신을 마이티 하이라고 불려요.”

사이드맨이 코를 짹짹 거리며 말했다. “두 명의 마이티 하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두 개의 달은 바다를 반으로 가릅니다. 두 개의 해는 땅을 다 태워 없애줍니다. 이것은 월더니스의 고통의 불씨를 가져 올게 뻔해요. 확실해요.”

사이드맨은 강물을 별걱별걱 들이키고 뻗으면서 물에서 기어나갔다. 로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사이드 맨은 여전히 로라를 침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결국 사이드맨은 플라이트를 마이티 하이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 하지만 로라는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을 사이드맨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로라는 더 넓고 더 깊은 호수로 강물을 따라 헤엄쳐 갔다. 슬로와 편은 높은 바위에서 다이빙을 했다. 로라는 슬로와 편과 함께 뒤섞여서 에멜랄드 빛 물위로 연거푸 뛰어 들면서 웃었다. 그 물빛은 너무나 깨끗해서 로라가 긴 머리를 훑날리며 다이빙 바위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쳤다. 물로 뛰어들 때 로라는 날개처럼 두 팔을 활짝 펼쳤다.

“플라이트!” 와일드 걸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슬로가 소리쳤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정말로 날게 될 거야!” 플라이트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루가 지나고, 와일드 원들은 바닷가에서, 우거진 숲에서, 그리고 개울가에서 모여들었다. 와일드 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중얼거리면서 의논장에 모여 앉았다. 로라가 슬로와 편과 도착할 때 쯤, 플라이트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사이드맨은 와일드 원들에게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몸짓을 취하고 와일드 원들 중간

에 몸을 둥그렇게 말아 쭈그리고 앉았다. 이번에는 노랫소리는 없었다. 로라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슬로는 다른 와일드 보이들 사이에 가서 앉았다. 워터는 슬로를 자기 곁으로 오라고 불렀다. 워터는 슬로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슬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워터는 그의 손을 끌어 내리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슬로는 양 볼을 잔뜩 부풀리고 로라에게로 뛰어가서 그녀의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이제 곧 주먹싸움이 있어. 내가 그 펀치소년이 될 거야.” 슬로가 로라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로라가 말했다. “내가 마이티 하이로 있는 동안은 주먹싸움 따위는 없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때릴 수 있어.”

그녀가 슬로의 무릎을 주먹으로 밀자 슬로가 공중으로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사이드맨은 코를 찌근거리며 로라 옆에 앉았다. 슬로는 다시 무릎을 문지르면서 일어나 앉았다. 와일드 원들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로라는 모든 와일드 원들이 자기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로라는 긴장되기 시작했다.

“저는 환영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이티 하이로서 이것이 첫 번째 말이 될 것입니다.” 와일드 원들은 그녀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서로를 팔꿈치로 슬쩍 찔렀다. 워터가 조용히 손바닥을 쳤다. 로라는 말을 더 해야 할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이드맨을 바라보았다. 사이드맨은 무릎을 세운 채 턱을 괴며 팔꿈치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목구멍에서 불평의 소리를 내며 앉아있었다. 사이드맨은 플라이트가 의논장에서 약간 비껴나서 앉아서 등을 돌린 채 마치 지루해서 잠에 빠진 것처럼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할 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월더니스에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로라가 말을 계속했다. 와일드 원들은 투덜댔다. “제가 마이티 하이로 있는 동안 저는 모든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의 평화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와일드 원들은 중얼거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누구라도 저를 마이티 하이로 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하셔야 합니다.”

와일드 원들은 고개를 떨궜다. 어떤 와일드 원들은 발톱으로 나무나 새를 땅에 그리기도 하고 자신들의 긴 머리카 수염을 땅기도 했다. 와일드 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지금 말하세요.” 로라는 더 강력하게 말을 이었다. “이번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플라이트가 속삭였다.

와일드 원들이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췄다. 로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플라이트는 로라에게로 뛰어들었다. 플라이트는 로라 주변에서 춤을 추었다. 날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면서 로라를 당황하게 했다. 플라이트의 머리는 누더기깃털처럼 흔들거렸다. 플라이트는 다리와 팔을 휘휘 움직이면서 손가락관절을 푹푹 꺾고 혀로 딱딱 소리를 내며 침을 뱉고 웃었다. 플라이트는 빠른 불꽃이었다. 로라 플라이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빙빙 도느라 어지러웠다. 슬로는 로라 옆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싸우지 위해서 두 주먹을 꼭 쥐었다.

“가서 앉아있어.” 로라가 슬로에게 말했다. 슬로는 실망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앉았다. 그리고 다시 플라이트에게 덤빌 준비를 했다. “한방 먹여!” 슬로가 말했다.

“플라이트,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

그 와일드 걸은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머리와 팔다리를 로라에게 흔들어 댔다. 와일드 원들이 쫓쫓 거리며 혀를 차거나 한숨 쉬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서자 로라는 플라이트의 분노의 찬 원 중심에 차갑게 서 있었다. “진정하자.” 로라가 혼잣말을 했다. “나는 그녀와 싸워 이길 수 없어. 어렵잖아. 하지만 우리 둘 중 하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해. 그것은 나여야 해.”

로라는 우거진 숲 가장자리에서 히힝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서 스펬혼이 로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이 로라에게 힘을 주었다.

“만약에 네가 나를 마이티 하이로 여기지 않는다면, 네가 와일드 원들 사이에서 살게 놔두지 않을 거야.”

플라이트는 난폭한 춤을 멈추었다.

“이게 마이티 하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로라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와일드 원들은 로라가 플라이트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려

고 귀를 중궁 세워야 했다. “우리 눈에 안 띄게 살아.”

와일드 원들이 두 다리로 일어섰다. 어떤 와일드 원들은 환호하기도 했고 다른 와일드 원들은 항의하기도 했다. 와일드 원들이 그녀 주위에서 떠들어 댔다.

“플라이트를 마이티 하이로 선택한 자들은 그녀와 함께 떠나시오.” 로라는 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낮고 한결같이 하려 애썼다. “이것이 내 말의 끝입니다.”

로라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자, 주변에서 커졌던 목소리들이 계속 흘러나왔고 로라는 플래임과인더가 낮은 바위위에 만든 모닥불 가에 가서 앉았다. 로라는 그녀의 뺨속깊이 추위를 느꼈다.

플라이트는 무리에서 달려 나와 마치 공중에 멈춰서버린 새처럼 두 팔을 펼치고 한 다리를 뒤로 한 채 서있었다. 어떤 어린 와일드 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불러들이자 하나씩 하나씩 되돌아 왔다. 로라는 모닥불 불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볼 용기가 없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로라는 모래 위를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사이드맨은 플라이트를 살펴보며 서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자꾸 흔들었다. 그리고 나서 싸움에서 힘을 잃은 개처럼 돌아서서 모닥불가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웨이과인더가 맨 마지막에 움직였다. 두 주먹을 꼭 쥐고 두 눈을 감은 채 서있었다.

“이리와요.” 달래듯이 워터가 말했다.

“와일드 원들은 절대 나뉘어선 안돼. 절대로!” 웨이과인더가 말했다. “이러면 깊은 마음무거움만 있소.”

하지만 마침내 그가 왔다. 와일드 원들이 모여 앉은 의논장에는 고요와 정적만이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모닥불에서 피어나는 탁탁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잠시 후, 끔찍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플라이트가 우거진 숲 그늘에서 달려 나와, 높은 나무사이를 지나, 월더니스의 어두운 야생 심장으로 뛰어들었다. 플라이트가 사라진 이후, 그리고 한참 후에, 와일드 원들은 은신처로 들어가 밤새 피곤과 슬픔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울부짖는 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16

인간족의 방문

해와 달이 여러 번 바뀌었다. 플라이트는 월더니스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로라는 플라이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다. 로라는 월더니스의 깊은 심장부로 플라이트를 찾으러 나설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티 하이였고 플라이트의 추방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게 다였다. 여전히 로라는 슬펐다. 하루는 슬로가 홀로 앉아 있는 로라에게 왔다. 로라는 가죽 텐트 입구에 드리울 밧을 꽃으로 엮는 것에 집중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마음은 플라이트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슬로는 로라에게 가까이 기어가자 가라앉은 분위기를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로가 이마를 찰싹 때리자, 로라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너는 아직도 마음기쁨이 있니?” 슬로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이 꽃들의 모든 빛들을 볼 수 있고, 이 꽃들이 내게 행복슬픔을 어떻게 주는지 생각할 수 있어.”

그는 얼굴을 당겼다. “행복슬픔? 그러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꽃을 보여줘.”

그녀는 꽃잎이 넓은 파란색 꽃을 가리켰다. “저것은 평화의 색이야. 그리고 모든 이파리가 내게 촉촉한 풀잎의 고요함을 느끼게 해.”

슬로는 빨간 꽃들을 모아서 빙빙 돌며 춤을 췄다. “이 꽃들은 내게 날아갈 듯한 기쁨을 줘.” 그가 웃었다. “하지만 이 꽃들에는 위험도 있어.”

“그러면 이것은?” 슬로는 로라가 내민 파리한 라일락 빛 회색 꽃을 받아들였다. “이 꽃들은 너에게 침울한 침묵을 주니?”

슬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란색 꽃을 가리켰다. “저 색은 마음반가움을 줘. 이 꽃을 머리에 꽂고 다녀.”

“그러면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슬로.” 로라는 작고 하얀 꽃들을 슬로의 어깨 위에 걸쳤다. “이 꽃들은 나에게 포근함을 줘. 너는 이따금 이 꽃들을 걸고 다녀야만 해. 월더니스가 조용할때도 있어야지.”

슬로는 로라 곁에 앉았다. “그러면 이 꽃은 뭘 하는데?” 슬로는 커다랗고 입을 활짝 열고 있는 어둡고 짙은 벨벳 꽃잎을 가진 자줏빛 꽃을 집어 들었다. “이 꽃은 나를 정신없게 만들어, 이 빛들은.”

“그래?” 로라는 슬로에게서 그 꽃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깊은 꿈같다고 나는 생각해.”

“마지막 영원잠의 꿈이겠지, 그러면.” 슬로는 몸을 떨었다. “상처 입은 채로.”

그가 꺾은 꽃을 두 손으로 펴 올려서 로라에게 뿌리자, 꽃잎들이 로라의 눈과 입가에 흩날렸다.

“이제 꽃잎들이 너에게서 떨어지고 있어.” 슬로가 웃었다. “꽃빛 비.”

슬로는 월더니스 주변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패스트풋에게 소리를 치며 달려 나갔다. 로라는 꽃잎에 등을 기대어 누운 채, 노란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았다. 로라는 손가락처럼 길게 갈라진 잎의 사랑스러운 모양을 올려보았다. 지금이 그녀가 원하던, 모든 것이 평화 속에 빠진 바로 그 상태였다.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다.

하지만 워리오위리어들은 여전히 주변에 있었다. 로라는 자신의 머리 위에 있

는 나뭇가지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새들을 볼 수 있었다. 밤에, 와일드 원들이 커다랗고 눈부신 별들 아래서 잠에 빠진 동안 로라는 그 새들이 깃털을 고르면서 서로에게 꼬꼬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왜 저 새들은 산 등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저 새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루는, 슬로가 심장이 멎을만한 소식을 가져왔다. 날마다 와일드 원들은 멀리 보는 언덕, 파룩힐에서 교대로 감시를 해야만 했다. 슬로는 하루 종일 감시를 하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언덕에서 그는 발을 헛디디며 팔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 발로 기어오며 걱정스런 얼굴로 굴러 넘어졌다. 웨이파인더가 슬로를 향해 달려왔다.

“슬로! 숨을 깊이 들이마셔!” 웨이파인더가 슬로에게 말했다.

슬로는 와일드 원들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제 말 좀 해봐.” 웨이파인더가 말했다.

“인간족!” 슬로는 숨을 헐떡였다.

“인간족이라고?” 와일드 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살펴보았다.

슬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통나무 위, 인간족. 벌레가 가득한 바다 위의 새처럼 뜬 배...”

“인간족들은 절대로 월더니스에 오면 안돼.” 사이드맨이 말했다. “절대로 안돼.”

“하지만 그들이 오고 있어요! 거대한 나무새가 물 위에 있어요. 인간족이 그것들을 타고 있어요...”

와일드 원들은 로라를 지시자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인간족이 월더니스로 오는 길을 찾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족과 와일드 원이 함께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웨이파인더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우리의 방식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족에게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 게 어때요?” 워터가 말했다. “인간족들은 우리의 행복한 장소를 보게 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둘 지도 몰라요.”

“인간족은 땅을 빼앗을 거야!” 사이드맨이 으르렁거렸다. “월더니스를 인간족

의 땅이라고 부를 거요. 모두가 자기들 것이라고!”

“날카로운 막대기와 던질만한 돌맹이들을 가져오는 게 어때요!” 슬로가 말했다. “바닷가에 다 모여들어서 인간족에게 그것을 다 던져요!”

“나는 불을 힘껏 던질 거야!” 플레임파인더가 말했다.

“옳소. 좋소!” 와일드 원들이 소리쳤다. 와일드 원들은 무기를 찾으러 서둘러 흩어졌다.

“안돼요!” 로라가 소리쳤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족은 우리를 해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오는 거요?” 사이드맨이 요구하듯 물었다.

로라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무언가를 찾느라 봐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그녀는 와일드 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마이티 하이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날카로운 막대기는 안 됩니다. 돌을 던지는 것도 안 돼요. 불도 안돼요. 인간들이 온화하고 친절할 우리를 만나게 해요.”

와일드 원들은 마지못해서 로라의 말을 따랐다. 그들은 사냥용 창과 손에 쥐고 있던 작고 날카로운 돌맹이들을 내려놓았다. 와일드 원들은 로라와 사이드맨, 그리고 슬로를 따라 파룩힐로 가서 조용히 언덕의 비탈에 모여 있었다. 와일드 원들은 서로에게 팔을 두르고 조금은 흥분되고 조금은 두려워하며 서 있었다.

바다는 신비로운 은회색으로 소용돌이 쳤다. 형체들이 멀리에서 흔들거리며 숨어있었다. 날개를 힘껏 부풀린 것처럼 보였다. 둥둥 떠다니는 안개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유령처럼 떠있는 나무는 반쯤 보였다. 와일드 원들은 눈을 비비며 그것들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모든 월더니스의 색채가 사라지고, 하늘은 밤처럼 어두컴컴해졌다. 로라는 두 손을 둥글게 말아 눈 위에 올려놓고 저 멀리 있는 빛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거기에 무엇인가 있기는 한가?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파도의 철썩임이나 고함소리, 빛, 깜빡임도 없이 오직 회색의 형체가 회색의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다.

로라는 조용히 서있는 와일드 원들을 지나 해변 가로 기어내려 갔다. 만약에 인간족이 온다면 그녀는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다.

갑자기 안개 위에 있는 하늘이 검은 조각들을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수 백 개의 어둠으로 부서져 보였다. 로라가 보기에 그 조각들은 커져서 형태를 갖추는

것처럼 보였고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월더니스로 다가오자, 낮의 마지막 희미한 빛이 사라지고 번쩍이는 섬광들이 펼쳐졌다. 가죽날개들이 분명해졌다.

“문베트!” 로라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번쩍임은 바다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되어 배의 돛에 달린 하얀 날개 모양을 비추었다. 문베트가 인간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문베트의 우두머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하얀 섬광을 로라에게 비추며 위에서 덮쳤다. 플라이트가 그것을 타고 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크게 터트리며 문베트의 목을 두 팔로 두르고, 두 다리는 날개에 끼운 채로 매달려 있었다.

“플라이트 돌아가!” 로라가 말했다.

플라이트는 문베트의 등 위에서 고개를 돌리고 고요히 떠 있는 배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여자애를 데리고 가! 여기에 있어! 데려가 버려!”



17

위험에 처한 월더니스

플라이트는 로라를 향해 방향을 꺾 틀었다. 플라이트는 몸을 낮추고 로라를 잡아 채 바다로 끌고 가기 위해 손을 뻗었다.

“저 사람들은 너를 찾으러 오는 거야. 걸차일드!”

로라는 플라이트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해 보려고 했다.

“이제 너의 마이티 하이 자리를 나에게 넘겨줄래?” 플라이트가 요구했다. 문배트가 한 번 더 달려들었다. 로라의 눈은 문배트의 섬광으로 눈이 부시고 데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움츠렸다.

“안돼, 플라이트 절대로!”

플라이트는 로라를 크게 한 바퀴 돌더니 유령처럼 보이는 배 쪽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와일드 원들을 잡아라!” 플라이트가 소리쳤다. “모두 없애버려!”

플라이트가 한 번 더 빠르게 활공하며 내려오자, 주변의 공기가 큰 소리로 웅

웅거렸다. 회색의 유령선에서 산이 깨지는 듯이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소리가 메아리치고, 이 쿵 쿵 거리는 소리와 갈라지는 소리는 천둥과 번개의 불빛을 마구 흔들었고 바다는 소란스러웠다.

와일드 원들은 과룩힐 비탈에서 웅기종기 모여 있다가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굴러갔다. 그 중에 땅에 쓰러진 나무처럼 마지막 영원잠에 빠져 든 와일드 원도 있었다. 로라는 무릎 깊이의 바닷물에 서 있었다. 안개는 이제 그녀의 눈과 피부 위, 머릿결 안, 코 속, 입과 귀의 안에서 하얀 연기가 되었다.

“스펠혼!” 로라가 소리쳤다. “우리를 구해줘!”

유니콘은 잠을 자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유니콘은 인간족으로부터 자기를 보호위해 주위에 모여 기다리고 있던 워리오워리어에게 우렁차게 고함을 쳤다. 워리오워리어들은 날개를 펼치고 소리를 지르며 응답했다. 워리오워리어들은 바닷가를 향해 달려가는 스펬혼의 뒤를 따라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갔다. 워리오워리어들이 마치 말이 비상하는 것처럼 재빠른 속도로 공기를 가르자 날카로운 날개 짓은 돌을 긁는 칼날 소리 같았다.

스펠혼은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 로라는 스펬혼에게 매달렸다. 워리오워리어들은 혼란스러운 전장의 안개 속으로 썩하니 날아가서 문배트의 날개를 부리로 깊게 찌르고 그림자 배의 돛을 찢고 싸우러온 인간족의 머리를 찢고 유령선을 빙빙 돌고, 돌고 그리고 돌게 만들었다.

문배트의 우두머리는 로라에게 뛰어들어 스펬혼의 등에서 그녀를 바다로 떼어 내려 했다. 플라이트는 몸을 기울이고 로라를 발로 차며 그녀의 팔과 다리를 때렸다.

“플라이트. 플라이트!” 로라의 외침은 전쟁의 혼란 속에 파묻혔다. “와일드 원으로 돌아와! 우리 편으로 돌아와 줘! 너는 우리의 적이 되어선 안돼! 네가 월더니스를 파괴하고 말거야!”

플라이트는 웃었다. “너희들에게 돌아가진 않아. 걸차이드! 나는 이제 인간족의 마이티 하이가 되었어. 인간족은 욕심이 가득 한 마음으로 나를 따를 거야. 우리는 스펬혼과 월더니스를 차지할 거야! 알아둬!”

“스펠혼! 플라이트를 공격해!” 로라가 소리쳤다.

스펠혼이 뒷다리를 꼰 채, 몸을 뒤로 기울이자 로라는 스펬혼에게 매

달렸다. 문베트가 위에서 다시 덮치자, 스펬혼은 뿔로 그것을 찢었다. 플라이트는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뻗었다. 스펬혼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거대한 문베트를 뿔로 찢었다. 문베트는 갈기갈기 찢기고 날개는 조각이 났다. 플라이트는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쓸려갔다.

그후에 파룩힐에서 와일드 원들은 교대로 플라이트를 지켜보며 어둡고 날지 못하는 새가 바다 위로 떨어지고, 그 새가 날아오르려 날개를 치켜들다 가라앉으며 인간족 땅과 월더니스 사이에 놓인 물에 갇히는 것을 보았다.

바다는 고요했다. 스펬혼은 로라를 잠자는 곳으로 데리고 돌아오자 와일드 원들은 하나씩 기어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와일드 원들은 울고 있었다. 밤새도록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상처를 훑아 주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었다. 불은 다 타서 없어졌다. 플레임파인더는 죽었다. 어둠 속에서 와일드 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웨이파인더. 워터. 슬로. 호스맨. 그루브우먼. 패스트풋. 우드페치. 레인..... 와일드 원들의 목소리는 약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힐헨드..... 스타..... 스톤쉬프트... 걸차일드... 그 이름들은 촛불처럼 조용하게 흔들렸다. 스몰 원..... 베리게더..... 트리.....

많은 이름들이 사라졌다. 사이드맨의 이름은 거기 없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영원의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이름들이 더 많이 있었다. 춤을 추는 그래스. 송 걸. 스위트 편. 애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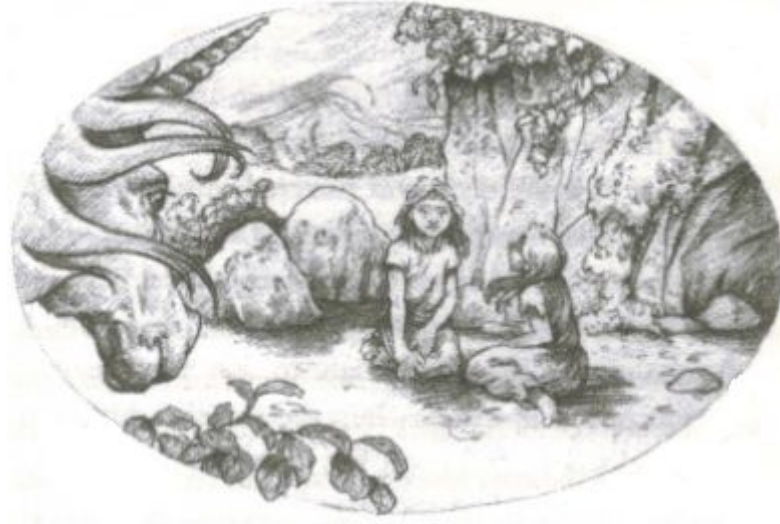
날이 휘황찬란하게 밝았다. 안개는 깨끗이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반짝거렸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 와일드 원들은 슬픔 속에 고요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작별 인사를 위해 꽃을 모으고 통나무를 파기 시작했다. 힐헨드는 약초와 식물들을 찾아 왔고 로라와 워터는 다친 와일드 원들의 상처에 약초를 문지르는 것을 도왔다. 워리오워리어들은 산 위의 등지로 날아갔다. 월더니스의 새들은 맑은 피리 소리를 내었다.

로라는 꽃 망토를 엮는 나이가 더 많은 소녀들과 앉아있었다. 이런 일들이 와일드 원들에게 다시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로라는 이러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은 이것이에요.” 로라는 워터에게 말했다. “인간족들이

와일드 원들을 그냥 내버려두게 뭔가를 해야겠어요.”

“네가?” 워터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걸차일드. 인간족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어?”



18

사라진 스펠혼

다음날 스펠혼이 사라졌다. 로라와 슬로는 스펠혼을 찾아서 윌더니스 주변을 다녔지만 어디에도 스펠혼의 흔적은 없었다. 둘은 피곤하고 걱정에 휩싸인 채 의논장으로 돌아왔고, 어린 와일드 윈들도 스펠혼을 찾으러 무리를 지어 다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모래 위에 발굽 자국조차 없었다. 로라는 스펠혼의 헝헝 거리는 플룻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나는 것이었다. 수색 둘째 날, 저녁 무렵, 로라와 슬로는 파룩힐로 올라갔다. 둘은 커다란 지는 해의 빨간 빛이 얼음산을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바다가 해와 함께 활활 타오르는 것도 보았다. 작고 까만 새가 물 저 멀리에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빙빙 돌고 있었다.

하지만 스펠혼의 흔적은 없었다. 로라는 스펠혼이 돌아오는지 보기 위해 그 언덕에서 밤새 있고 싶다고 말했다. 태양이 바다로 가라앉았고, 작은 배 같은 달은 어두운 하늘에서 흔들거렸고, 얼음의 눈동자 같은 별이 로라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까지 로라는 언덕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슬로는 오랫동안 그녀 곁에 머물렀다. 밤중에 슬로는 언덕에 미끄러져 내려가서 로라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여기.” 그가 말했다. “머쉬를 조금 마셔봐.”

로라는 고개를 저었다. 곧 슬로는 잠에 빠져들고, 잠시 후 로라도 잠이 들었다. 하지만 토끼잠을 잤다. 자는 내내 그녀는 스펬혼이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월더니스의 동물들이 오솔길을 따라 내는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깼다. 그녀가 겨우 잠에 들었을 때, 어두운 물체가 혼란스러운 안개로부터 그녀에게 다가오는 이상하고 신경에 거슬리는 꿈을 꿔다. 그 형체들이 그녀에게 다가서자 그녀 역시 그 형체로 다가가서, 서로에게 손을 뻗어 손가락이 거의 닿을 때 쫘 그 형체는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다. 로라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미드나이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로라는 월더니스를 다시 수색했다. 와일드 원들은 무기력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와일드 원들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마를 때리고 스펬혼의 냄새를 맡아 보려고도 했지만 혼란스러웠다. 마침내 로라는 가죽 텐트로 기어 들어가서 어둠 속에 누워 천천히 흔들리는 가죽을 올려다보았다. 워터가 생명음료를 들고 로라를 찾아 기어 들어왔다. 워터는 편히 앉아서 로라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와일드 원들은 이렇게 마음슬픔 시간을 알지 못했어.” 워터가 말했다.

“제 부끄러운 잘못이에요.” 로라가 말했다. “제가 마이티 하이의 모든 일들을 그르쳤어요.”

워터는 웃으면서 로라의 뺨을 토닥였다. “너는 바로 그 좋은 마이티 하이야. 걸차일드. 확실해!”

“그러면 내 스펬혼은 어디 있나요?”

워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눈 좀 붙여. 너에게 자장가를 불러줄게. 스펬혼은 돌아올 거야.”

워터가 노래를 부르자 로라는 똥똥 떠다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낮이 밤이 되고 다시 바뀌는 동안 그녀는 잠을 잤다. 슬로는 로라를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슬로가 가끔씩 그녀를 깨우기 위해 손가락으로 그녀를 찌르자 워터가

슬로에게 그녀를 혼자 내버려두고 나가라고 했다. 다음날 밤 로라는 잠에서 깨었다. 모든 와일드 원들이 부드러운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누워서 스펬혼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로라는 가죽 텐트에서 기어 나왔다. 스펬혼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빛났다.

“스펠혼!” 로라가 스펬혼에게 다가서자마자, 스펬혼은 약간 뒤로 물러섰다. 스펬혼은 우거진 숲으로 사라졌다.

“기다려!”

로라는 나무 사이에서 하얗게 펄럭이는 갈기에 비치는 달빛을 따라 웃으며 그를 쫓아 달려갔다. 스펬혼은 계곡을 향해서 그녀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로라는 물이 급하게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동굴 입구에서 있는 스펬혼이 있는 곳까지 갔다. 로라는 스펬혼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스펬혼의 따뜻한 목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팔과 다리는 떨렸다. “어디 갔었니?” 그녀가 물었다. “왜 나를 내버려 둔거야?”

스펠혼은 그녀를 가볍게 끌어당겼다. 로라는 슬로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이름을 새겼던 동굴입구에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스펬혼은 그녀의 뺨에 가볍게 콧바람을 불고 땅을 발로 찼다.

“안에 무엇이 있니? 스펬혼. 뭐 찾아낸 거 있어?” 그녀가 물었다.

스펠혼은 조용히 헝헝거렸다.

로라는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늘어진 이끼와 고사리로 된 커튼을 들어올렸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로라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거기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녀는 피부를 만졌다. 손이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로라의 목소리처럼 떨리는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되 돌아 왔다.

“나는 걸차일드야.” 로라가 말했다. “나는 와일드 윈들의 마이티 하이야.”

“나는 미드나이트야.”

“미드나이트!” 로라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드나이트.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름이었다.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신비로움이 있었다. 그 이름은 아주 먼 기억들을 불러 일으켰다. 로라는 스펬혼이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밖으로 나가자 미드나이트.” 로라가 말했다. “나는 너를 보고 싶어.”

로라가 동굴 밖으로 기어 나가자 미드나이트 걸은 천천히 로라를 따라갔다. 거의 날이 밝았다. 로라는 동굴 밖에 서서 미드나이트가 손으로 더듬으며 빛 아래서 그녀가 얼마나 어색하게 느끼는 지를 지켜보았다. 미드나이트는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그녀는 그녀 앞에 있는 로라나 스펬혼을 보지 않았다. 그저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와일드 윈이 아니구나?” 로라가 말했다. 그 소녀는 창백한 피부와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파란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어떤 표시도 담고 있지 않았다. 미드나이트는 여전히 그녀의 앞을 바라보며 로라가 자기를 지켜보는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에 왔니?” 로라가 물었다.

미드나이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뻗어 스펬혼의 등을 다독였다. “너랑 마찬가지로야.” 미드나이트가 말했다. “스펠혼이 나를 데리고 왔어.”

로라는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펠혼?”

로라가 스펬혼을 보았다. 미드나이트는 확실히 뭔가 신비로웠다. 로라는 미드나이트를 만난 게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로라는 미드나이트를 내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같이 가서 월드니스를 둘러보자.” 로라가 말했다.

미드나이트는 로라의 손을 잡고 로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로라는 그 소녀를 뿌리들이 엉켜있고 야생 식물들이 발 주변에 퍼져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로라와 미드나이트가 흐르는 강물가에 다다랐을 때, 로라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미드나이트는 로라의 두 손을 잡은 채 강가에서 한발씩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둘은 강둑에서 조금 떨어져서 웅덩이로 들어갔다. 그 웅덩이는 강둑에서 조

금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았다. 물웅덩이는 고요하고 깨끗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기다려.” 로라가 미드나이트에게 말했다. 로라는 미드나이트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미드나이트는 조심스럽게 웅덩이로 들어와서 로라 옆에 무릎 꿇고 앉았다. 로라는 몸을 기울이고 고개를 숙여 물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미드나이트도 고개를 숙이자 로라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달랑거리는 노란 머릿결과 파란 눈을 보았다. 그렇다. 그 모습은 로라가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해 왔던 모습이였다. 로라와 미드나이트는 같았다.

스펠혼이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로 코를 밀어 넣자 그 형상은 사라졌다.

로라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이 부시지 않아?” 로라가 말했다.

미드나이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 땅의 색들과 빛의 색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니?”

“안보여.”

“그러면 월더니스에서 너는 행복하지 않겠구나?” 로라가 말했다. 로라는 그녀의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혼란스런 형상들을 지우려고 눈을 감았다. 무엇인가 그녀의 기억을 바위틈에 끼어 있는 나뭇잎을 강물이 당기듯 끌어 당겼다. 미드나이트에게 어울리는 뭔가 적당한 말이 있었다. “이 곳은 네게는 진정한 고향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그녀가 생각하던 단어였다. 고향. 집. 그 이파리가 자유롭게 떠다녔다. 스펬혼이 잠에 빠진 그녀를 깨우려는 것처럼 로라를 살살 밀자 로라는 눈을 떴다.

“어디엔가 집이 있지? 미드나이트. 너를 위한 집. 어디에서 내내 진정으로 기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로 가야만해.”

미드나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로라가 일어서서 웅덩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같이 일어섰다. 스펬혼은 웅덩이 안으로 뛰어들어서 발을 찼다. 그러더니 일어서서 몸을 흔들어 물을 털고 로라와 미드나이트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 갔다. 로라는 와일드 원들이 잠자는 곳 밖에 멈춰 섰다. 어떤 와일드 원들은 이미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숨을 들이켰다. 로라는 패스트풋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것을 보았다. 슬로는 굵적거렸다. 웨이파인더는 워터를 간질여 깨우

고 그녀를 일으켜 앉혀 서로 주먹으로 가볍게 토닥였다. 그루브우먼은 우드패치를 따라서 중얼거리며 그날 처음 배 채울 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였다.

로라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다. 로라는 이상한 슬픔으로 마음이 아팠다. 슬로는 하품을 하고 돌아서서 서있는 로라를 보고 주먹을 들어 올려 인사를 보냈다. 로라도 천천히 주먹을 슬로에게 들어 올렸다. 슬로는 네 발로 기어서 우드패치를 따라 날쌔게 움직였다.

“조심해서 다녀!” 로라가 속삭였다. 로라는 목이 매어왔다. 로라의 오래된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 힘들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마 거기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월더니스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로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항상 당신들을 기억할게요.”

로라는 미드나이트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고 긴장되어 있었다.

“올라타.” 로라가 미드나이트에게 말했다. 로라는 미드나이트가 스펬혼의 등 뒤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뒤에 올라타서 그녀를 껴안고 스펬혼의 갈기를 꼭 잡았다. 로라는 부드럽게 스펬혼을 차며 와일드 원에게서 머리를 돌리도록 했다.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로라가 스펬혼에게 말했다. “어서 출발해.”



19

얼음산을 넘어

스펠혼은 얼음산을 넘기로 했다. 앞으로 달려 나갈 때의 속도로 인해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곤경에 빠지지는 않았다. 스펠혼의 말발굽은 얼음 위에서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고 그 소리는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다시 울려 퍼져 한 무리의 유니콘들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들렸다. 로라는 속도감과 얼굴에 이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뒤쪽으로 느슨하게 휘날리는 느낌이 좋았다. 미드나이트는 흥분으로 크게 웃으며 스펠혼에게 매달려 있었다.

모두가 그 산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공기는 부드럽고 온화했다. 로라와 미드나이트는 스펠혼의 등 뒤에서 잠이 들었다가 상쾌함과 행복감으로 깨었다. 둘은 이 여행이 얼마나 길릴지, 혹은 어디를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스펠혼만이 길을 알고 있었다.

스펠혼이 멈춰 서자 로라와 미드나이트는 언덕 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로 집들이 중심가에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을 보았다. 한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멈춰서 양 다리를 벌린 채 자전거에 앉아 등을 올려보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태양빛을 가렸다. 로라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소년은 흥분하고 당황했지만 자신이 본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

스펠혼은 언덕 위에 있는 둥근 바위 끝에 다다르자 속도를 늦췄다. 스펬혼은 둥근 바위들 사이로 천천히 비틀비틀 나아가서 열린 공간으로 나있는 오솔길에 닿았다. 로라와 미드나이트는 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 오솔길은 언덕 반쯤에 있는 어떤 대문과 맞닿아 있었다. 그 마을에서 맨 끝 집이었다. 스펬혼은 문을 뛰어 넘어 정원내 내려섰다. 로라는 마디가 울퉁불퉁한 사과나무의 가지 아래를 스펬혼이 지나가자 몸을 숙였다. 스펬혼은 작은 화원에 멈춰 섰다.

“미드나이트, 여기가 네 집이야.” 로라가 말했다.

로라가 스펬혼의 등에서 미끌어져 내려와 미드나이트의 손을 잡아주자 미드나이트는 스펬혼의 등에서 내려왔고 그 순간 로라의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사라졌다.

킁킁함 속에, 깊은 암흑 속에서 그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로라는 팔을 뻗어서 천천히 돌아섰다. 아무것도 없었다. 로라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다. 그녀는 발아래에 비옥한 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직여 울퉁불퉁한 사과나무 껍질을 만졌다. 로라는 개가 짖으며 앞발로 문을 긁는 소리와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따뜻하고 털이 많은 형체가 그녀에게 뛰어들었다.

“퀴니!” 그녀가 웃었다. “퀴니!”

사람들은 소리쳤다. 그들은 잔디밭을 왁자지껄하게 뛰어왔다. 로라 아빠는 그녀 불에 턱을 문질렀다. 엄마는 두 팔로 그녀를 안고, 안고, 또 안았다. 집.



20

고향

꽃향기와 함께 강한 계피 향이 화원에 퍼졌다. 그림자에서 하얀색 반짝이는 것이 움직였다. 미드나이트는 스펠혼의 등을 쓰다듬었다.

“와일드 원들은 마이티 하이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미드나이트는 스펠혼의 양 옆에 뒤통치를 꼭 붙였다. “와일드 원들이 있는 집으로 데려다줘.”





참고문헌

1. 국내서

- 김효중(1998). 「번역학」. 서울: 민음사
원영희 (2003). 「원영희 교수의 일급 번역교실」. 서울: 한언
유영난(1991).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대학사
이근달(1998). 「영문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이기문(2001). 「번역의 길잡이」. 서울: 백신출판사
지정숙(1997). 「번역의 기초이론」. 서울: 도서출판 한국번역연구원
최정화(1993). 「통역과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서울: 신론사
(2004). 21세기 최고의 전문직, 통역 번역사에 도전하라. 서울: 넥서스
김재원(2011). 「영어어휘 Story-telling」. 제주 : 제주대학교 출판부

2. 번역서

- Bassnett, Susan 저/ 엄재호 역 (1999) 「번역학 개론」. 서울: 인간사랑
Koller, Werner 저/ 박용삼 역 (1997)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Nederer, Marianne 저/ 전성기 역(2001) 번역의 오늘 : 해석이론.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3. 국외서

Bassnett, Susan & Lefevere, Andre.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UK: Multilingual Matters, 1998, 143p.

James, Peter, ed. *Translation and the Manipulation of Discourse: Selected Papers of the CERA Research Seminars in Translation Studies*. The Lueven Research Center for Translation, Communication and Cultures. Luven: Lueven University Press, 1995, 305p.

Hatim, Basil. *Communication Across Cultures: Translation Theory and Contrastive Test Linguistics*. Exeter, UK: University of Exeter Press, 1997, 235p.

Hatim, Basil & Mason, Ian.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244p.

Leppinhalme, Ritva. *Culture Bumps: An Empirical Approach to the Translation of Allusions*. WBC Book Manufactures, 1997, 241p.

Leuven-Zwart Kitty Van & Najikens Tom.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Amsterdam & Atlanta: Rodopi, 1991. 208p.

Mason, Ian, ed. *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Dialogue Interpreting*. UK: Harlot Watt, 1999, 355p.

Nord, Christine.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damentalist Approach Explain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154p.

Simon, Sherry. *Gender in Translation: Cultural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6, 195p.

4. 웹 사이트

www.google.co.uk

www.google.com

www.naver.com

www.wikipedia.com

www.daum.net